

2018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목차〉

I. 연구요약

1. 연구목적	1
2. 연구개요	1
3. 연구 요약	2

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
2. 청소년활동 공동 지표	15
3. 청소년 참여실태	16
4.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실태	81
(4. 내용 없음)	
5. 청소년활동 참여요구	81
6. 청소년활동 결정 요인	87
7.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상관관계	96
8. (제목 없음)	

III. 결론 및 제언

1. 주요결과	115
2. 청소년활동 참여요구	117
3. 청소년활동 결정요인	118
4.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상관관계	119
5. 제언	120

〈표 차례〉

〈표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16
〈표 2〉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16
〈표 3〉	84
〈표 3 연속〉	85
〈표 3 연속〉	86
〈표 4〉 개인시민성 문항별 평균	96
〈표 5〉 협동 문항별 평균	96
〈표 6〉 관계형성 문항별 평균	97
〈표 7〉 진로설계 문항별 평균	98
〈표 8〉 청소년 활동이 개인시민성 역량에 미치는 영향	99
〈표 9〉 청소년 활동이 협동역량이 미치는 영향	100
〈표 10〉 청소년 활동이 관계형성역량이 미치는 영향	101

〈표 11〉 청소년 활동이 진로역량이 미치는 영향	102
〈표 12〉 개인시민성 역량 비교	103
〈표 13〉 협동 역량	105
〈표 14〉 협동 역량 비교	105
〈표 15〉 관계형성 역량	107
〈표 16〉 관계형성 역량 비교	107
〈표 17〉 진로설계 역량	109
〈표 18〉 진로설계 역량 비교	109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대상자의 성별구성	13
〈그림 2〉 연구대상자의 학년구성	13
〈그림 3〉 연구대상자의 학교유형구성	13
〈그림 4〉 연구대상자의 지역분포	14
〈그림 5〉 연구대상자의 성적분포	14
〈그림 6〉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16
〈그림 7〉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16
〈그림 8〉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17
〈그림 9〉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17
〈그림 10〉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18
〈그림 11〉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18
〈그림 13〉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19
〈그림 12〉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19
〈그림 14〉 교류활동 참여경험	20
〈그림 15〉 교류활동 참여횟수	20
〈그림 16〉 교류활동 만족도	21
〈그림 17〉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21
〈그림 18〉 모험탐사활동 참여횟수	22
〈그림 19〉 모험탐사활동 만족도	22
〈그림 20〉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23
〈그림 21〉 문화예술활동 참여횟수	23
〈그림 22〉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24
〈그림 23〉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24
〈그림 24〉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25
〈그림 25〉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25
〈그림 26〉 진로활동 참여경험	26
〈그림 27〉 진로활동 참여횟수	26
〈그림 28〉 진로활동 만족도	27
〈그림 29〉 참여활동 참여경험	27
〈그림 30〉 참여활동 참여횟수	28
〈그림 31〉 참여활동 만족도	28
〈그림 32〉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29

〈그림 33〉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30
〈그림 34〉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30
〈그림 35〉 교급별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31
〈그림 36〉 교급별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32
〈그림 37〉 교급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32
〈그림 38〉 성적별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33
〈그림 39〉 성적별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33
〈그림 40〉 성적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34
〈그림 41〉 지역별 신체건강관리활동 참여경험	35
〈그림 42〉 지역별 스포츠활동 참여경험	35
〈그림 43〉 지역별 중독예방활동 참여경험	36
〈그림 44〉 지역별 정신건강활동 참여경험	36
〈그림 45〉 지역별 생활안전활동 참여경험	37
〈그림 46〉 지역별 성교육활동 참여경험	37
〈그림 47〉 지역별 신체건강관리활동 참여횟수	38
〈그림 48〉 지역별 스포츠활동 참여횟수	38
〈그림 49〉 지역별 중독예방활동 참여횟수	39
〈그림 50〉 지역별 정신건강활동 참여횟수	39
〈그림 51〉 지역별 생활안전활동 참여횟수	40
〈그림 52〉 지역별 성교육활동 참여횟수	40
〈그림 53〉 지역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41
〈그림 54〉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42
〈그림 55〉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42
〈그림 56〉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43
〈그림 57〉 교급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43
〈그림 58〉 교급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44
〈그림 59〉 성적별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45
〈그림 60〉 성적별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46
〈그림 61〉 성적별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46
〈그림 62〉 지역별 기술공학활동 참여경험	47
〈그림 63〉 지역별 우주과학활동 참여경험	47
〈그림 64〉 지역별 생명과학활동 참여경험	47
〈그림 65〉 지역별 해양과학활동 참여경험	48
〈그림 66〉 지역별 정보통신활동 참여경험	48
〈그림 67〉 지역별 기술공학활동 참여횟수	49
〈그림 68〉 지역별 우주과학활동 참여횟수	49
〈그림 69〉 지역별 생명과학활동 참여횟수	49
〈그림 70〉 지역별 해양과학활동 참여횟수	50
〈그림 71〉 지역별 정보통신활동 참여횟수	50
〈그림 72〉 지역별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50
〈그림 72〉 성별에 따른 교류활동만족도	51
〈그림 74〉 교급별 교류활동 참여경험	51

〈그림 75〉 교급별 교류활동 참여횟수	52
〈그림 76〉 교급별 교류활동 만족도	52
〈그림 77〉 성적별 교류활동 만족도	53
〈그림 78〉 지역별 국제교류활동 참여경험	53
〈그림 79〉 지역별 남북교류활동 참여경험	53
〈그림 80〉 지역별 국제교류활동 참여횟수	54
〈그림 81〉 지역별 국제교류활동 만족도	54
〈그림 82〉 성별에 따른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55
〈그림 83〉 성별에 따른 해양수상활동 참여횟수	55
〈그림 84〉 교급별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56
〈그림 85〉 성적별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56
〈그림 86〉 성적별 모험탐사활동 만족도	57
〈그림 87〉 지역별 환경생태탐사활동 참여경험	57
〈그림 88〉 지역별 야영활동 참여경험	58
〈그림 89〉 지역별 해양수상활동 참여경험	58
〈그림 90〉 지역별 도전활동 참여경험	58
〈그림 91〉 지역별 모험탐사활동 만족도	59
〈그림 92〉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59
〈그림 93〉 교급별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60
〈그림 94〉 성적별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60
〈그림 95〉 성적별 따른 다문화이해활동 참여횟수	61
〈그림 96〉 성적별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62
〈그림 97〉 지역별 예술체험활동의 참여경험	62
〈그림 98〉 지역별 전통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	63
〈그림 99〉 지역별 축제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	63
〈그림 100〉 지역별 다문화이해활동의 참여경험	63
〈그림 101〉 지역별 예술체험활동의 참여횟수	64
〈그림 102〉 지역별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64
〈그림 103〉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65
〈그림 104〉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65
〈그림 105〉 교급별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66
〈그림 106〉 교급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66
〈그림 107〉 성적별 재능나눔활동 참여경험	67
〈그림 108〉 성적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67
〈그림 109〉 지역별 일손돕기활동 참여경험	68
〈그림 110〉 지역별 재능나눔활동 참여경험	68
〈그림 111〉 지역별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	68
〈그림 112〉 지역별 재능나눔활동 참여횟수	69
〈그림 113〉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69
〈그림 114〉 성별에 따른 진로활동 참여경험	70
〈그림 115〉 성별에 따른 진로활동 참여횟수	70
〈그림 116〉 성별에 따른 진로활동 만족도	71

〈그림 117〉 교급별 진로활동 참여경험	71
〈그림 118〉 교급별 진로활동 참여횟수	72
〈그림 119〉 성적별 진로활동 참여경험	72
〈그림 120〉 성적별 진로활동 참여횟수	73
〈그림 121〉 성적별 진로활동 만족도	73
〈그림 122〉 지역별 자기이해활동 참여경험	74
〈그림 123〉 지역별 진로직업탐색활동 참여경험	74
〈그림 124〉 지역별 창업활동 참여경험	74
〈그림 125〉 지역별 진로활동 만족도	75
〈그림 126〉 성별에 따른 참여활동 참여경험	75
〈그림 127〉 성별에 따른 참여활동 참여경험	76
〈그림 128〉 교급별 참여활동 참여경험	76
〈그림 129〉 교급별 참여활동 참여횟수	77
〈그림 130〉 교급별 참여활동 만족도	77
〈그림 131〉 교급별 참여활동 만족도	78
〈그림 132〉 성적별 진로직업탐색활동 참여횟수	78
〈그림 133〉 성적별 참여활동 만족도	79
〈그림 134〉 지역별 자치활동 참여경험	79
〈그림 135〉 지역별 지역사회변화활동 참여경험	79
〈그림 136〉 지역별 자치활동 참여경험	80
〈그림 137〉 지역별 참여활동 만족	80
〈그림 138〉 청소년활동 참여희망	81
〈그림 139〉 성별에 따른 청소년활동 참여희망	82
〈그림 140〉 교급별 청소년활동 참여희망	83
〈그림 141〉 청소년활동정보 획득경로	87
〈그림 142〉 청소년활동정보 참여동기	88
〈그림 143〉 청소년 참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	89
〈그림 144〉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장소	89
〈그림 145〉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	90
〈그림 146〉 청소년활동참여 장애요인	91
〈그림 147〉 청소년활동 참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92
〈그림 148〉 청소년 활동 참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	93
〈그림 149〉 알고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	94
〈그림 150〉 알고 있는 청소년활동 시설	95
〈그림 151〉 청소년활동 시설이용경험	95
〈그림 152〉 성별에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104
〈그림 153〉 교급별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104
〈그림 154〉 성적별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104
〈그림 155〉 고교유형에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104
〈그림 156〉 지역별 개인시민성 평균	104
〈그림 157〉 성별에 따른 협동 평균	106
〈그림 158〉 교급별 협동 평균	106

〈그림 159〉 성적별 협동 평균	106
〈그림 160〉 고교유형별 협동 평균	106
〈그림 161〉 지역별 협동 평균	106
〈그림 162〉 교급별 관계형성 평균	108
〈그림 163〉 성적별 관계형성 평균	108
〈그림 164〉 고교유형별 관계형성 평균	108
〈그림 165〉 지역별 관계형성 평균	108
〈그림 166〉 성적별 진로설계 평균	110
〈그림 167〉 고교유형별 진로설계 평균	110
〈그림 168〉 지역별 진로설계 평균	110
〈그림 169〉 청소년활동 만족도	111
〈그림 170〉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111
〈그림 171〉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학교연계 희망활동	112
〈그림 172〉 내가 즐겨 찾는 SNS 방법	112
〈그림 173〉 친구들이 즐겨 찾는 SNS 방법	113
〈그림 174〉 봉사활동 참여 경로	113
〈그림 175〉 필요한 청소년정책	114

I.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8조에 근거하여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지역 특성과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의 근거와 청소년활동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2. 연구개요

- 연구주제 : 2018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연구방법
 -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
 - 청소년들의 활동 실태 및 요구, 청소년활동의 결정요인 및 청소년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
 - 성별, 교급, 학교성적, 고교유형, 지역에 따른 활동참여 및 영역별 활동참여 여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 t-test 및 ANOVA를 실시.
 - 성별과 학년, 성적, 청소년활동 참여개수, 희망활동개수, 청소년 역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 청소년활동의 참여활동개수와 희망활동개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청소년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
- 조사설계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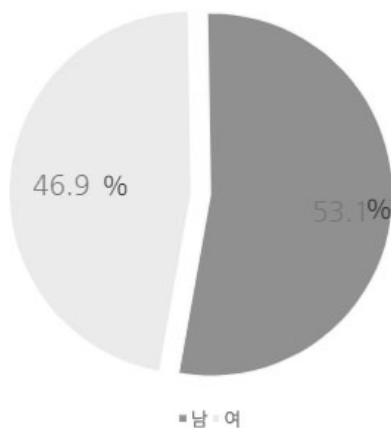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모집단	부산지역 중학교 2학년,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표본추출	16개 구군별 중,고 교급별 50명 추출 / 남녀비율
조사대상	청소년 2,000명 / 유효포본 1,580명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8. 5. 9. ~ 5. 25.

- 조사도구 :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기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재구성 하였으며, 주요 구성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참여요구, 청소년활동 결정요인, 청소년 역량, 일반적 사항임.
- 청소년활동 영역은 2015년 개발된 청소년활동 공통지표를 활용하여 8개 영역역, 34개 세부활동으로 구분함(①건강증진활동 ②과학정보활동 ③교류활동 ④모험탐사활동 ⑤문화예술활동 ⑥자원봉사활동 ⑦진로활동 ⑧참여활동).
- 청소년 역량은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2015)의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에서 사용한 문항 중 일부인 관계형성 역량, 협동 역량, 개인시민성 역량, 진로설계 역량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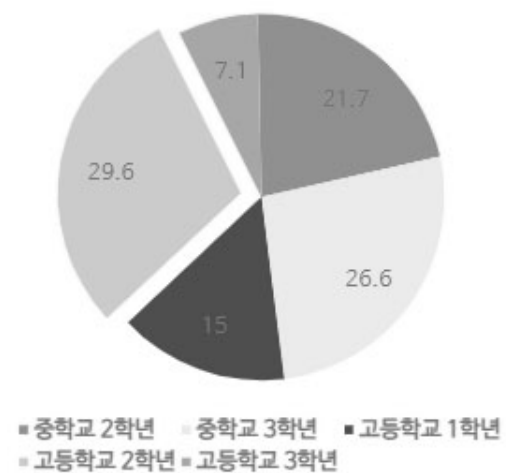
3. 연구 요약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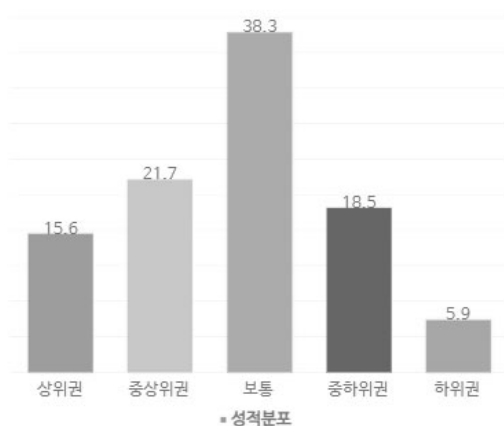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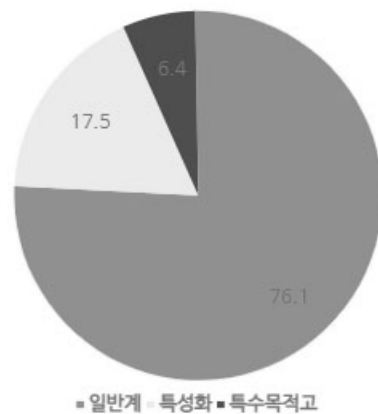
■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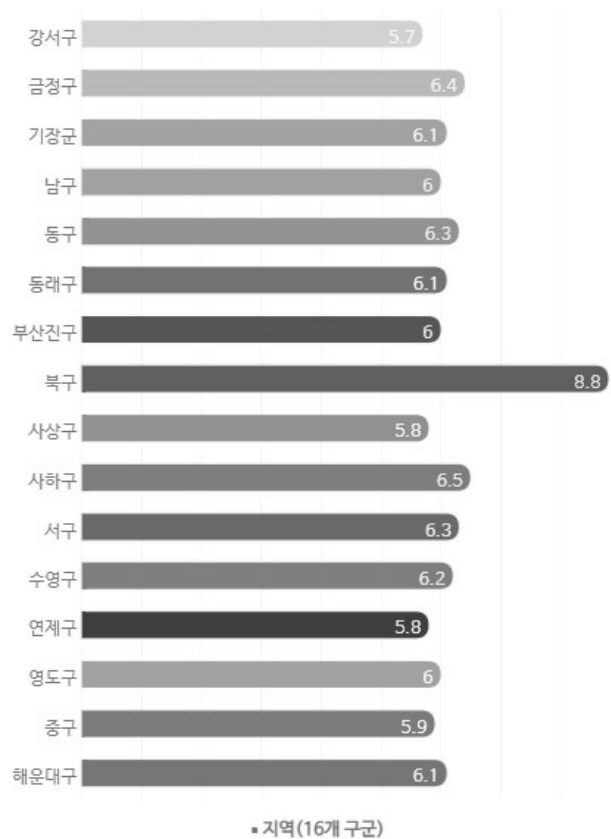
■ 성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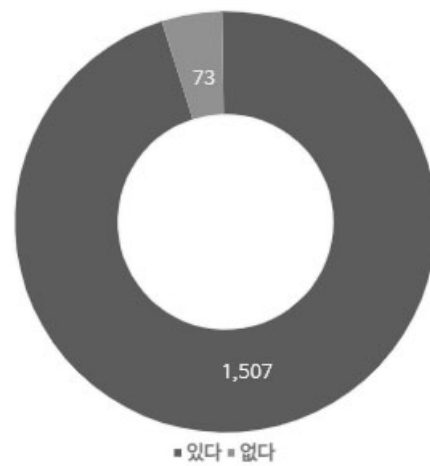
■ 고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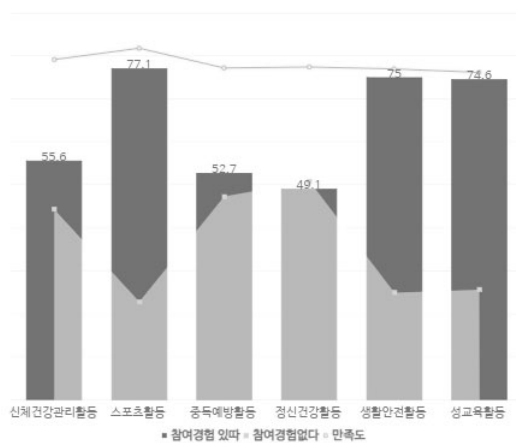
■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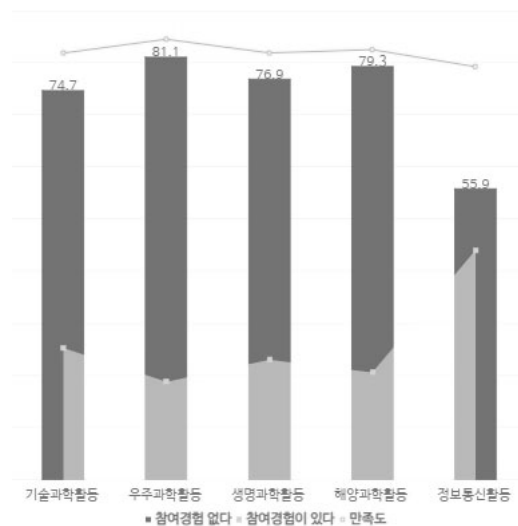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 참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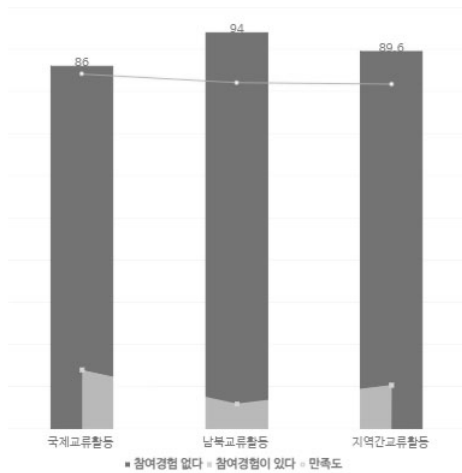
■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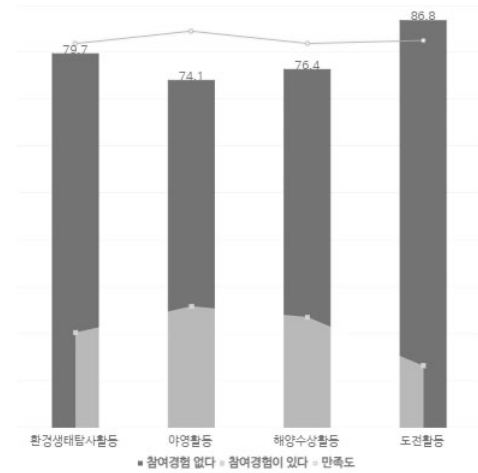
■ 과학정보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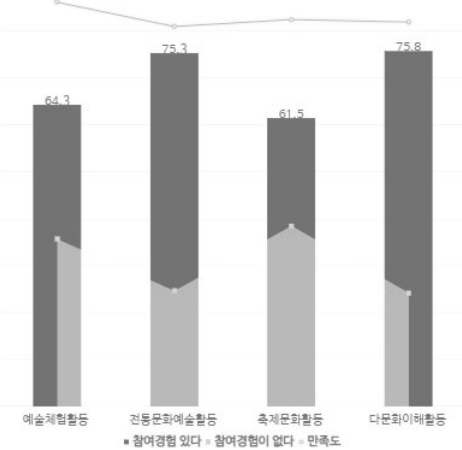
■ 교류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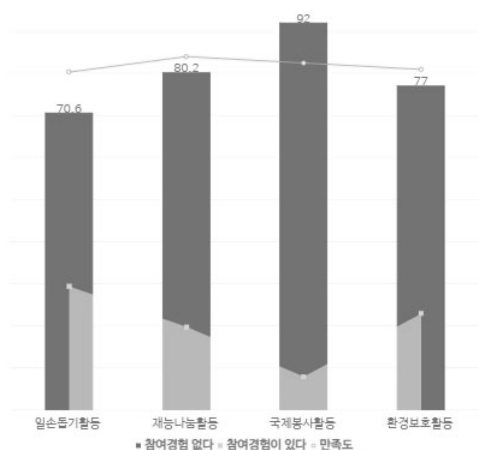
■ 모험탐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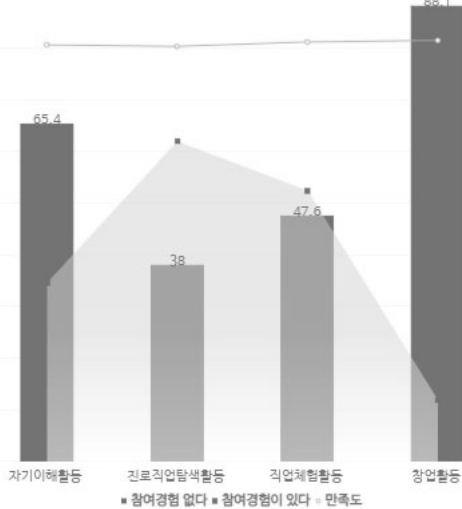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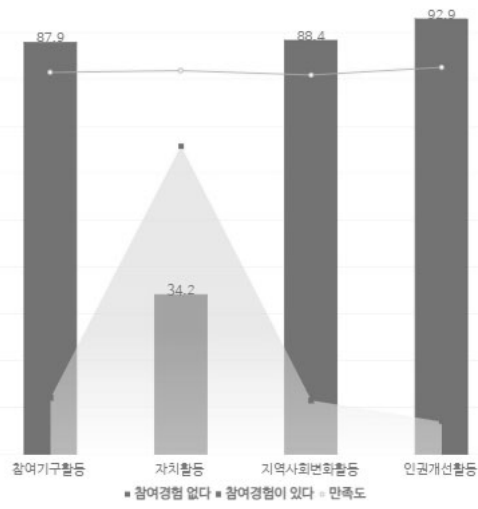
■ 자원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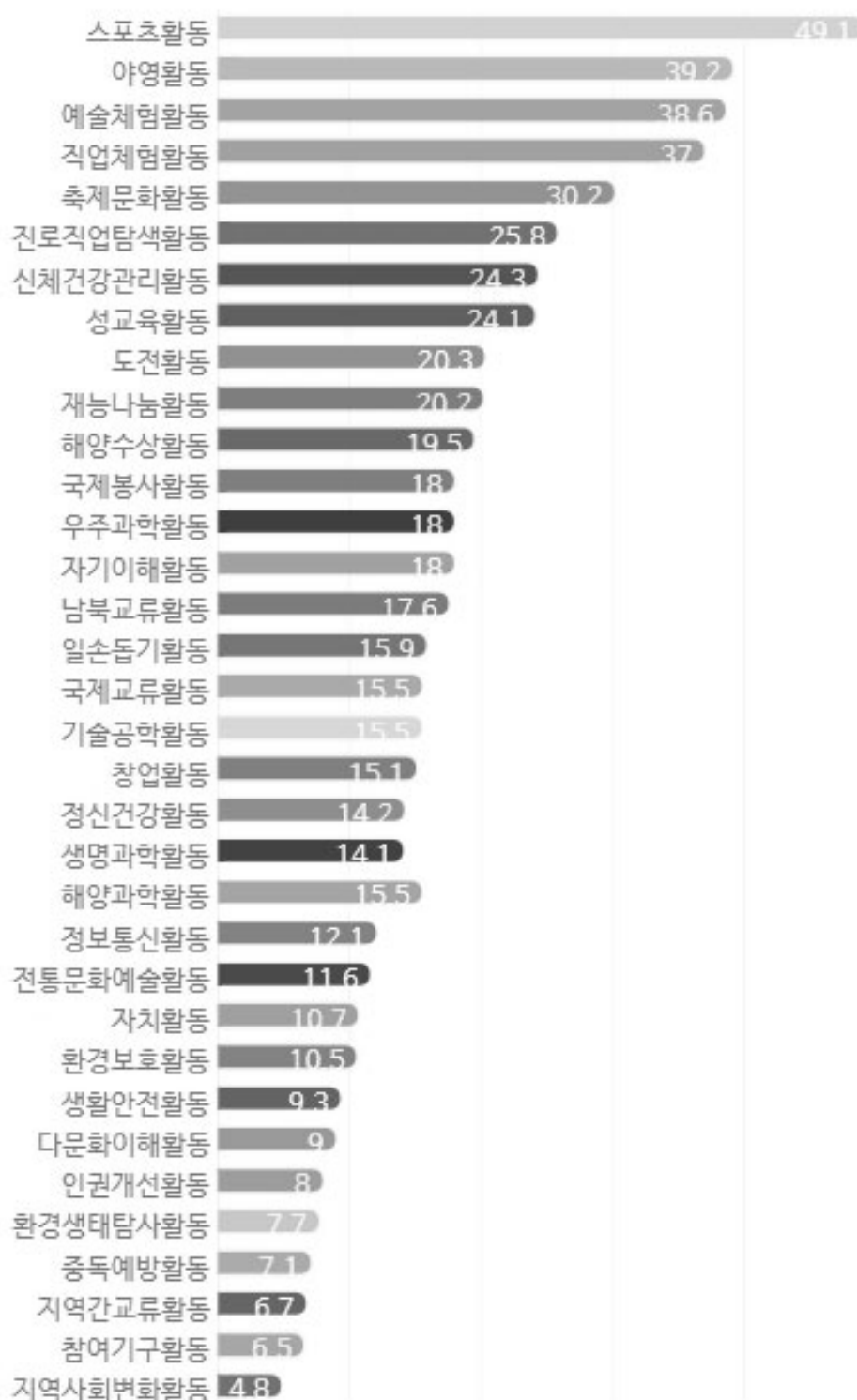
■ 진로활동 참여경험



■ 참여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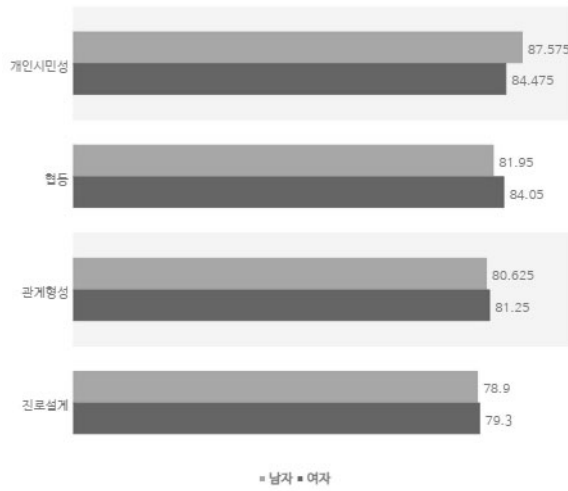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 참여희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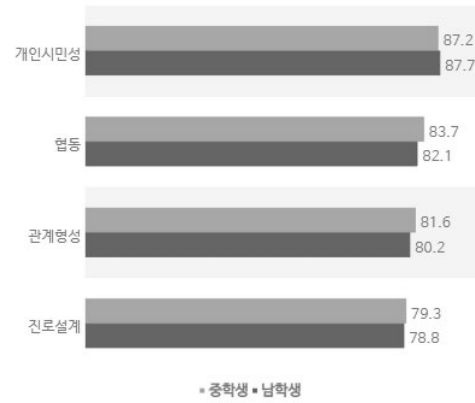


■ 참여 희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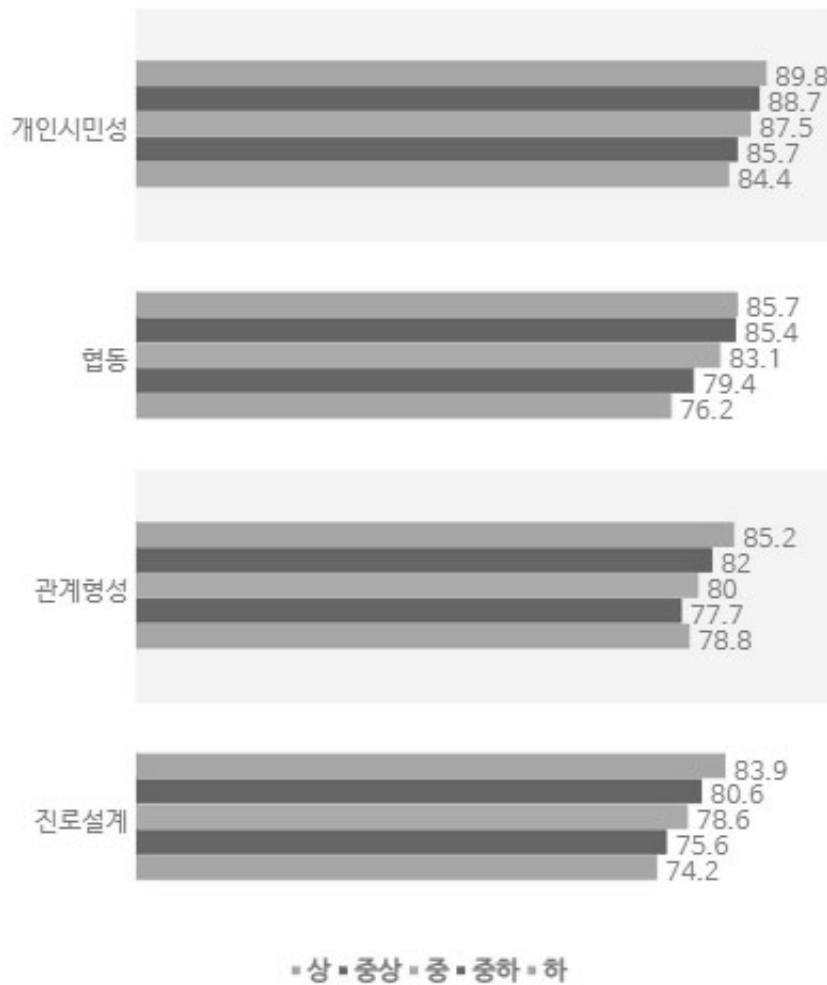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청소년역량지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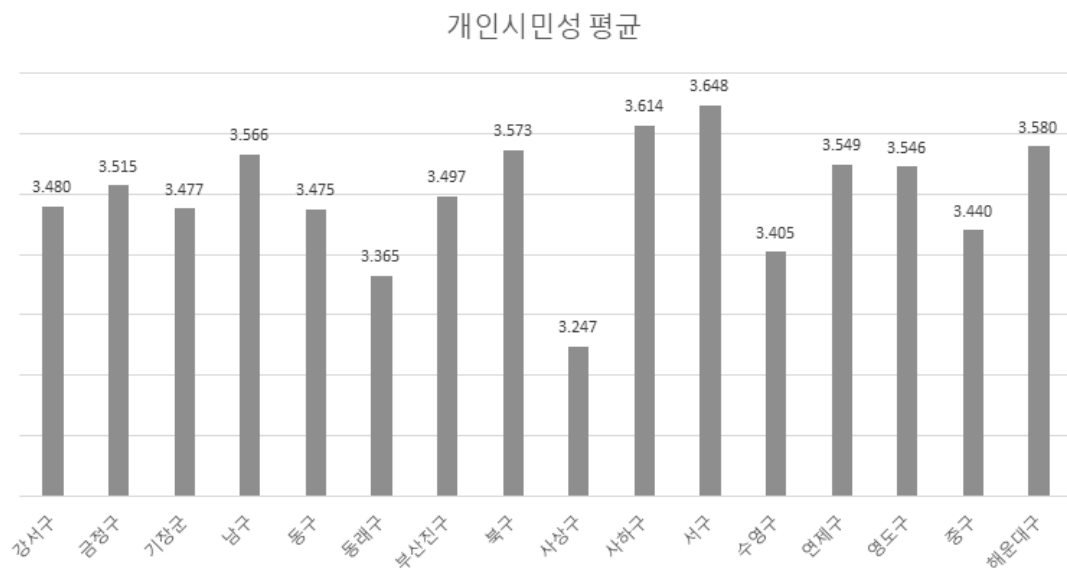
■ 학년에 따른 청소년역량지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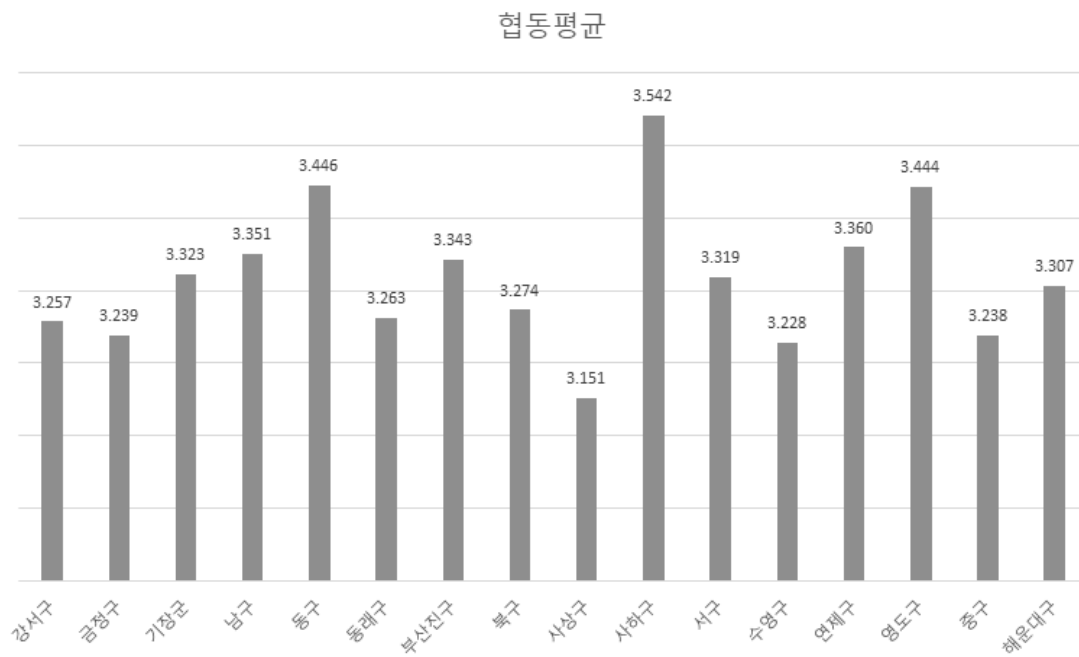
■ 성적에 따른 청소년역량지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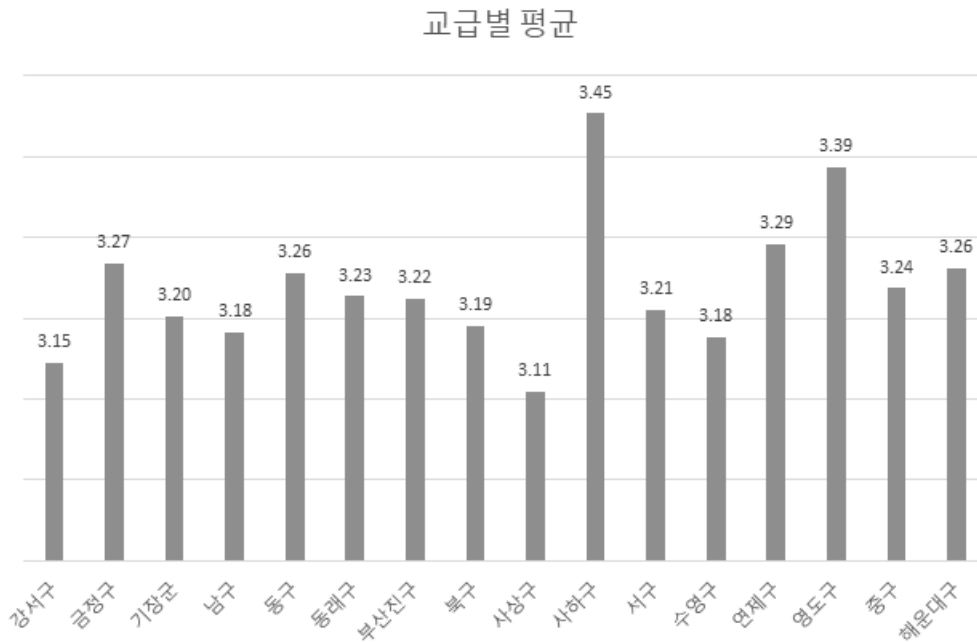
■ 개인시민성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



■ 협동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



■ 관계형성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



2) 2018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의 주요 결과

○ 전체 활동의 참여실태

-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을 분석한 결과, 총 1580명 중 1507명(95.4%)의 청소년들이 1회 이상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8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건강증진활동으로 1424명(90.1%)이 참여하였으며, 진로활동(70.3%), 문화예술활동(69.5%), 참여활동(67.8%), 과학정보활동(53.0%) 순으로 참여
- 활동의 만족도는 81.25점(평균 4.08/5점) 수준을 보였으며, 8개 모든 영역에서 70점대의 만족도를 보임.

○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실태

- 건강증진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스포츠활동으로 1218명(77.1%)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안전활동 1185명(75%), 성교육활동 1179명(74.6%), 신체건강관리활동 878명(55.6%), 중독예방활동(52.7%), 정신건강활동(49.1%) 순으로 참여.
- 과학정보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정보통신활동으로 1580명 중 697명(44.1%)이 참여하였으며 기술공학활동 400명(25.3%), 생명과학활동 365명(23.1%), 해양과학

- 활동 327명(20.7%), 우주과학활동(18.9%) 순으로 참여.
- 교류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국제교류활동으로 1580명 중 221명 (14.0%) 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간교류활동 165명(10.4%), 남북교류활동 95명(6.0%) 순으로 참여.
- 모험탐사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야영활동으로 1580명 중 409명 (25.9%) 이 참여하였으며 해양수상활동 373명(23.6%), 환경생태탐사활동 321명(20.3%), 도전활동 209명(13.2%) 순으로 참여.
- 문화예술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예술체험활동으로 1580명 중 1016명 (64.3%)이 참여하였으며 축제문화활동 609명(38.5%), 전통문화예술활동 391명(24.7%), 다문화이해활동 383명(24.2%) 순으로 참여.
- 자원봉사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일손돕기활동으로 1579명 중 464명 (29.4%)이 참여하였으며 환경보호활동 363명(23.0%), 재능나눔활동 313명(19.8%), 국제봉사활동 127명(8.0%) 순으로 참여.
- 진로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진로직업탐색활동으로 1580명 중 979명 (62.0%)이 참여하였으며 직업체험활동 828명(52.4%), 자기이해활동 546명(34.6%), 창업활동 188명(11.9%) 순으로 참여.
- 참여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진로직업탐색활동으로 1580명 중 1039명 (65.8%)이 참여하였으며 참여기구활동 191명(12.1%), 지역사회변화활동 183명(11.6%), 인권개선활동 112명(7.1%) 순으로 참여.

○ 전체 활동의 참여희망

- 전체 청소년 중 95.7%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 청소년들은 영역별 1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과 진로활동에는 2개 혹은 3개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수가 많았음.

○ 영역별 세부 활동의 참여희망

-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4개 활동 중 스포츠 활동이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야영활동(39.2%), 예술체험활동(38.6%), 직업체험활동(37.0%), 축제문화활동 (30.2%), 진로직업탐색활동(25.8%), 신체건강관리활동(24.3%), 성교육활동(24.1%) 도전활동 (20.3%) 재능나눔활동(20.2%) 순으로 나타남
- 참여희망이 가장 낮은 영역은 지역사회변화활동(4.8%)이었고 다음으로는 참여기구활동(6.5%), 지역간교류활동(6.7%), 중독예방활동(7.1%), 환경생태 탐사활동(7.7%), 인권개선활동(8.0%), 다문화이해활동(9.0%), 생활안전활동(9.3%)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희망활동은 남성의 경우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4개

- 활동 중 기술공학활동이 7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정보통신활동(75.3%), 스포츠활동(68.2%), 신체건강관리활동(60.5%), 중독예방활동(60.0%)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인권개선활동이 7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제봉사활동(71.7%), 재능나눔활동(71.5%), 전통 문화예술활동(67.8%), 예술체험활동(66.8%) 순으로 나타남
- 교급별에 참여희망 활동은 중학생의 경우 전체 34개 활동 중 우주과학활동이 5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해양과학활동(57.3%), 스포츠활동(54.4%), 환경생태탐사활동(54.0%), 생활안전활동(53.6%) 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 국제교류활동이 7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지역간교류활동(70.0%), 인권개선활동(66.4%), 국제봉사활동(63.8%), 다문화이해활동(62.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에 참여희망 활동은 전체 34개 활동 중 강서구에서는 기술공학활동(8.7%), 금정구에서는 생활안전활동(10.9%), 기장군에서는 남북교류활동(11.5%), 남구에서는 환경보호활동(10.3%), 동구에서는 국제봉사활동(13.1%), 동래구에서는 생활안전활동(10.1%)과 성교육활동(10.1%), 부산진구에서는 국제봉사활동(9.0%), 북구에서는 자치활동(14.5%), 사상구에서는 중독예방활동(8.5%), 사하구에서는 우주과학활동(11.2%), 서구에서는 인권개선활동(10.9%), 수영구에서는 정보통신활동(11.7%), 연제구에서는 국제교류활동(10.9%), 영도구에서는 참여기구활동(11.5%), 중구에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6.3%), 해운대구에서는 환경보호활동(12.2%) 이 가장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의 결정 요인

- 청소년활동의 정보는 주로 '학교'를 통해서 얻고 있었음(67.6%). 2위 인터넷검색 및 SNS (10.6%), 3위 친구 또는 선후배(8.7%), 4위 가족 (8.2%), 청소년지도사 (1.6%) 등의 순서를 보임.
-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주요 동기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29.7%). 다음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한 청소년이 23.2%였고, '나 자신을 위해' 13.1%, '주변의 권유' 9.4%,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6.6%,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5.7% 와 '보람 있게 시간보내기' 3.5%로 나타남.
- 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 '나 자신'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38.8%). '학교 및 학원 선생님' 27.6%, 부모님 13.6%, '또래집단(친구, 선후배)' 13.1%, 순으로 응답. '청소년기관의 지도자 선생님' 3.2%, '형제, 자매' 2.2% 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장소는 응답자 1563명 중 396명 (25.3%)이 '집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을 희망, 356명 (22.8%)이 '학교', 272명 (17.4%)이 '국외' 226명 (14.5%)이 '청소년기관', 219명 (14.0%)이 '야외', 62명 (4.0%)이 '공공기관 및 관공서'로 응답
-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전체 응답자 1553명 중 '학교 수업시간 중' 779명 (50.2%), '방학기간' 302명(19.4%), '주말 오전' 194명(12.5%), '주말 오후' 125명(8.0%), '방과 후' 124명(8.0%) 순으로 응답.

- 청소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1545명의 전체 응답자 중 619명(40.1%)가 '시간이 없어서, 323명(20.9%)가 '어떤 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168명(10.9%)가 '활동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26명(8.2%)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124명(8.0%)이 '공부에 방해'라는 응답.
- 청소년활동 참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 1551명 중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 839명 (54.1%)'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219명(14.1%)', '프로그램 의도, 190명(12.3%)', '일정 및 시간, 178명(11.5%)', '시설, 공간, 장비, 55명(3.5%)', '참가비, 36명(2.3%)', '지도자의 전문성, 20명(1.3%)', '지도자와의 관계, 14명(0.9%)'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활동 참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 1566명 중 '다양한 경험' 648명(41.4%), '진로나 적성을 발견' 248명(15.8%), '스트레스 해소' 220명(14.0%),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개발' 179명(11.4%),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121명(7.7%),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음' 89명(5.7%), '학교공부에 도움' 38명(2.4%) 순으로 응답함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652명(49.9%)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627명(48.0%)이 1년에 1~2번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 수련관은 759명(58.7%)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495명(38.3%)이 1년에 1~2번 이용, 유스호스텔은 860명(69.1%)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365명(29.3%)이 1년이 1~2번 이용한다고 응답, 청소년 문화의 집(85.1%), 청소년 특화시설(92.3%), 청소년 야영장(90.8%), 청소년활동진흥센터(87.4%),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89.3%)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청소년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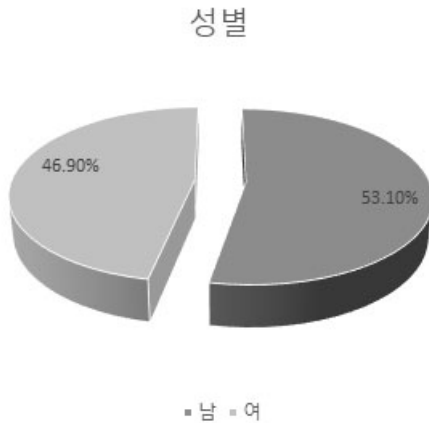
- 청소년역량지수는 개인 시민성은 87.5점(평균3.5/5점 만점)이 가장 높았으며, 협동성은 83점(평균 3.32점 / 5점), 관계형성은 81점(평균 3.24점/ 5점) 진로설계는 79.25점(평균 3.17점/5점)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청소년 역량은 성별, 학년, 학교성적, 참여한 활동의 개수,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의 개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참여한 활동의 개수와 진로역량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
- 다양한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이 많은 청소년들의 관계형성 역량, 협동 역량, 개인시민성 역량, 진로역량이 각각 높은 수준을 보임.

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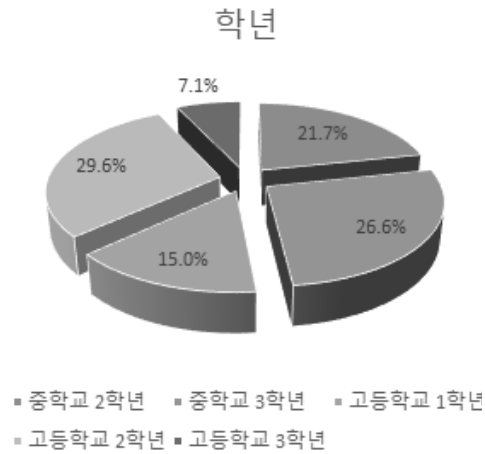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831	53.1
	여	735	46.9
	전체	1566	100.0
학년	중학교 2학년	340	21.7
	중학교 3학년	417	26.6
	고등학교 1학년	235	15.0
	고등학교 2학년	464	29.6
	고등학교 3학년	112	7.1
	전체	1568	100.0
학교유형 (고등학생)	일반계	618	76.1
	특성화	142	17.5
	특수목적고	52	6.4
	전체	812	100.0
지역	강서구	90	5.7
	금정구	101	6.4
	기장군	96	6.1
	남구	95	6.0
	동구	100	6.3
	동래구	96	6.1
	부산진구	95	6.0
	북구	139	8.8
	사상구	91	5.8
	사하구	102	6.5
	서구	100	6.3
	수영구	98	6.2
	연제구	91	5.8
	영도구	95	6.0
	중구	93	5.9
	해운대구	96	6.1
	전체	1578	100.0
성적	상위권	240	15.6
	중상위권	334	21.7
	보통	588	38.3
	중하위권	284	18.5
	하위권	90	5.9
	전체	1536	100.0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전체 1566명의 응답자 중 남학생 831명으로 53.1% 여학생 735명으로 46.9%의 응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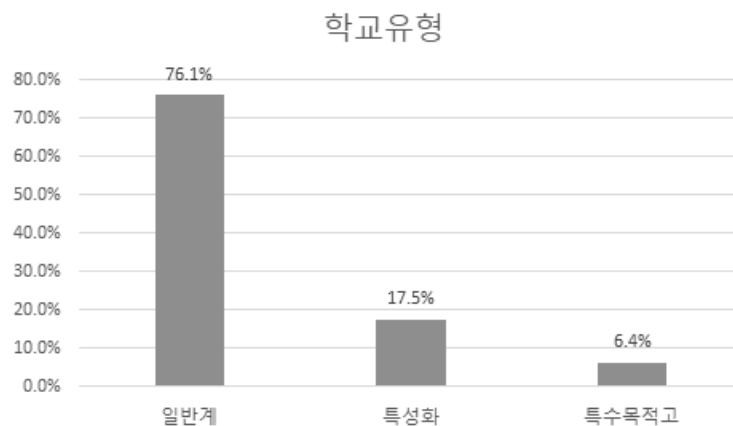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자의 성별구성



〈그림 2〉 연구대상자의 학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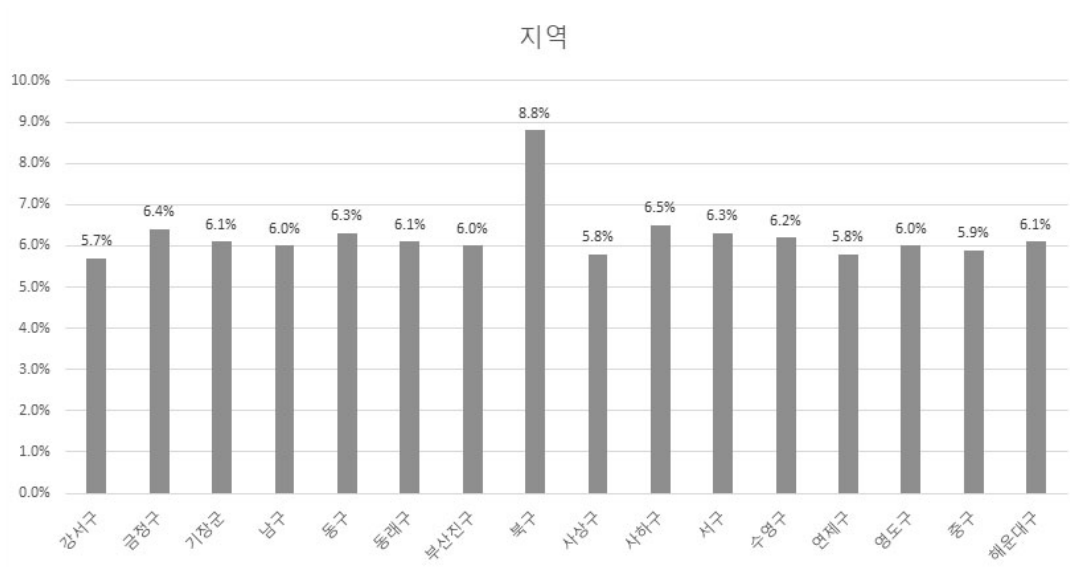
- 응답자의 학년은 전체 1568명 중 중학교 2학년 학생이 340명으로 21.7%,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17명으로 26.6%,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35명으로 15.0%,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464명으로 29.6%,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12명으로 7.1% 임
-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른 응답자는 전체 812명의 학생 중 일반계 학생이 618명으로 76.1%, 특성화 학생이 142명으로 17.5%, 특수목적고 학생이 52명으로 6.4% 임



〈그림 3〉 연구대상자의 학교유형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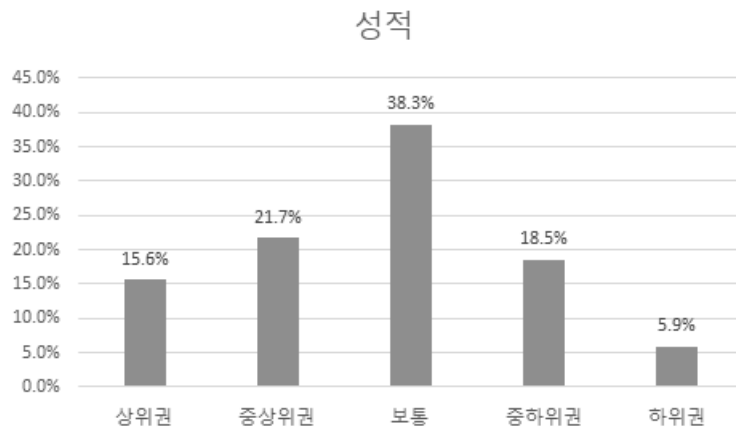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전체 1578명의 학생 중 강서구 학생이 90명으로 5.7%, 금정구 학생이 101명으로 6.4%, 기장군 학생이 96명으로 6.1%, 남구 학생이 95명으로 6.0%, 동구 학생이 100명으로 6.3%, 동래구 학생이 96명으로 6.1%, 부산진구 학생이 95명으로 6.0%, 북구 학생이 139명으로 8.8%, 사상구 학생

이 91명으로 5.8%, 사하구 학생이 102명으로 6.5%, 서구 학생이 100명으로 6.3%, 수영구 학생이 98명으로 6.2%, 연제구 학생이 91명으로 5.8%, 영도구 학생이 95명으로 6.0%, 중구 학생이 93명으로 5.9%, 해운대구 학생이 96명으로 6.1% 로 나타남



〈그림 4〉 연구대상자의 지역분포

- 성적별로는 전체 1536명 중 상위권 학생이 240명으로 15.6%, 중상위권 학생이 334명으로 21.7%, 보통 학생이 588명으로 38.3%, 중하위권 학생이 84명으로 5.5%, 하위권 학생이 90명으로 5.9%로 나타남



〈그림 5〉 연구대상자의 성적분포

2. 청소년활동 공동 지표

활동영역	세부 활동
건강증진활동 (개인과 집단의 안녕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건강관련 지식, 생활습관, 의식, 태도를 습득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관리활동 : 신체단련 비만, 질병 예방 등 스포츠 활동 :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중독 예방 활동 : 흡연, 음주, 약물,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예방/치료 정신건강 활동 : 자살예방이나 스트레스관리 등 생활안전 활동 : 응급처치요령, 재난대비 등 성교육 활동 : 성(性)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행동지침
과학정보활동 (과학, 정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과학 및 정보 활용 능력과 창의성 증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공학 활동 : 모형, 로봇, 각종 기계의 원리와 실제 우주과학 활동 :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탐구 생명과학 활동 : 세포증식·유전·진화·조절 등 생명/생물 탐구 해양과학 활동 : 해양생물탐구, 갯벌탐구 등 해양 현상 탐구 정보통신 활동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수집 및 활동
교류활동 (인적, 물질, 문화적, 사상적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간, 남북간, 국가간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 활동 : 다른 나라와의 인적, 물질, 문화적, 사상적 교류 남북교류 활동 :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지역간교류활동 : 국내 지역 간 청소년 교류
모험탐사활동 (환경감수성, 진취성, 도전의식 등을 함양하기 위해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생태탐사활동 : 환경 및 동·식물 조사 등 자연환경 탐사 야영 활동 : 캠핑과 같이 자연환경 속에서 숙식 해양수상 활동 : 래프팅, 스킨스쿠버와 같은 물에서 하는 활동 도전 활동 : 국토순례, 산악종주 등 자신의 목표달성 활동
문화예술활동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체험 활동 : 연극, 영화, 뮤지컬, 무용, 음악, 댄스 등 전통문화예술활동 : 사물놀이, 판소리, 국악 등 전통문화 이해 및 참여 축제문화 활동 : 문화축제에 참여 다문화이해활동 : 다양한 문화 체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
자원봉사활동 (이타성, 공동체 의식 등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나 타인을 돕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손돕기 활동 :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 재능나눔 활동 : 학습지도, 공연 등 재능기부 국제봉사 활동 :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 환경보호 활동 :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을 긍정적 변화
진로활동 (자기이해, 진로결정, 직업선택 역량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진로 및 직업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이해 활동 : 리더십, 의사소통증진훈련 등 자신을 이해 진로직업탐색활동 : 학과탐방, 진로검사 등 진로나 선호 직업 확인 직업체험 활동 : 현장이나 체험센터 등을 방문 후 직업 경험 창업 활동 : 참여자 혹은 지역사회 등의 이익을 창출할 목적
참여활동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각종 조직이나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구 활동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 자치 활동 : 학교에서 학생회, 동아리 등 활동 지역사회변화활동 : 헌혈캠페인, 벽화그리기 등 지역사회 개선 활동 인권개선 활동 : 청소년인권조사, 이주노동자인권보호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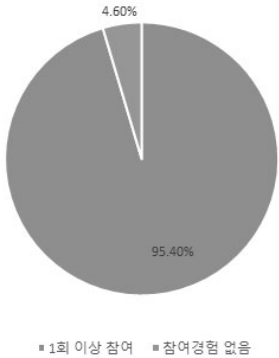
3. 청소년 참여실태

3-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전체)

-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을 분석한 결과, 총 1580명 중 1507명(95.4%)의 청소년들이 1회 이상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건강증진활동으로 1424명(90.1%)이 참여하였으며, 진로활동(70.3%), 문화예술활동(69.5%), 참여활동(67.8%), 과학정보활동(53.0%) 순으로 참여

〈표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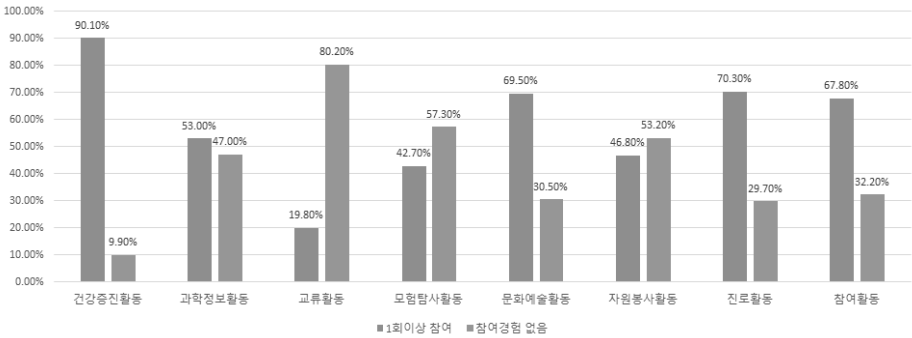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1회 이상 참여	1507	95.4%
참여경험 없음	73	4.6%
전체	1580	100%



〈그림 6〉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표 2〉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참여경험	1회이상 참여	퍼센트
건강증진활동	1424	90.1%
과학정보활동	838	53.0%
교류활동	313	19.8%
모험탐사활동	675	42.7%
문화예술활동	1098	69.5%
자원봉사활동	739	46.8%
진로활동	1110	70.3%
참여활동	1072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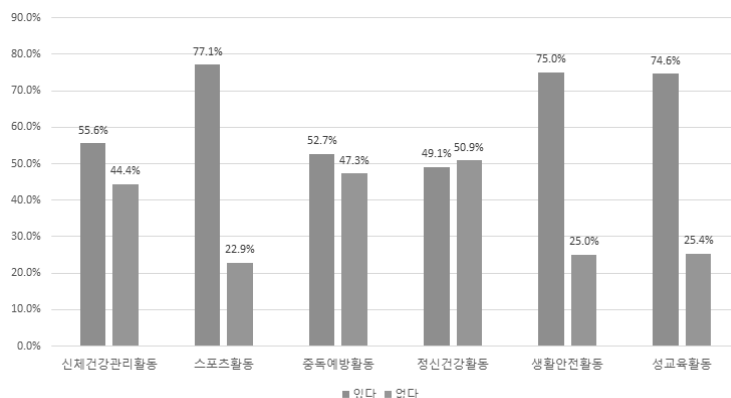


〈그림 7〉 청소년활동별 참여경험

3-2 청소년 활동 영역 세부활동 별 참여경험 순위(참여횟수)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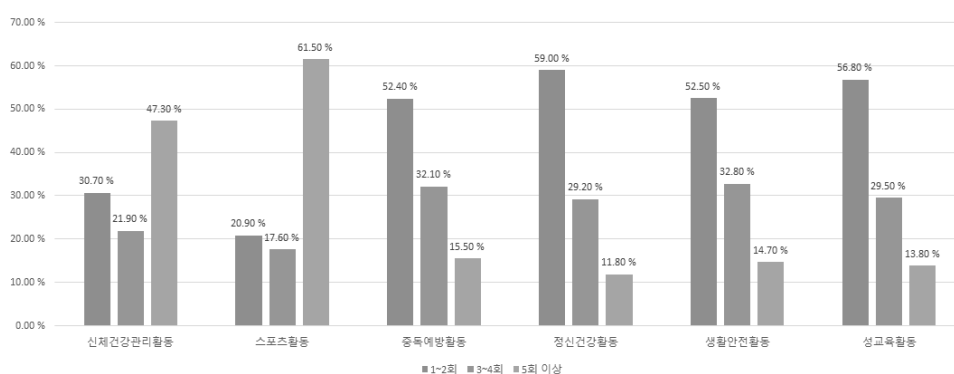
3-2-1 건강증진활동

- 건강증진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스포츠활동으로 1218명(77.1%)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안전활동 1185명(75%), 성교육활동 1179명(74.6%), 신체건강관리활동 878명(55.6%), 중독예방활동(52.7%), 정신건강활동(49.1%) 순으로 참여.



〈그림 8〉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신체건강관리 활동의 경우 전체 876명 중 414명(47.3%)이 5회 이상 참여, 스포츠 활동은 전체 1211명 중 745명(61.5%)이 5회 이상 참여, 중독예방활동은 전체 828명 중 434명(52.4%)이 1~2회 참여, 정신건강활동은 전체 771명 중 455명(59.0%)이 1~2회 참여, 생활안전활동은 전체 1173명 중 616명(52.5%)이 1~2회 참여, 성교육 활동은 전체 1170명 중 664명(56.8%)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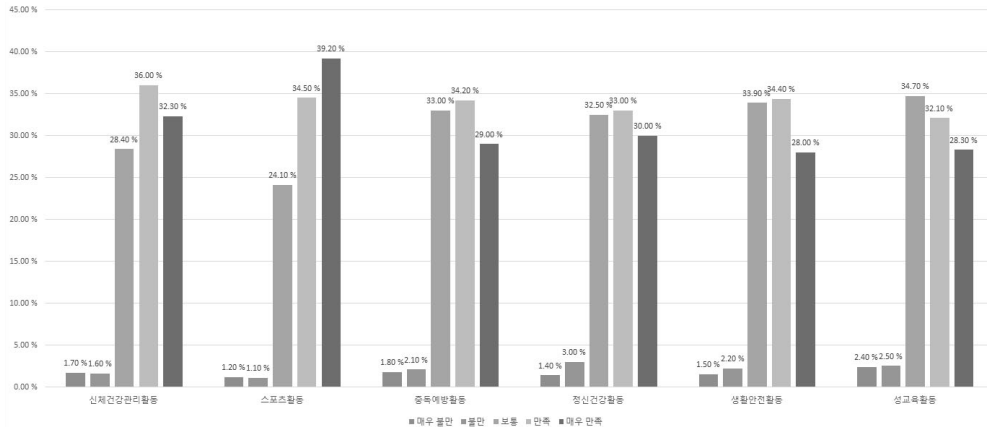


〈그림 9〉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 청소년들이 참여한 건강증진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3.90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78.00점의 수준을 보임. 6개 활동영역 모두 7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건강증진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스포츠활동(81.8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체건강

관리활동이 79.2점, 정신건강활동이 77.4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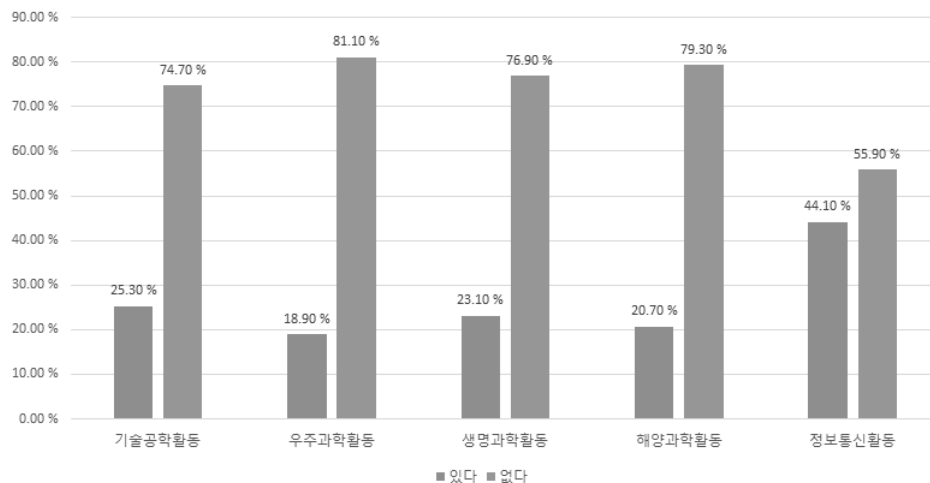
-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성교육활동(76.2점)이었고, 다음으로는 생활안전활동(77.0점), 중독예방활동(77.2점) 순.
-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스포츠활동과 성교육활동의 차이는 약 4.8점으로 만족도 측면에서 영역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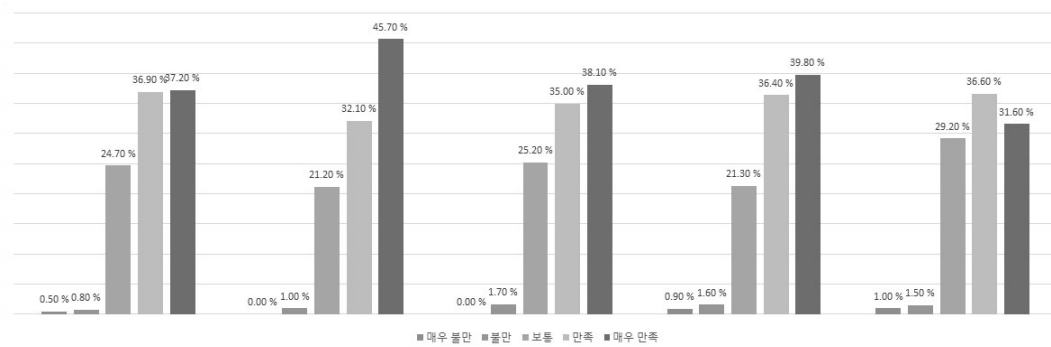
〈그림 10〉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3-2-2 과학정보활동

- 과학정보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정보통신활동으로 1580명 중 697명 (44.1%)이 참여하였으며 기술공학활동 400명(25.3%), 생명과학활동 365명(23.1%), 해양과학활동 327명(20.7%), 우주과학활동(18.9%) 순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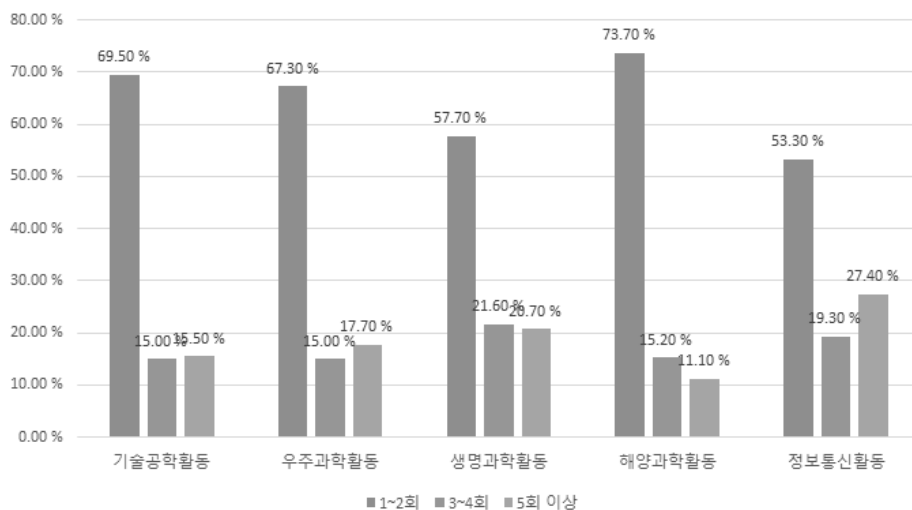


〈그림 11〉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그림 13〉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기술공학활동의 경우 전체 394명 중 274명(69.5%)이 1~2회 참여, 우주과학활동은 전체 294명 중 198명(67.3%)이 1~2회 참여, 생명과학활동은 전체 357명 중 206명(57.7%)이 1~2회 참여, 해양과학활동은 전체 323명 중 238명(73.7%)이 1~2회 참여, 정보통신활동은 전체 689명 중 367명(53.3%)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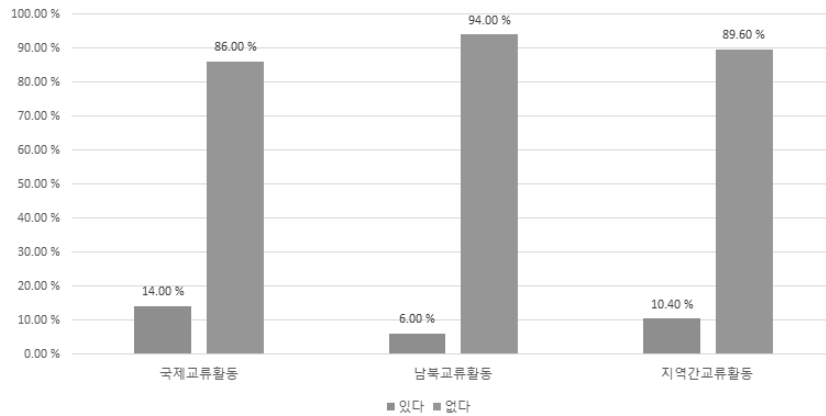


〈그림 12〉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 청소년들이 참여한 과학정보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4.1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82.00점의 수준을 보임. 5개 활동영역 모두 7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과학정보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우주과학활동(84.51점)이었으며, 다음으로 해양과학활동이 82.51점, 생명과학활동이 81.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정보통신활동(79.26점)이었고, 다음으로는 기술공학활동(81.88점) 순.
-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우주과학활동과 정보통신활동의 차이는 5.25점으로 만족도 측면에서 영역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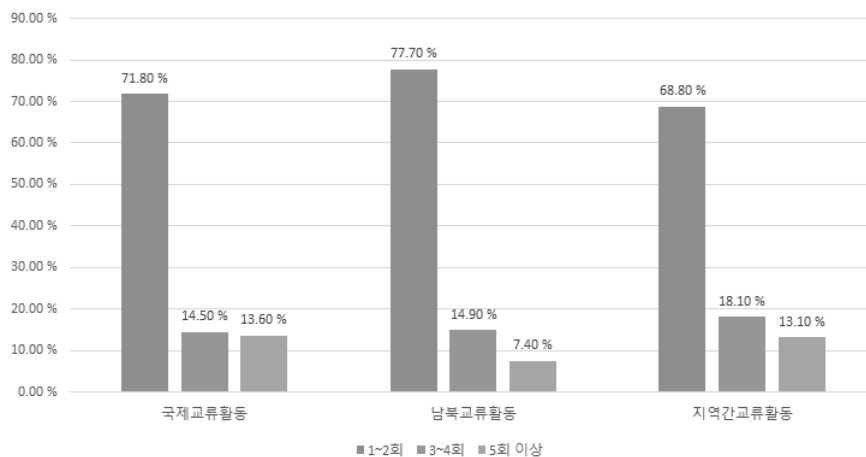
3-2-3 교류활동

- 교류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국제교류활동으로 1580명 중 221명 (14.0%)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간교류활동 165명(10.4%), 남북교류활동 95명(6.0%) 순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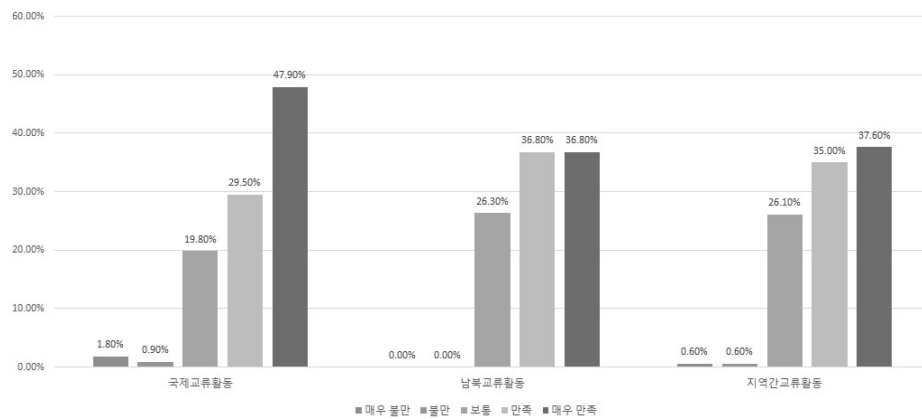
〈그림 14〉 교류활동 참여경험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국제교류활동의 경우 전체 220명 중 158명(71.8%)이 1~2회 참여, 남북교류활동은 전체 94명 중 73명(77.7%)이 1~2회 참여, 지역간교류활동은 전체 160명 중 110명 (68.8%)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그림 15〉 교류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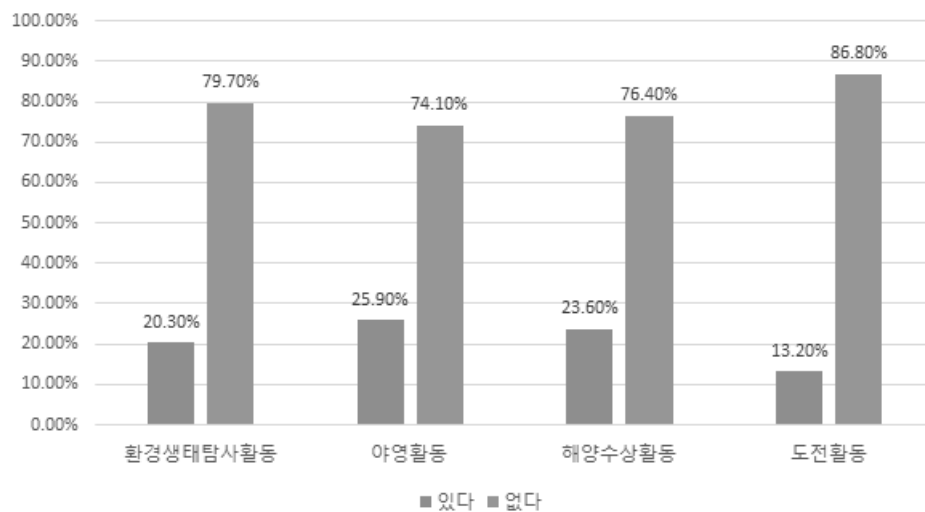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참여한 교류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4.13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82.60점의 수준을 보임. 3개 활동영역 모두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교류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국제교류활동(84.15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남북교류활동이 82.11점, 지역간교류활동이 81.66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16〉 교류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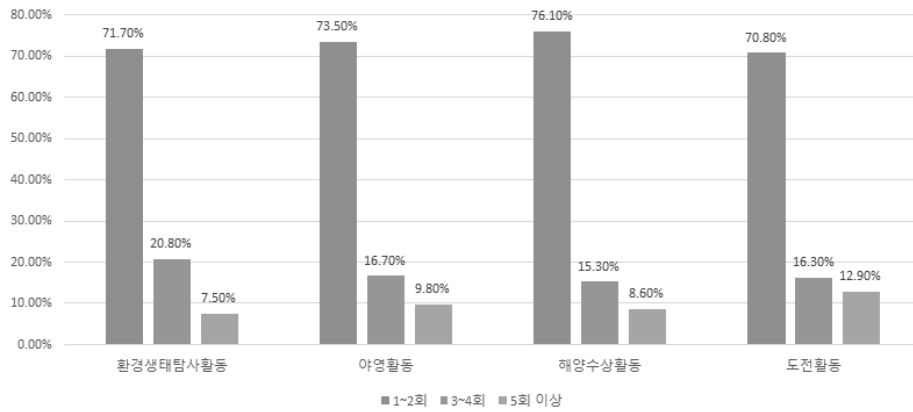
3-2-4 모험탐사활동

- 모험탐사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야영활동으로 1580명 중 409명 (25.9%)이 참여하였으며 해양수상활동 373명(23.6%), 환경생태탐사활동 321명(20.3%), 도전활동 209명 (13.2%) 순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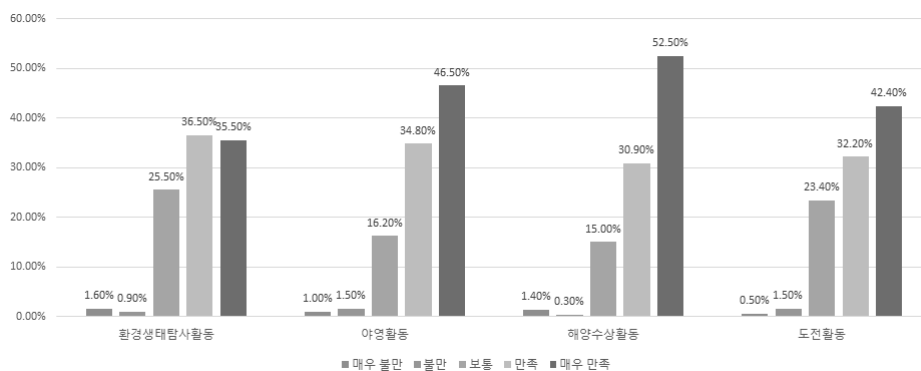
〈그림 17〉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환경생태탐사활동의 경우 전체 318명 중 228명(71.7%)이 1~2회 참여, 야영활동은 전체 407명 중 299명(73.5%)이 1~2회 참여, 해양수상활동은 전체 372명 중 283명(76.1%)이 1~2회 참여, 도전활동은 전체 209명 중 148명(70.8%)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그림 18〉 모험탐사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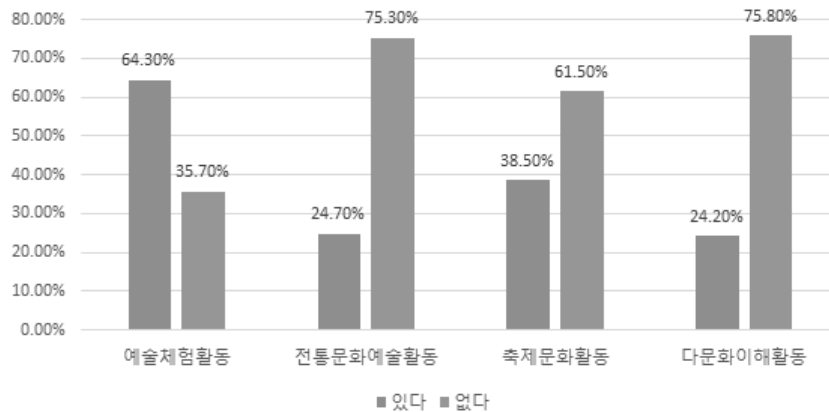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참여한 모험탐사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4.19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83.76점의 수준을 보임. 4개 활동영역 모두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교류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해양수상활동(86.56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야영활동이 84.88점, 도전활동이 82.93점, 환경생태탐사활동이 80.69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9〉 모험탐사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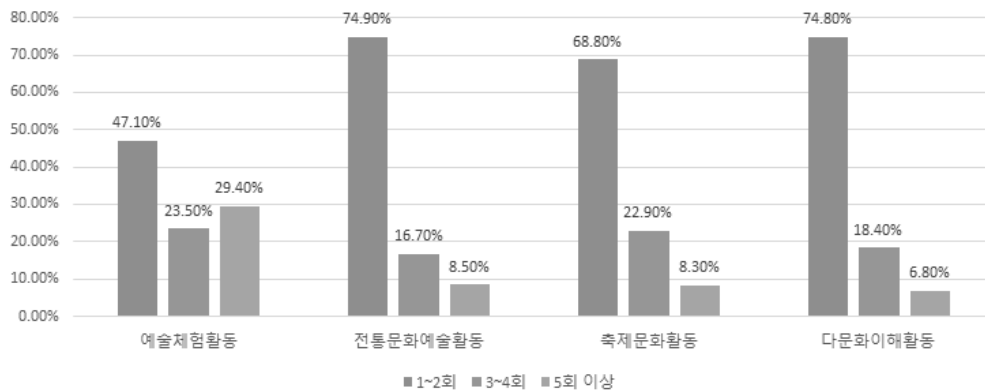
3-2-5 문화예술활동

- 문화예술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예술체험활동으로 1580명 중 1016명 (64.3%)이 참여하였으며 축제문화활동 609명(38.5%), 전통문화예술활동 391명(24.7%), 다문화이해활동 383명(24.2%) 순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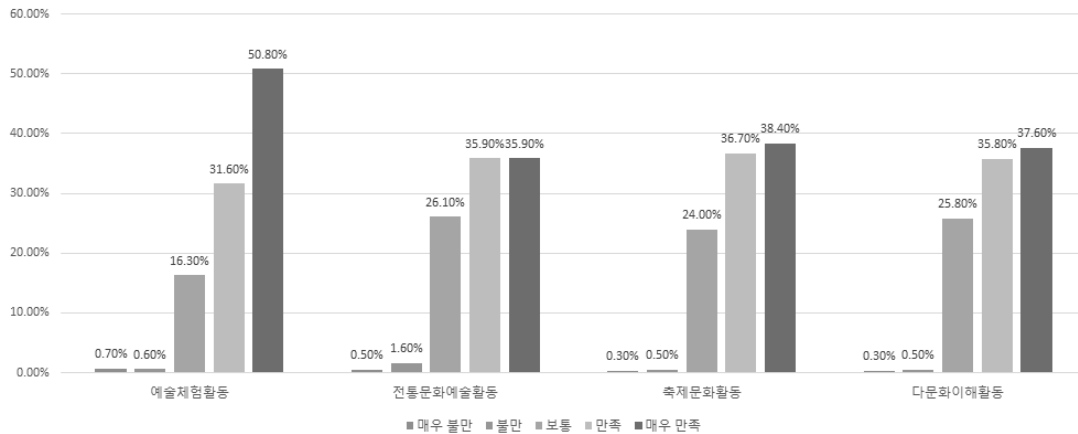
〈그림 20〉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예술체험활동의 경우 전체 1006명 중 474명(47.1%)이 1~2회 참여, 전통문화예술활동은 전체 390명 중 292명(74.9%)이 1~2회 참여, 축제문화활동은 전체 603명 중 415명 (68.8%)이 1~2회 참여, 다문화이해활동은 전체 381명 중 285명(74.8%)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그림 21〉 문화예술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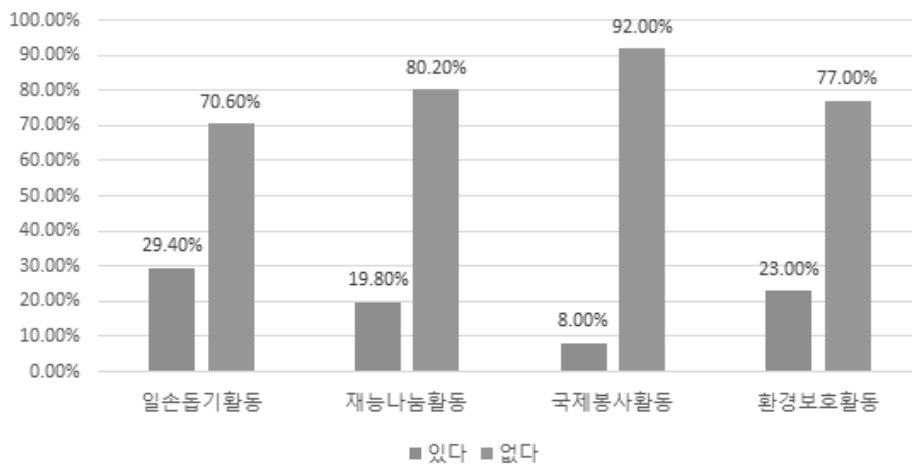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의 문화예술활동만족도는 평균 4.15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83.00점의 수준을 보임. 4개 활동영역 모두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예술체험활동(86.23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축제문화활동이 82.48점, 다문화이해활동이 82.00점, 전통문화예술활동이 81.03점 순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22〉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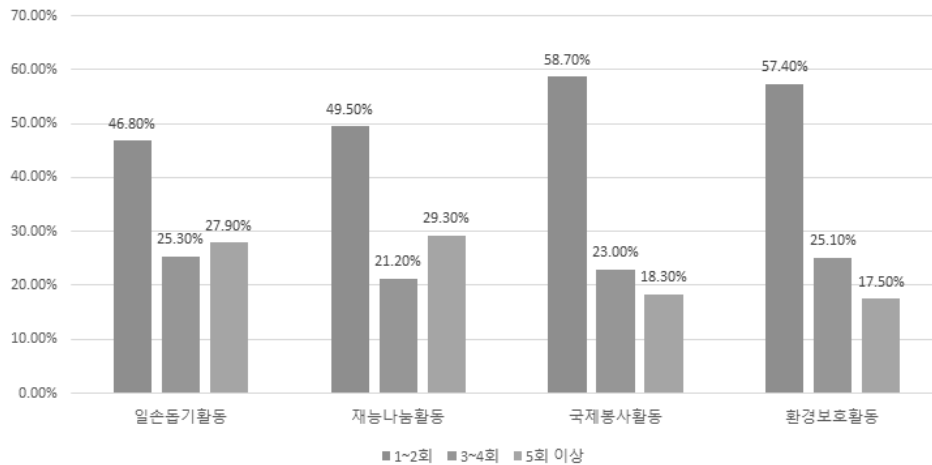
3-2-6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일손돕기활동으로 1579명 중 464명 (29.4%)이 참여하였으며 환경보호활동 363명(23.0%), 재능나눔활동 313명(19.8%), 국제봉사활동 127명(8.0%) 순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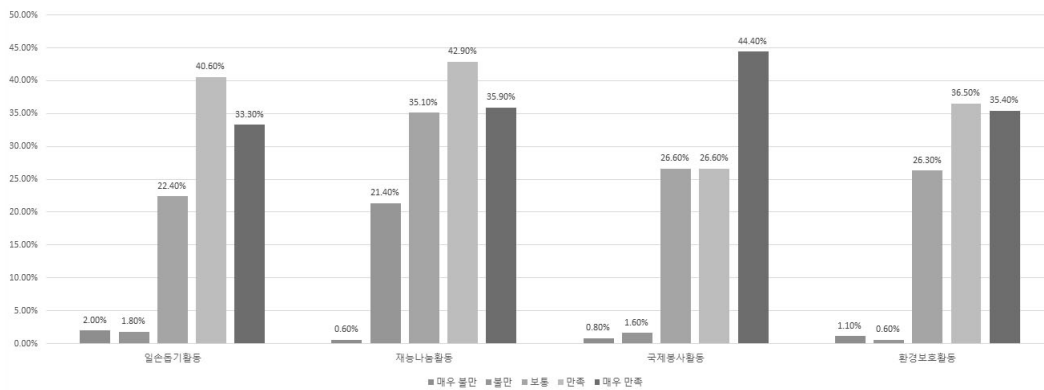
〈그림 23〉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일손돕기활동의 경우 전체 459명 중 215명(46.8%)이 1~2회 참여, 재능나눔활동은 전체 311명 중 154명(49.5%)이 1~2회 참여, 국제봉사활동은 전체 126명 중 74명(58.7%)이 1~2회 참여, 환경보호활동은 전체 359명 중 206명(57.4%)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그림 24〉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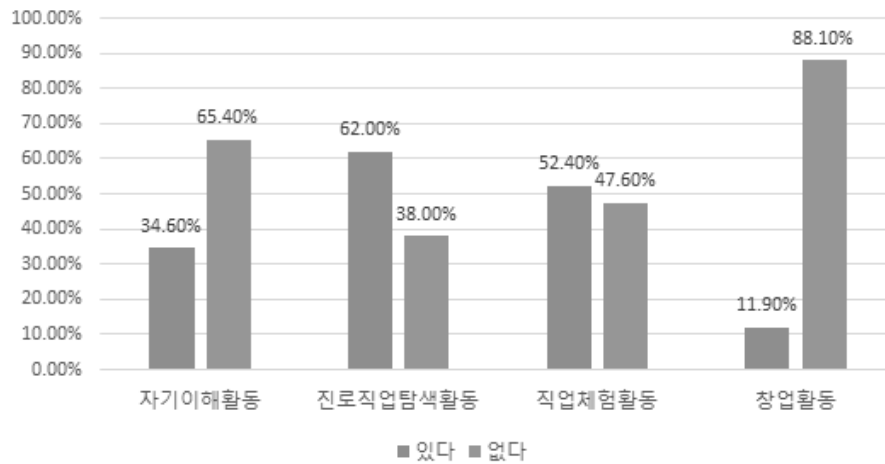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4.09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81.80점의 수준을 보임. 4개 활동영역 모두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재능나눔활동(83.90점)이었으며, 다음으로 국제봉사활동이 82.42점, 환경보호활동이 80.91점, 일손돕기활동이 80.31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25〉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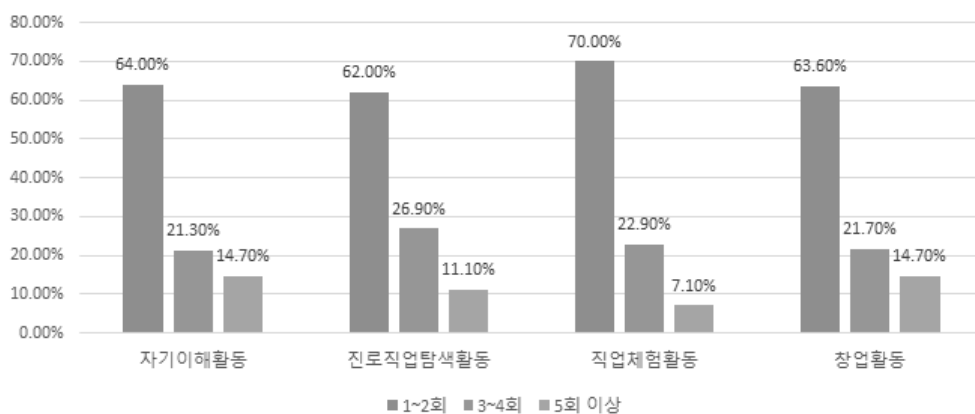
3-2-7 진로활동

- 진로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진로직업탐색활동으로 1580명 중 979명 (62.0%)이 참여하였으며 직업체험활동 828명(52.4%), 자기이해활동 546명(34.6%), 창업활동 188명(11.9%) 순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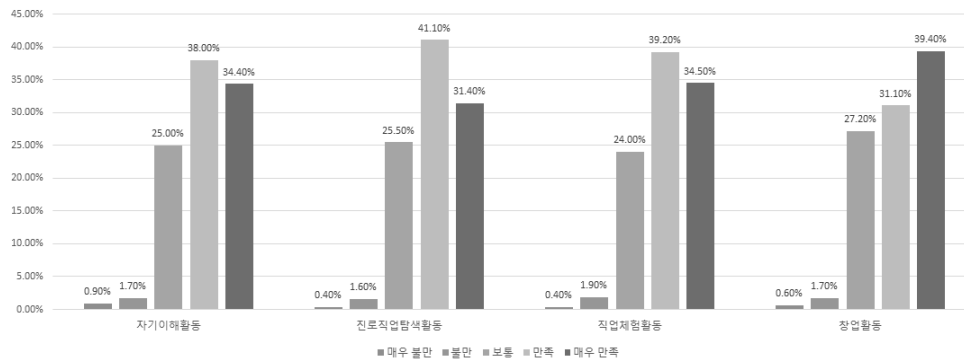
〈그림 26〉 진로활동 참여경험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자기이해활동의 경우 전체 539명 중 345명(64.0%)이 1~2회 참여, 진로직업탐색활동은 전체 971명 중 602명(62%)이 1~2회 참여, 직업체험활동은 전체 818명 중 573명(70.0%)이 1~2회 참여, 창업활동은 전체 184명 중 117명(63.6%)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그림 27〉 진로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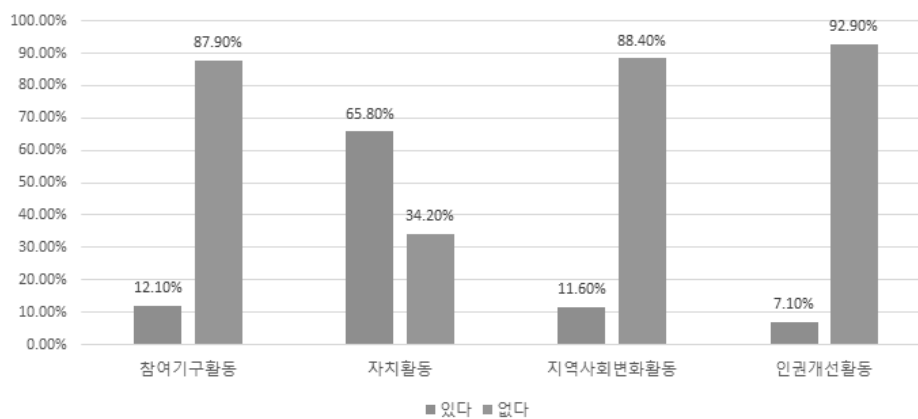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참여한 진로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4.04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80.88점의 수준을 보임. 4개 활동영역 모두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진로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창업활동(81.44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업체험활동이 81.13점, 자기이해활동이 80.64점, 진로직업탐색활동이 80.30점 순으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28〉 진로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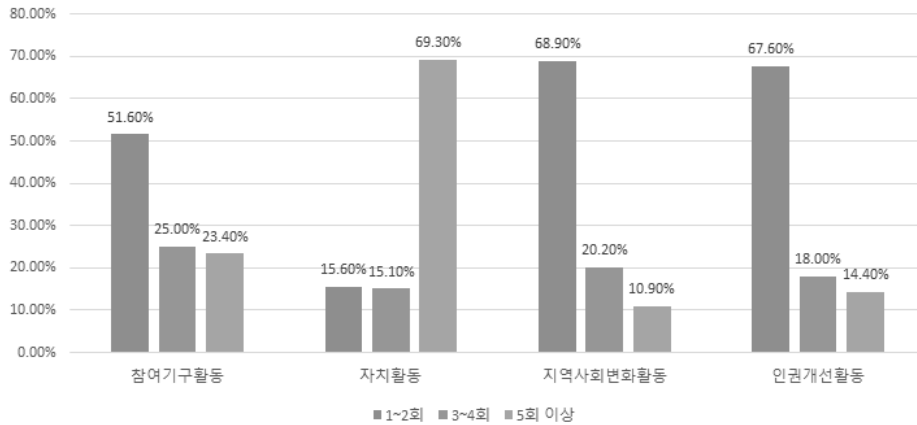
3-2-8 참여활동자치

- 참여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진로직업탐색활동으로 1580명 중 1039명 (65.8%)이 참여하였으며 참여기구활동 191명(12.1%), 지역사회변화활동 183명(11.6%), 인권개선활동 112명 (7.1%) 순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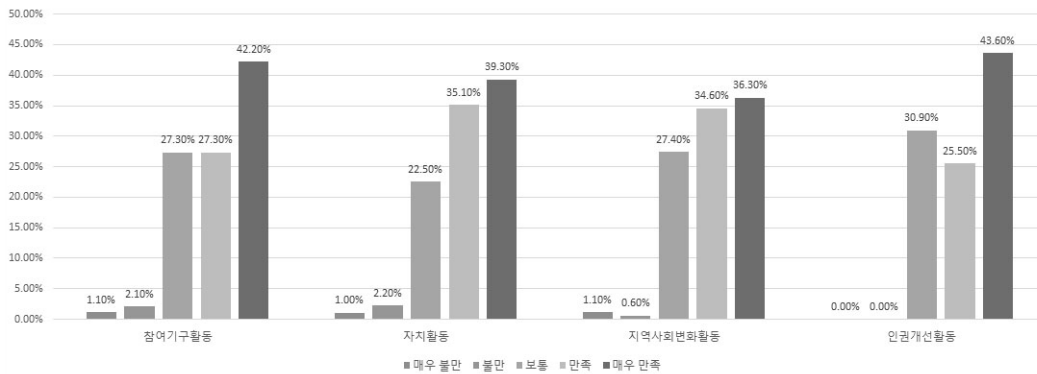
〈그림 29〉 참여활동 참여경험

- 1년간 참여횟수 분석결과는 참여기구활동의 경우 전체 188명 중 97명(51.6%)이 1~2회 참여, 자치활동은 전체 1031명 중 714명(69.3%)이 5회 이상 참여, 지역사회변화활동은 전체 183명 중 126명(68.9%)이 1~2회 참여, 인권개선활동은 전체 111명 중 75명(67.6%)이 1~2회 참여 한다고 응답.



〈그림 30〉 참여활동 참여횟수

- 청소년들이 참여한 진로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4.09점(5점 만점)이며,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81.71점의 수준을 보임. 4개 활동영역 모두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진로활동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인권개선활동(82.55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자치활동이 81.89점, 참여기구활동이 81.50점, 지역사회변화활동이 80.89점 순으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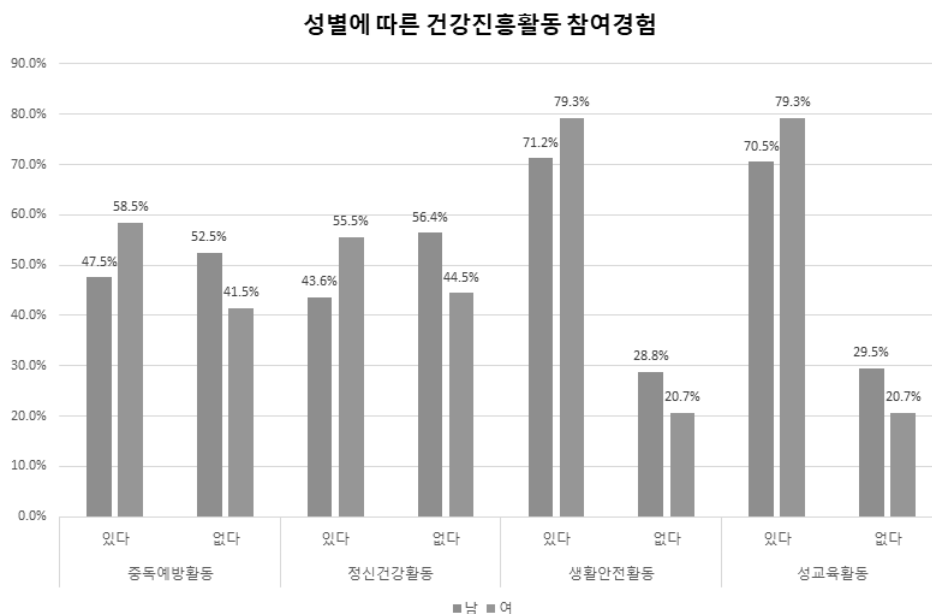
〈그림 31〉 참여활동 만족도

3-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비교 (성별/ 학교성적/ 교급/지역)

3-3-1 건강증진활동

- 건강증진활동에 있어서는 활동 중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중독예방 활동($\chi^2=18.830$, $p<.001$)과 생활안전활동($\chi^2=13.593$, $p<.001$), 정신건강활동($\chi^2=22.278$, $p<.001$), 성교육활동($\chi^2=15.959$, $p<.001$)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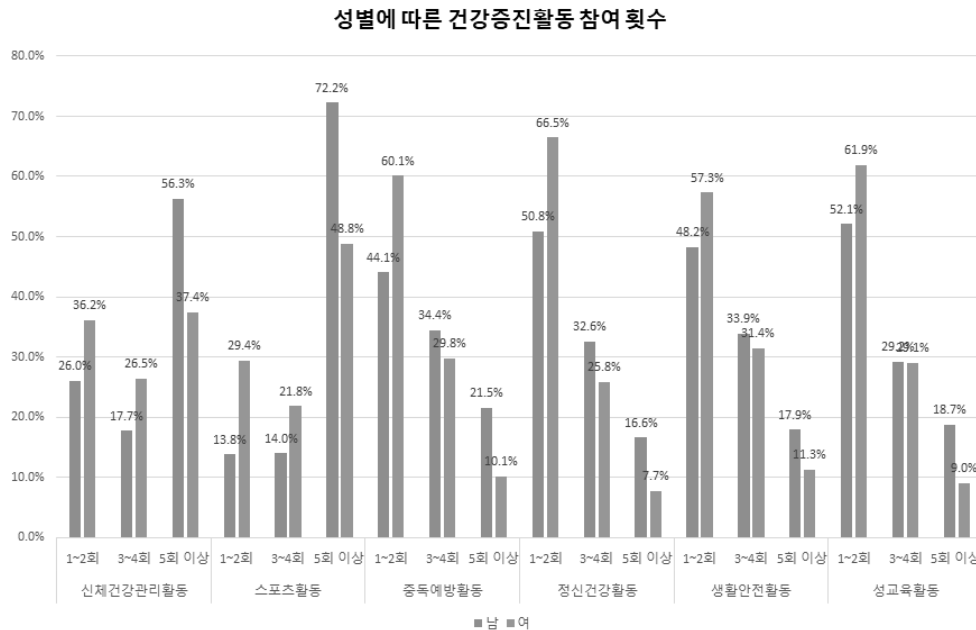
-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신체건강관리활동($\chi^2=31.393$, $p<.001$), 중독예방활동($\chi^2=28.597$, $p<.001$), 생활안전활동($\chi^2=13.765$, $p<.01$), 스포츠활동($\chi^2=71.531$, $p<.001$), 정신건강활동($\chi^2=23.606$, $p<.001$), 성교육활동($\chi^2=24.755$, $p<.001$)이 성별차이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는 신체건강관리활동에 있어서 $t=6.076$, $p<.001$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독 예방활동에 있어서 참여경험은 여성(58.5%)의 참여 비율이 남성(4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안전활동에 있어 참여경험은 여성(79.3%)의 참여 비율이 남성(72.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활동에 있어서 참여경험은 여성(55.5%)의 참여 비율이 남성(4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교육활동에 있어서 참여경험은 여성(79.3%)의 참여 비율이 남성(7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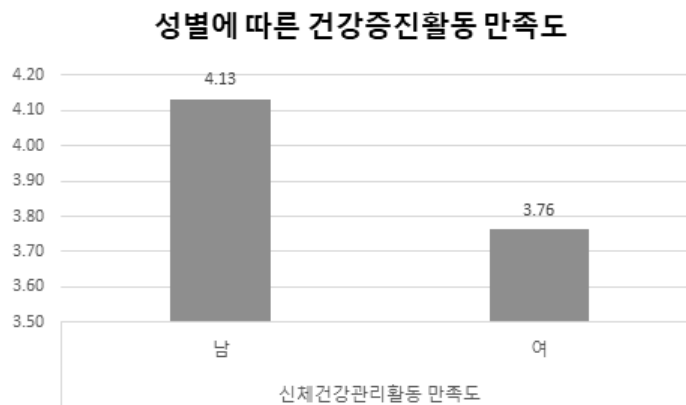
- 신체건강관리 활동에 있어서 참여횟수는 '5회 이상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 여성(37.4%), 남성(56.3%)으로 남성의 참여횟수가 높게 응답. 1~2회는 여성(36.2%), 남성(26.0%), 3~4회 여성(26.5%), 남성(17.7%)로 여성이 더 많은 참여 횟수를 보임
- 중독예방활동에 있어서 1~2회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여성(60.1%), 남성(44.1%)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 3~4회는 여성(29.8%), 남성(34.4%), 5회이상 참여는 여성(10.1%), 남성(21.5%)로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
- 생활안전활동에 있어서 1~2회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여성(57.3%), 남성(48.2%)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 3~4회는 여성(31.4%), 남성(33.9%), 5회이상 참여는 여성(11.3%), 남성(17.9%)로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
-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참여횟수는 '5회 이상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 여성(48.8%), 남성(72.2%)으로 남성의 참여횟수가 높게 응답. 1~2회는 여성(29.4%), 남성(13.8%), 3~4회 여성(21.8%), 남성(14.0%)로 여성이 더 많은 참여 횟수를 보임

- 정신건강활동에 있어서 참여횟수는 1~2회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여성(66.5%), 남성(50.8%)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 3~4회는 여성(25.8%), 남성(32.6%), 5회이상 참여는 여성(7.7%), 남성(16.6%)로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
- 성교육활동에 있어서 참여횟수는 1~2회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여성(61.9%), 남성(52.1%)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 3~4회는 여성(29.1%), 남성(29.2%), 5회이상 참여는 여성(9.0%), 남성(18.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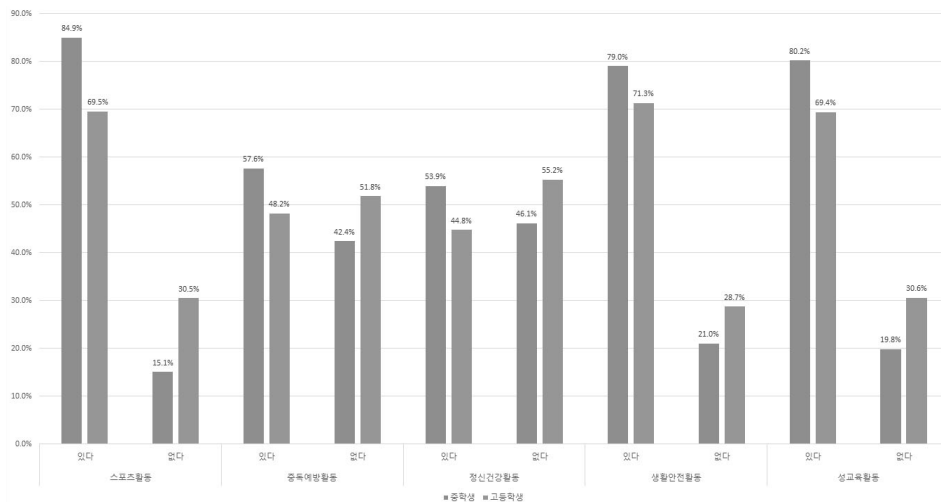
〈그림 33〉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 신체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남녀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t=6.076$, $p<.001$ 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평균 만족도 4.13, 여자 3.76으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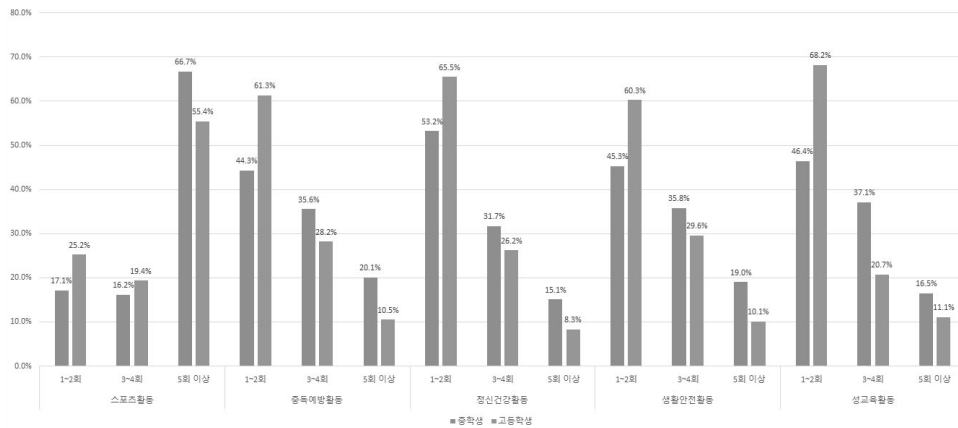
〈그림 34〉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 건강증진활동에 있어서 교급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스포츠활동($\chi^2=52.373$, $p<.001$), 중독예방 활동($\chi^2=13.832$, $p<.001$)과 생활안전활동($\chi^2=12.465$, $p<.001$), 정신건강활동($\chi^2=13.080$, $p<.001$), 성교육활동($\chi^2=23.954$, $p<.0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스포츠활동은 중학생 84.9%, 고등학생 69.5%, 중독예방활동은 중학생 57.6%, 고등학생은 48.2%, 정신건강활동은 중학생 53.9%, 고등학생 44.8%, 생활안전활동은 중학생 79.0%, 고등학생은 71.3%, 성교육활동은 중학생 80.2%, 고등학생 69.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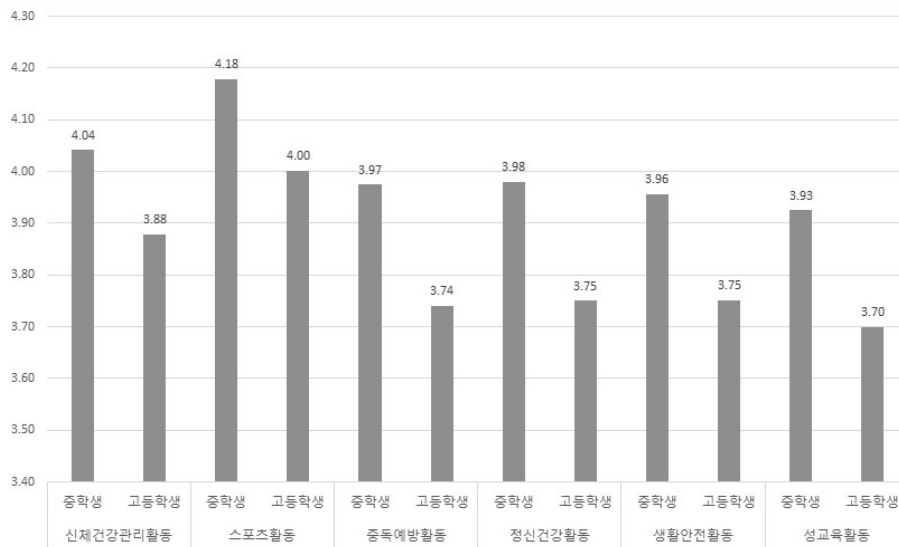
〈그림 35〉 교급별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스포츠활동($\chi^2=17.337$, $p<.001$), 중독예방 활동($\chi^2=28.818$, $p<.001$)과 생활안전활동($\chi^2=31.532$, $p<.001$), 정신건강활동($\chi^2=14.255$, $p<.01$), 성교육활동($\chi^2=56.949$, $p<.001$)으로 교급별 차이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활동에 있어서는 5회 이상 참여가 응답율이 높았으며 중학생 66.7%, 고등학생 55.4%로 나타남. 1~2회는 중학생 17.1%, 고등학생 25.2%, 3~4회는 중학생 16.2%, 고등학생 19.4%로 나타남
- 중독예방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44.3%, 고등학생 61.3%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35.6%, 고등학생 28.2%, 5회 이상은 중학생 20.1%, 고등학생 10.5%로 나타남
- 정신건강활동은 1~2회 중학생 53.2%, 고등학생 65.5%, 3~4회는 중학생 31.7%, 고등학생 26.2%, 5회 이상은 중학생 15.1%, 고등학생 8.35%로 나타남
- 생활안전활동은 1~2회 중학생 45.3%, 고등학생 60.3%, 3~4회는 중학생 35.8%, 고등학생 29.6%, 5회 이상은 중학생 19.0%, 고등학생 10.1%로 나타남
- 성교육활동은 1~2회 중학생 46.4%, 고등학생 68.2%, 3~4회는 중학생 37.1%, 고등학생 20.7%, 5회 이상은 중학생 16.5%, 고등학생 1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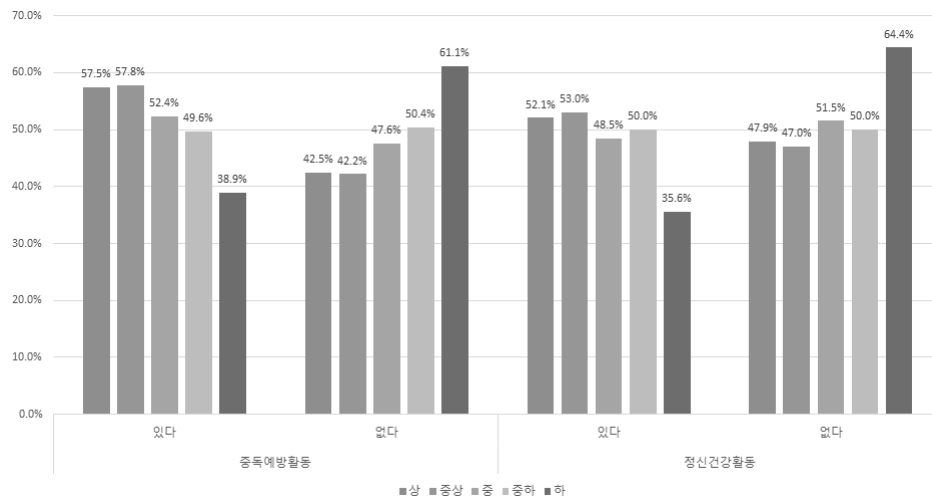
〈그림 36〉 교급별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 만족도는 신체건강관리활동($t=2.657$, $p<.01$), 스포츠활동($t=2.657$, $p<.001$), 중독예방 활동($t=3.497$, $p<.001$)과 생활안전활동($t=3.641$, $p<.001$), 정신건강활동($t=3.486$, $p<.01$), 성교육활동($t=3.650$, $p<.00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건강관리 활동은 중학생 평균 4.04, 고등학생 3.88, 스포츠활동은 중학생 평균 4.18, 고등학생 4.00, 중독예방활동은 중학생 평균 3.97, 고등학생 3.74, 정신건강활동은 중학생 평균 3.98, 고등학생 3.75, 생활안전활동은 중학생 평균 3.96, 고등학생 3.75, 성교육활동은 중학생 평균 3.93, 고등학생 3.70 으로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만족도가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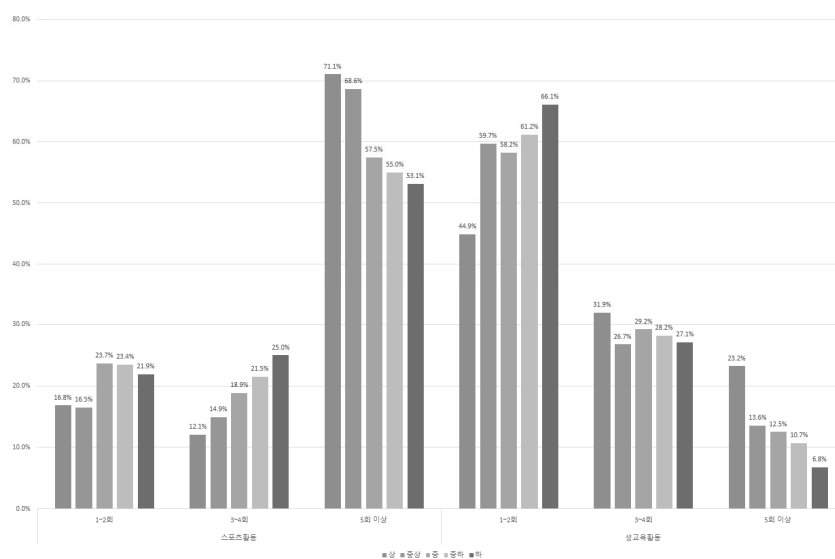
〈그림 37〉 교급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 건강증진활동에 있어서 성적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중독예방활동($\chi^2=13.586$, $p<.01$), 정신건강 활동($\chi^2=9.550$,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중독예방활동은 성적이 상(57.5%), 중상(57.8%), 중(52.4%), 중하(49.6%), 하(38.9%), 정신건강활동은 성적이 상(52.1%), 중상(53.0%), 중(48.5%), 중하(50.0%), 하(35.6%)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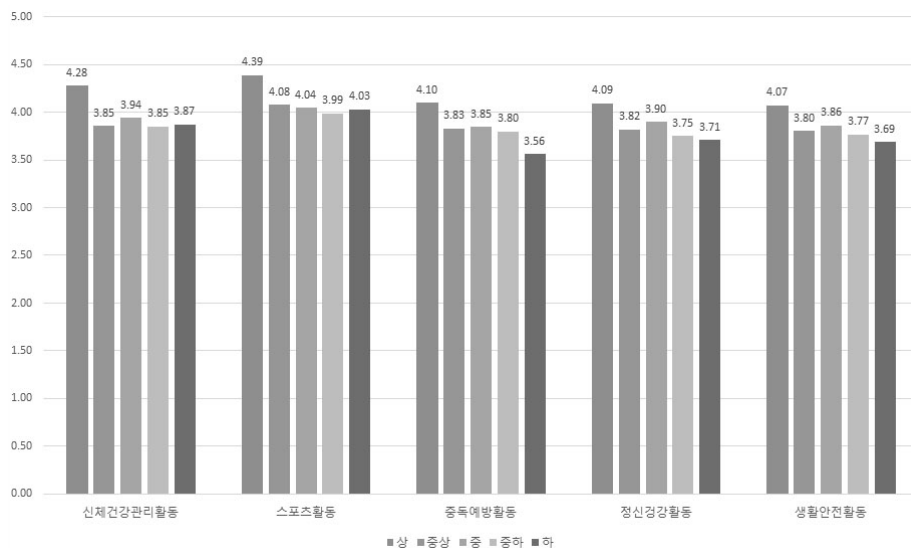
〈그림 38〉 성적별 건강증진활동 참여경험

- 건강증진활동 중 성적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스포츠활동($\chi^2=13.586$, $p<.01$)과 성교육활동($\chi^2=9.550$,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스포츠활동에 있어서는 5회이상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이 상(71.1%), 중상(68.6%), 중(57.5%), 중하(55.0%), 하(53.1%)로 나타남. - 1~2회는 성적이 상(16.8%), 중상(16.5%), 중(23.7%), 중하(23.4%), 하(21.9%), 3~4회는 성적이 상(12.1%), 중상(14.9%), 중(18.9%), 중하(21.5%), 하(25.0%)로 나타남.
- 성교육활동에 있어서는 1~2회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이 상(44.9%), 중상(59.7%), 중(58.2%), 중하(61.2%), 하(66.1%)로 나타남. 3~4회는 성적이 상(31.9%), 중상(26.7%), 중(29.2%), 중하(28.2%), 하(27.1%), 5회 이상은 성적이 상(23.2%), 중상(13.6%), 중(12.5%), 중하(10.7%), 하(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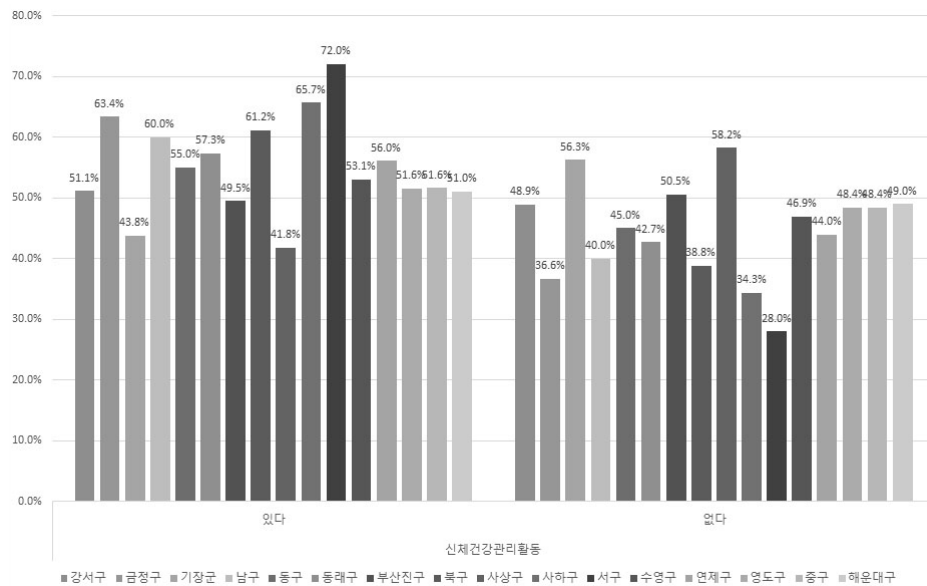
〈그림 39〉 성적별 건강증진활동 참여횟수

- 성적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의 경우 신체건강관리활동($F=5.743$, $p<.001$), 스포츠활동($F=6.615$, $p<.001$), 중독예방활동($F=3.364$, $p<.01$), 정신건강활동($F=2.773$, $p<.05$), 생활안전활동($F=3.874$,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신체건강관리활동의 경우 성적이 '상'인 학생은 평균 4.28, '중상'(평균 3.85), 중(평균 3.94), 중하(평균 3.85), 하(평균 3.87)로 나타남.
- 스포츠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39), '중상'(평균 4.08), 중(평균 4.04), 중하(평균 3.99), 하(평균 4.03)로 나타남.
- 중독예방활동은 성적 '상'(평균 4.10), '중상'(평균 3.83), 중(평균 3.85), 중하(평균 3.80), 하(평균 3.56)로 나타남.
- 정신건강활동은 성적 '상'(평균 4.09), '중상'(평균 3.82), 중(평균 3.90), 중하(평균 3.75), 하(평균 3.71)로 나타남.
- 생활안전활동은 성적 '상'(평균 4.07), '중상'(평균 3.80), 중(평균 3.86), 중하(평균 3.77), 하(평균 3.6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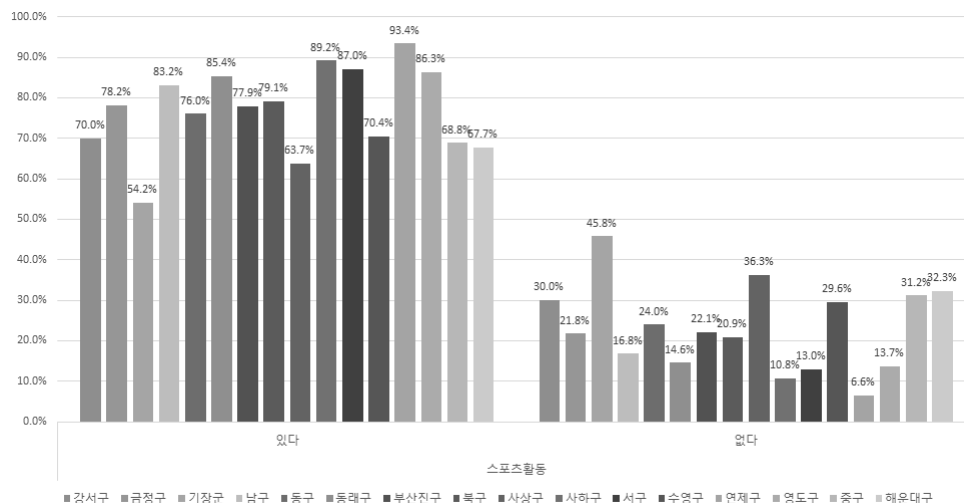
〈그림 40〉 성적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 지역별 건강증진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신체건강관리활동($\chi^2=37.162$, $p<.01$), 스포츠활동($\chi^2=89.695$, $p<.001$)과 중독예방활동($\chi^2=51.158$, $p<.001$), 정신건강활동($\chi^2=62.718$, $p<.001$), 생활안전활동($\chi^2=69.439$, $p<.001$), 성교육활동($\chi^2=82.657$,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신체건강관리활동은 서구(72.0%), 사하구(65.7%), 금정구(63.4%)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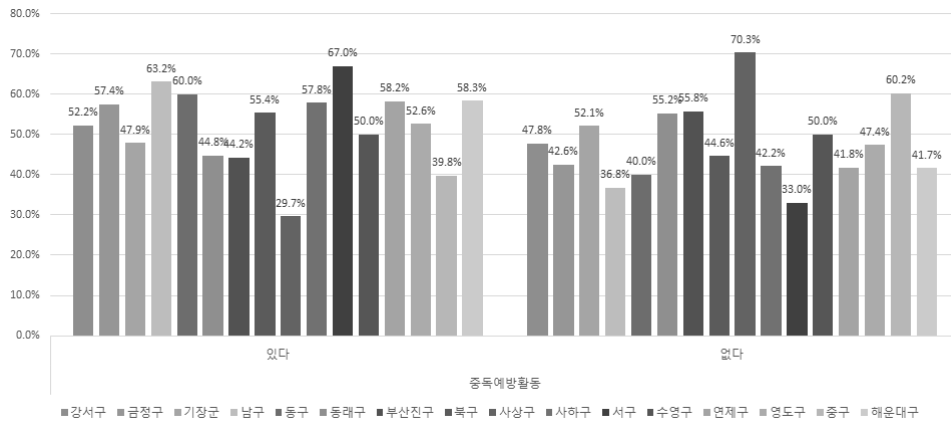
〈그림 41〉 지역별 신체건강관리활동 참여경험

- 스포츠활동은 연제구(93.4%), 사하구(89.2%), 서구(87.0%)가 높은 참여경험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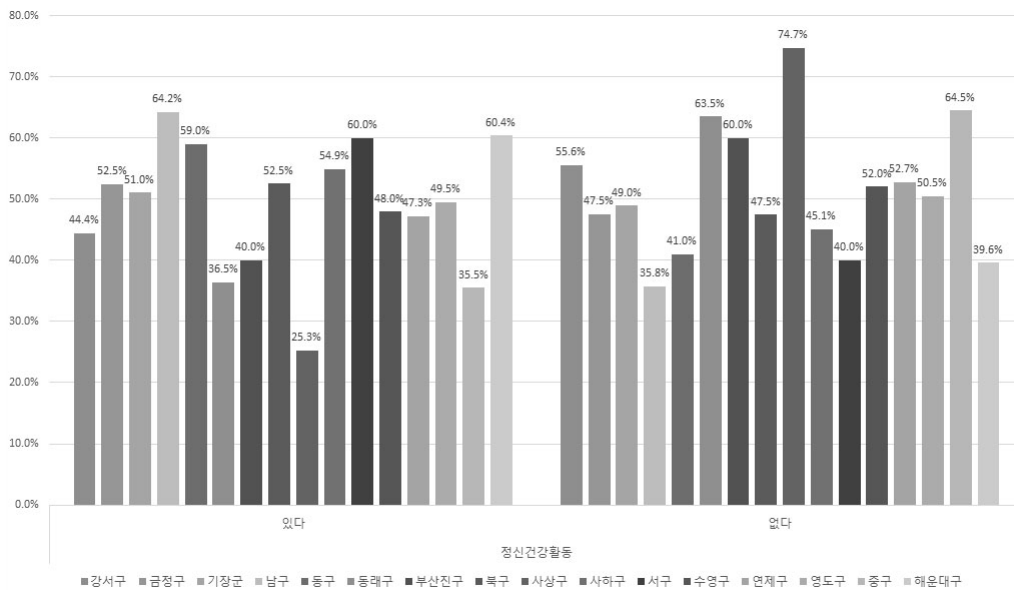
〈그림 42〉 지역별 스포츠활동 참여경험

- 중독예방활동은 서구(67.0%), 남구(63.2%), 동구(60.0%)가 높은 참여경험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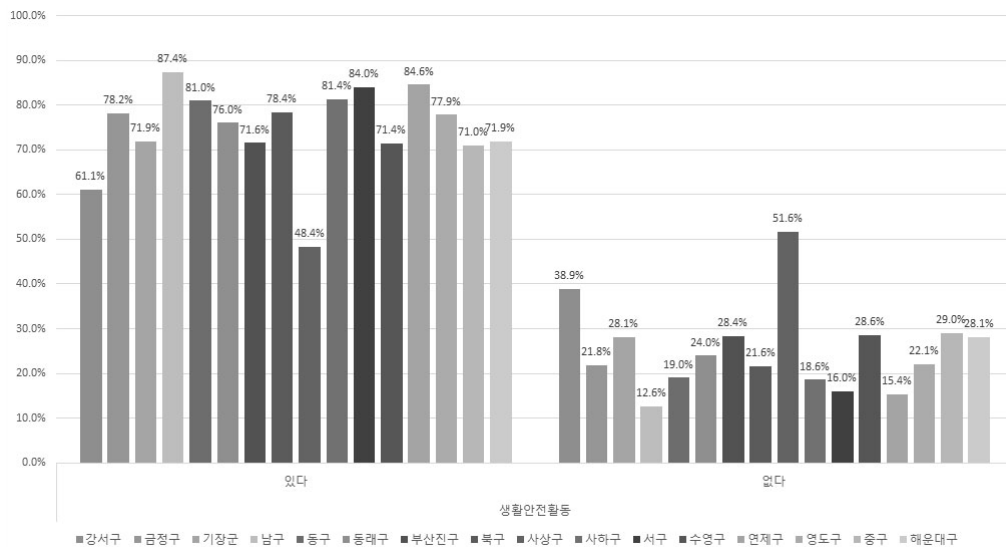
〈그림 43〉 지역별 중독예방활동 참여경험

- 정신건강활동은 서구(72.0%), 사하구(65.7%), 금정구(63.4%)가 높은 참여경험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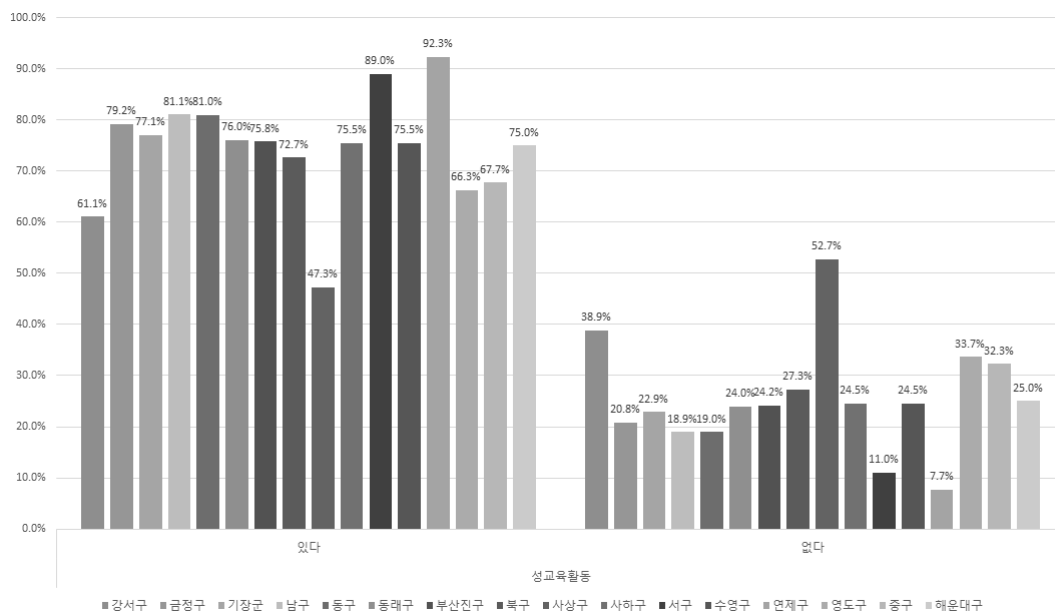
〈그림 44〉 지역별 정신건강활동 참여경험

- 생활안전활동은 서구(72.0%), 사하구(65.7%), 금정구(63.4%)가 높은 참여경험을 나타냄



〈그림 45〉 지역별 생활안전활동 참여경험

- 성교육활동은 서구(72.0%), 사하구(65.7%), 금정구(63.4%)가 높은 참여경험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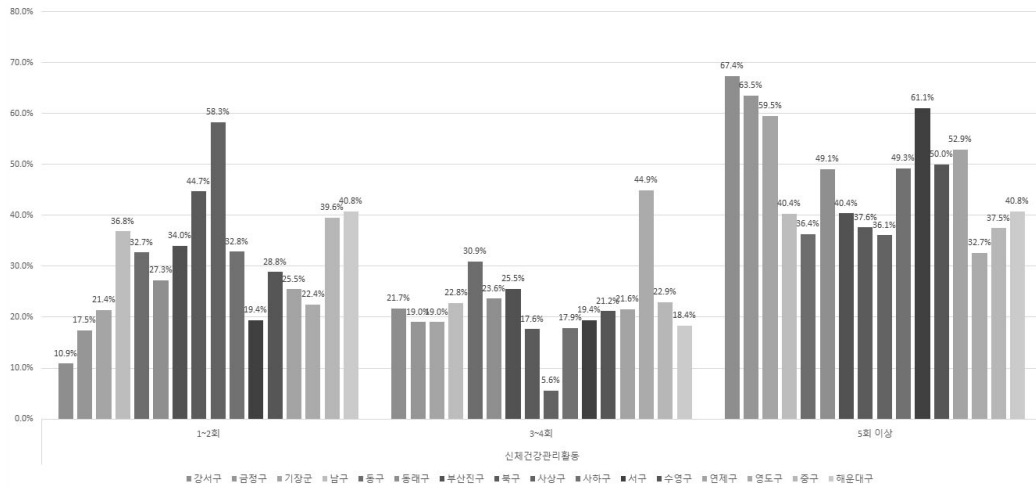


〈그림 46〉 지역별 성교육활동 참여경험

- 건강증진활동 중 지역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신체건강관리활동($\chi^2=75.287$, $p<.001$), 스포츠활동($\chi^2=67.648$, $p<.001$)과 중독예방활동($\chi^2=79.802$, $p<.001$), 정신건강활동($\chi^2=90.031$, $p<.001$), 생활안전활동($\chi^2=62.495$, $p<.001$), 성교육활동($\chi^2=101.114$,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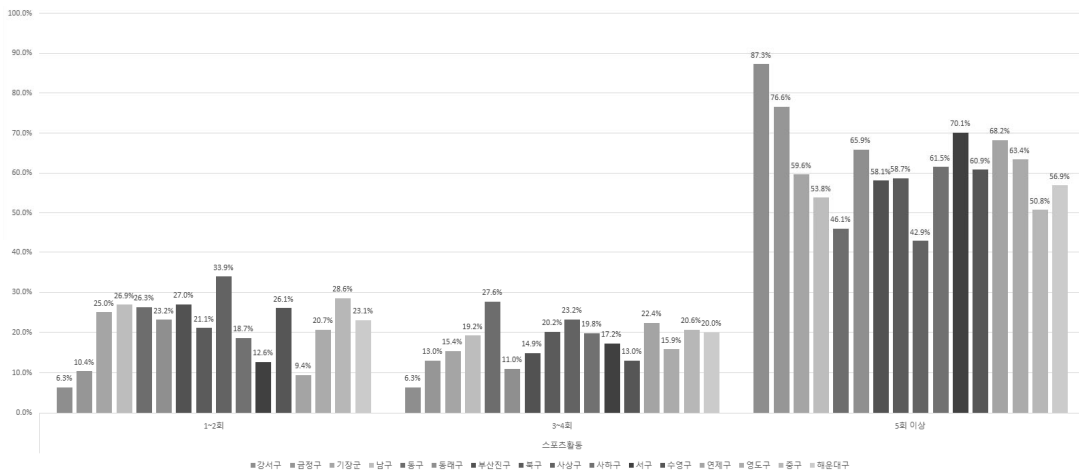
2018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세부적으로 지역별 참여횟수는 신체건강관리활동의 경우 1~2회는 사상구(58.3%), 북구(44.7%), 해운대구(40.8%)순으로 참여회수가 높았고, 3~4회는 영도구(44.9%), 동구(30.9%), 부산진구(25.5%), 5회 이상은 강서구(67.4%), 금정구(63.5%), 서구(61.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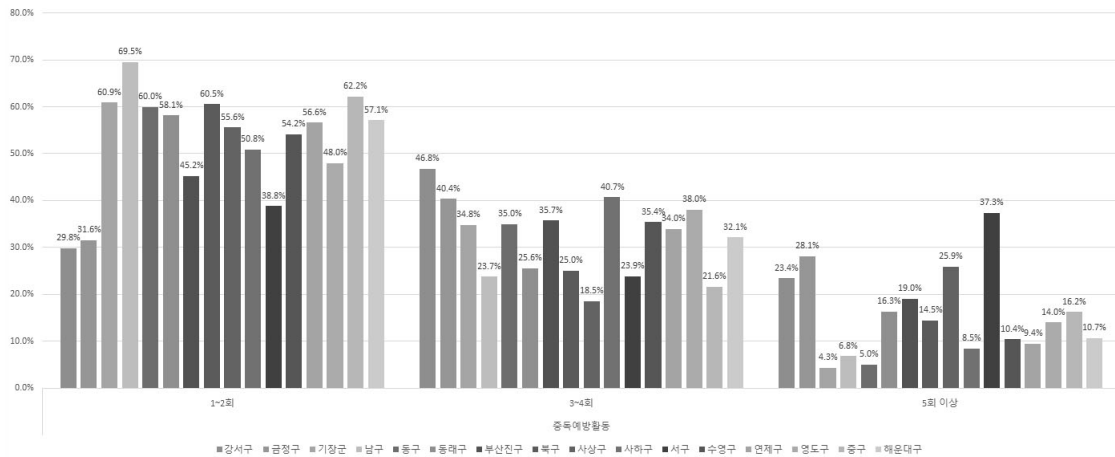
〈그림 47〉 지역별 신체건강관리활동 참여횟수

- 스포츠활동은 1~2회는 사상구(33.9%), 중구(28.6%), 부산진구(27.0%), 3~4회는 동구(27.6%), 사상구(23.2%), 연제구(22.4%), 5회 이상은 강서구(87.3%), 금정구(76.6%), 서구(7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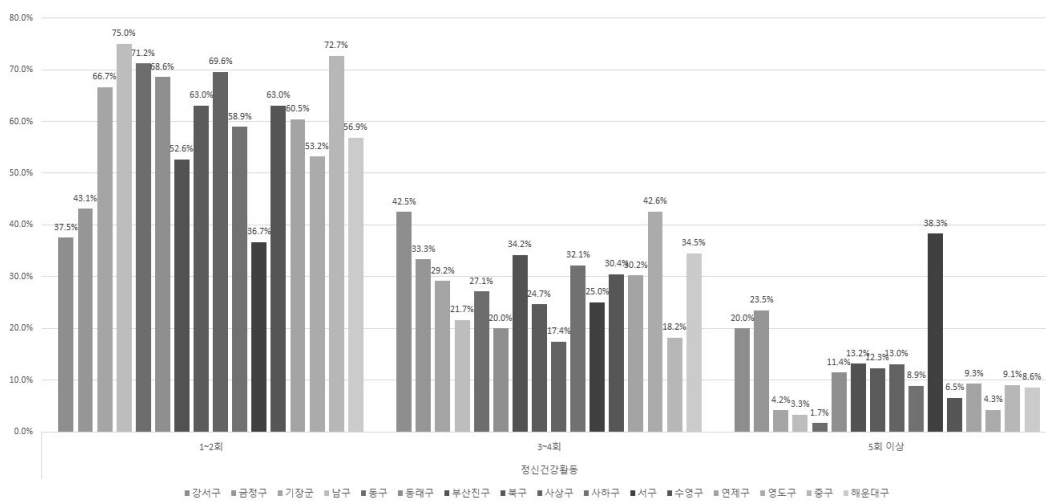
〈그림 48〉 지역별 스포츠활동 참여횟수

- 중독예방활동은 1~2회는 남구(69.5%), 중구(62.2%), 기장군(60.9%), 3~4회는 강서구(46.8%), 사하구(40.7%), 금정구(40.4%), 5회 이상은 서구(37.3%), 금정구(28.1%), 사상구(25.9%) 순으로 나 타남.



〈그림 49〉 지역별 중독예방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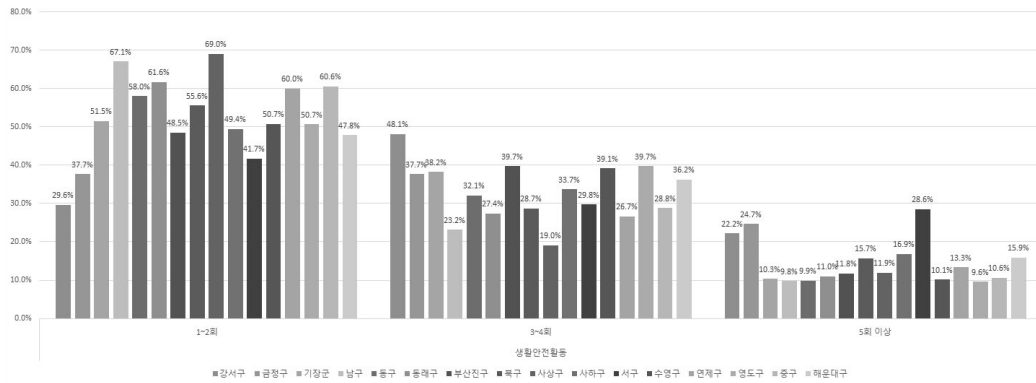
- 정신건강활동은 1~2회는 남구(75.0%), 중구(72.7%), 동구(71.2%), 3~4회는 영도구(42.6%), 강서구(42.5%), 해운대구(34.5%), 5회 이상은 서구(38.3%), 금정구(23.5%), 강서구(20.0%) 순으로 나 타남.



〈그림 50〉 지역별 정신건강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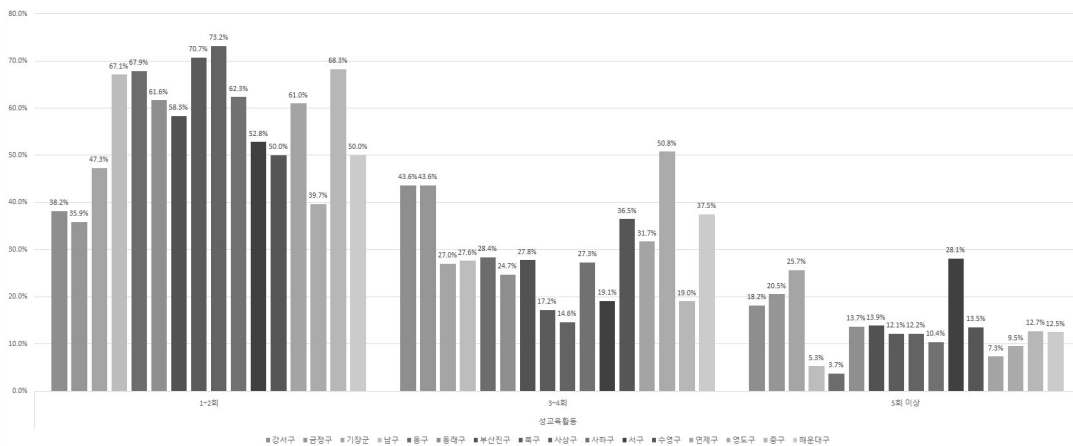
2018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생활안전활동은 1~2회는 사상구(69.0%), 남구(67.1%), 동래구(61.6%), 3~4회는 강서구(48.1%), 영도구(39.7%), 부산진구(39.7%), 5회 이상은 서구(28.6%), 금정구(24.7%), 강서구(2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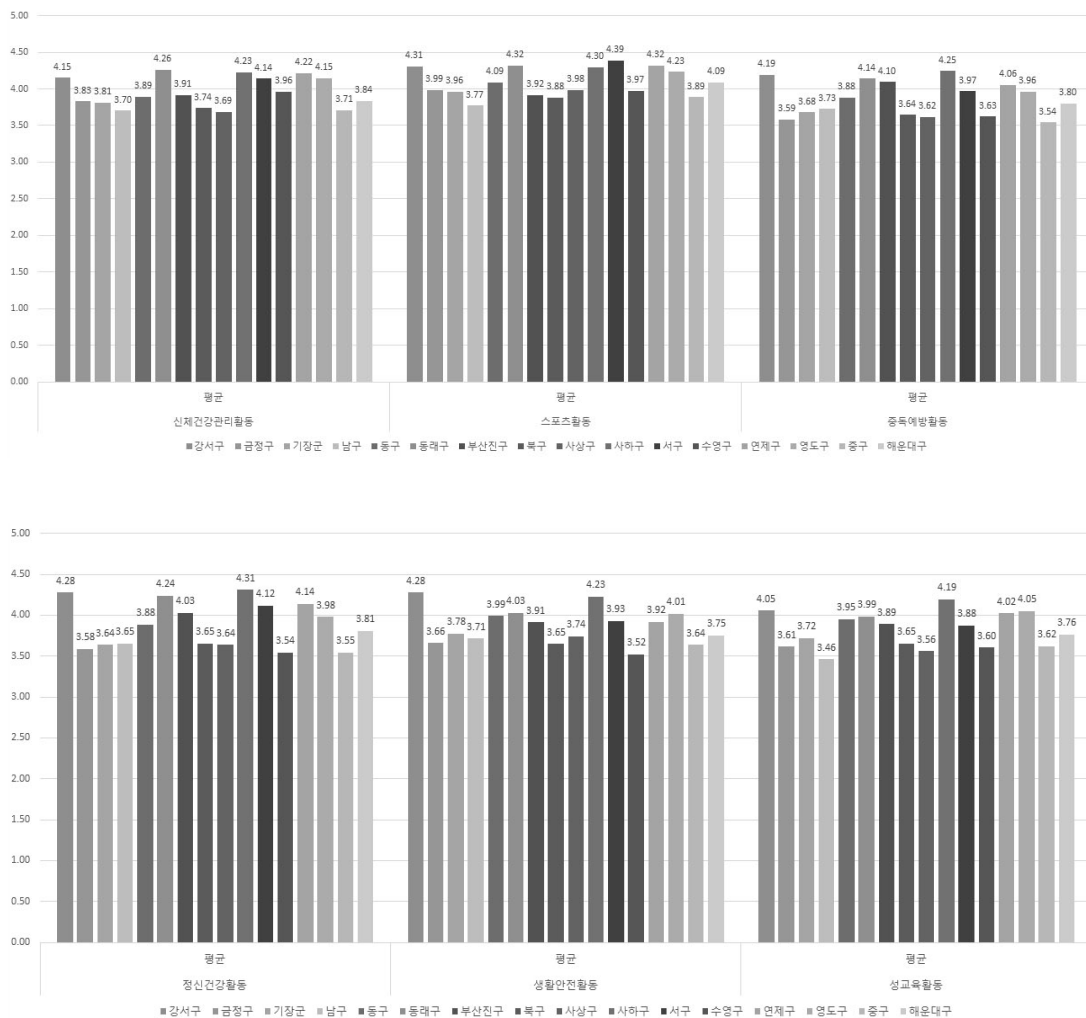
〈그림 51〉 지역별 생활안전활동 참여횟수

- 성교육활동은 1~2회는 사상구(73.2%), 북구(70.7%), 중구(68.3%), 3~4회는 영도구(50.8%), 강서구(43.6%), 금정구(43.6%), 5회 이상은 서구(28.1%), 기장군(25.7%), 금정구(20.5%)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지역별 성교육활동 참여횟수

- 지역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는 신체건강관리활동($F=2.947$, $p<.001$), 스포츠활동($F=4.093$, $p<.001$)과 중독예방활동($F=3.367$, $p<.001$), 정신건강활동($F=4.369$, $p<.001$), 생활안전활동($F=4.139$, $p<.001$), 성교육활동($F=3.751$,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신체건강관리활동은 동래구(평균 4.26), 사하구(평균 4.23), 연제구(평균 4.22), 스포츠활동은 서구(평균 4.39), 동래구(평균 4.32), 연제구(평균 4.32), 중독예방활동은 사하구(평균 4.25), 강서구(평균 4.19), 동래구(평균 4.14), 정신건강활동은 동래구(평균 4.26), 사하구(평균 4.23), 연제구(평균 4.22), 생활안전활동은 서구(평균 4.39), 동래구(평균 4.32), 연제구(평균 4.32), 성교육활동은 사하구(평균 4.25), 강서구(평균 4.19), 동래구(평균 4.1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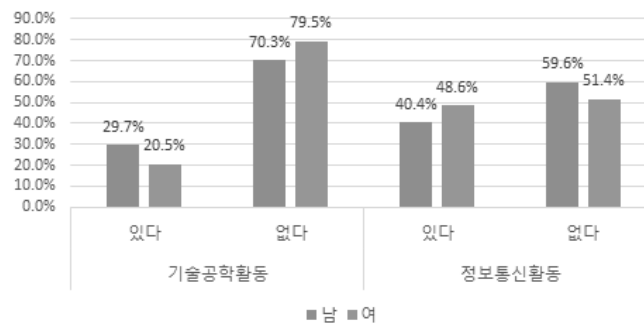


〈그림 53〉 지역별 건강증진활동 만족도

3-3-2 과학정보활동

- 과학정보 활동 중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기술공학활동($\chi^2=17.336$, $p<.001$), 정보통신활동($\chi^2=10.471$, $p<.001$)이 성별에 유의미한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횟수에서는 기술공학활동($\chi^2=7.499$, $p<.05$), 해양과학활동($\chi^2=8.519$, $p<.05$)이 유의미하게 만족도에 있어서는 기술공학활동($t=2.080$, $p<.05$)과 우주과학활동($t=2.066$,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경험에 있어서 기술공학 활동에서는 남성(29.7%), 여성 (20.5%)의 응답, 정보통신활동에서는 남성(40.4%), 여성 (48.6%)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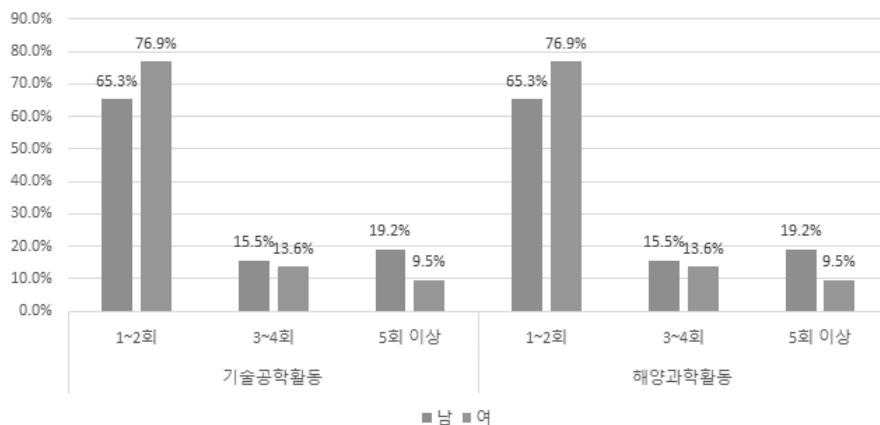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그림 54〉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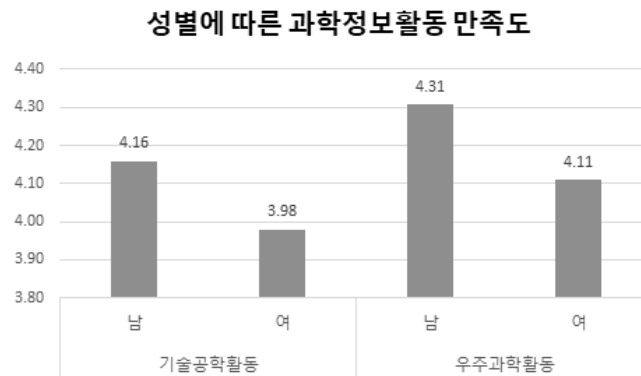
-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기술공학활동의 경우 1~2회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남성(65.3%), 여성 (76.9%)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3~4회 참여는 남성(15.5%), 여성 (13.6%), 5회이상 참여는 남성(19.2%), 여성 (9.5%)으로 나타남
- 해양과학활동의 경우 1~2회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남성(70.1%), 여성 (78.6%)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3~4회 참여는 남성(14.1%), 여성 (15.9%), 5회이상 참여는 남성 (15.8%), 여성 (5.5%)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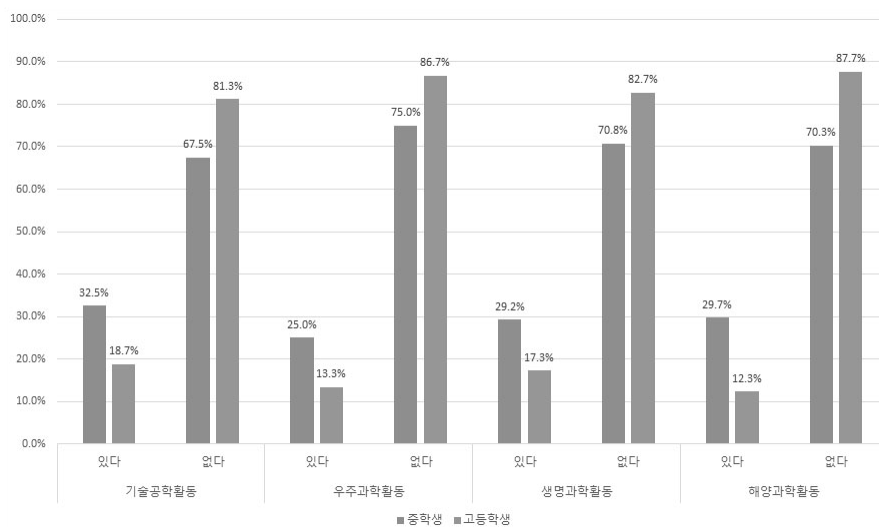
〈그림 55〉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 만족도의 경우 기술공학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t=2.080$, $p<.05$ 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평균 만족도 4.16, 여자 3.98으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주과학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t=2.066$, $p<.05$ 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평균 만족도 4.31, 여자 4.11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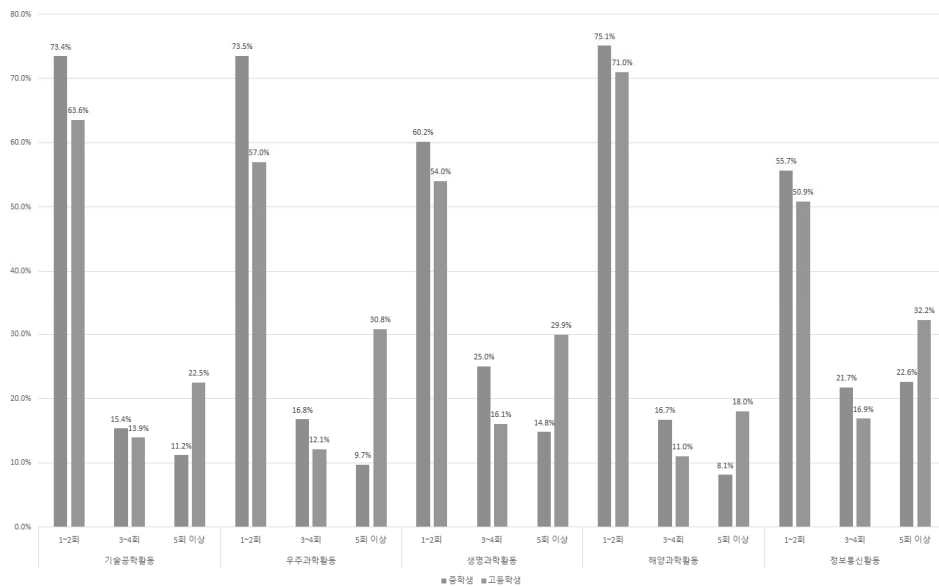
〈그림 56〉 성별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 과학정보활동에 있어서 교급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기술공학활동($\chi^2=39.109$, $p<.001$), 우주과학활동($\chi^2=34.611$, $p<.001$)과 생명과학활동($\chi^2=31.452$, $p<.001$), 해양과학활동($\chi^2=72.080$, $p<.0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기술공학활동은 중학생 32.5%, 고등학생 18.7%, 우주과학활동은 중학생 25.0%, 고등학생은 13.3%, 생명과학활동은 중학생 29.2%, 고등학생 17.3%, 해양과학활동은 중학생 29.7%, 고등학생은 12.3% 로 나타남



〈그림 57〉 교급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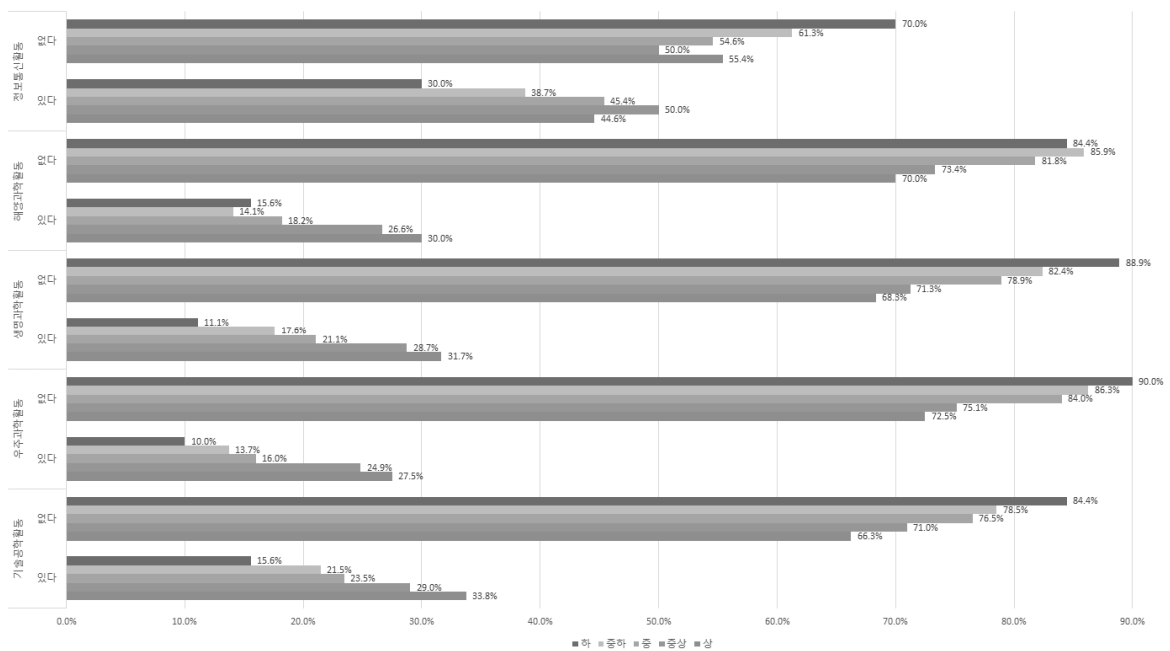
- 과학정보활동 중 교급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기술공학활동($\chi^2=9.065$, $p<.05$), 우주과학활동($\chi^2=20.991$, $p<.001$)과 생명과학활동($\chi^2=12.923$, $p<.01$), 해양과학활동($\chi^2=7.639$, $p<.05$), 정보통신활동($\chi^2=9.622$,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기술공학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73.4%, 고등학생 63.6%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15.4%, 고등학생 13.9%, 5회 이상은 중학생 11.2%, 고등학생 22.5%로 나타남
- 우주과학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73.5%, 고등학생 57.0%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16.8%, 고등학생 12.1%, 5회 이상은 중학생 9.7%, 고등학생 30.8%로 나타남
- 생명과학활동은 1~2회 중학생 60.2%, 고등학생 54.0%, 3~4회는 중학생 25.0%, 고등학생 16.1%, 5회 이상은 중학생 14.8%, 고등학생 29.9%로 나타남
- 해양과학활동은 1~2회 중학생 75.13%, 고등학생 71.0%, 3~4회는 중학생 16.7%, 고등학생 11.0%, 5회 이상은 중학생 8.1%, 고등학생 18.0%로 나타남
- 정보통신활동은 1~2회 중학생 55.7%, 고등학생 50.9%, 3~4회는 중학생 21.7%, 고등학생 16.9%, 5회 이상은 중학생 22.6%, 고등학생 32.2%로 나타남



〈그림 58〉 교급에 따른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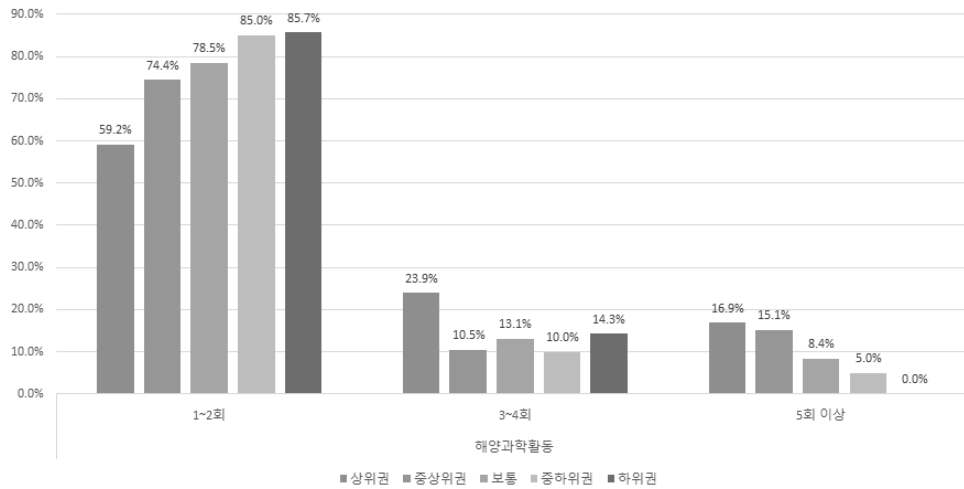
- 과학정보활동에 있어서 성적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기술공학활동($\chi^2=19.203$, $p<.01$), 우주과학활동($\chi^2=32.00$, $p<.001$), 생명과학활동($\chi^2=29.276$, $p<.001$), 해양과학활동($\chi^2=30.754$, $p<.001$), 정보통신활동($\chi^2=15.721$,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기술공학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성적이 상(33.8%), 중상(29.0%), 중(23.5%), 중하(21.5%), 하(15.6%), 우주과학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성적이 상(27.5%), 중상(24.9%), 중(16.0%), 중하(13.7%), 하(10.0%), 생명과학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성적이 상(31.7%), 중상

- (28.7%), 중(21.1%), 중하(17.6%), 하(11.1%), 해양과학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성적이 상(30.0%), 중상(26.6%), 중(18.2%), 중하(14.1%), 하(15.6%),
- 정보통신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성적이 상(44.6%), 중상(50.0%), 중(45.4%), 중하(38.7%), 하(30.0%), 로 나타남.
 - 과학정보활동 중 성적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해양과학활동($\chi^2=18.210$,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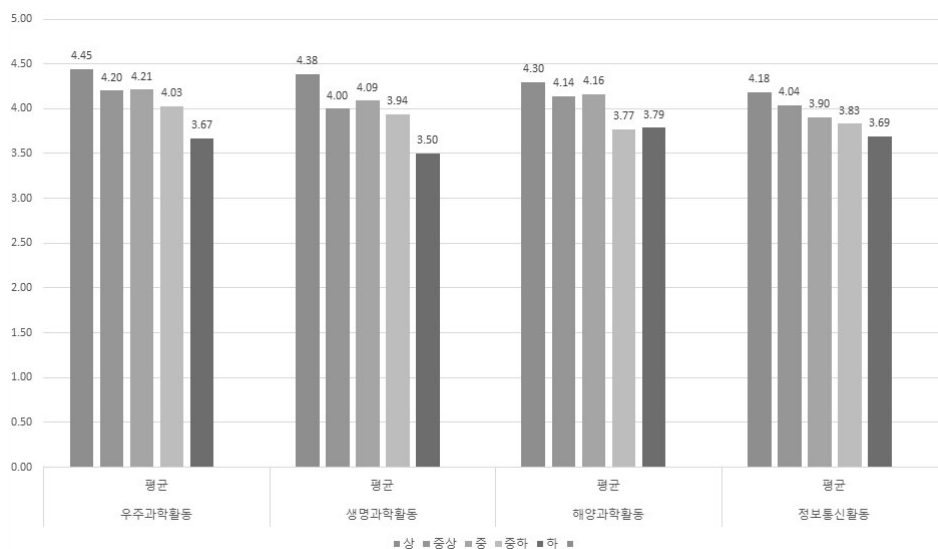
〈그림 59〉 성적별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 세부적으로는 해양과학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이 상(59.2%), 중상(74.4%), 중(78.5%), 중하(85.0%), 하(85.7%),로 나타남. 3~4회는 성적이 상(23.9%), 중상(10.5%), 중(13.1%), 중하(10.0%), 하(14.3%), 5회 이상은 성적이 상(16.9%), 중상(15.1%), 중(8.4%), 중하(5.0%), 하(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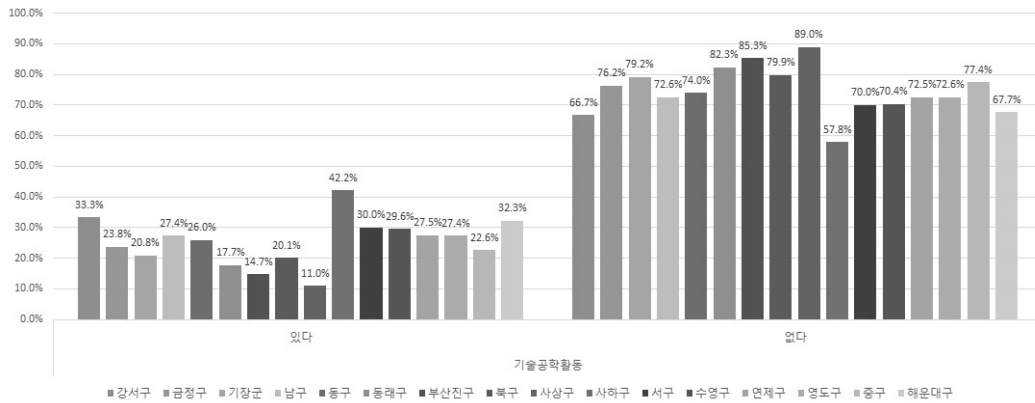
〈그림 60〉 성적별 과학정보활동 참여횟수

- 과학정보활동 만족도의 경우 성적별 차이에 대해서는 우주과학활동($F=2.918$, $p<.05$), 생명과학활동($F=4.369$, $p<.01$), 해양과학활동($F=3.019$, $p<.05$), 정보통신활동($F=3.516$,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우주과학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27), '중상'(평균 4.07), 중(평균 4.11), 중하(평균 3.93), 하(평균 3.86)로 나타남.
- 생명과학활동은 성적 '상'(평균 4.45), '중상'(평균 4.20), 중(평균 4.21), 중하(평균 4.03), 하(평균 3.67)로 나타남.
- 해양과학활동은 성적 '상'(평균 4.22), '중상'(평균 4.38), 중(평균 4.00), 중하(평균 4.09), 하(평균 3.94)로 나타남.
- 정보통신활동은 성적 '상'(평균 3.50), '중상'(평균 4.09), 중(평균 4.30), 중하(평균 4.14), 하(평균 4.16)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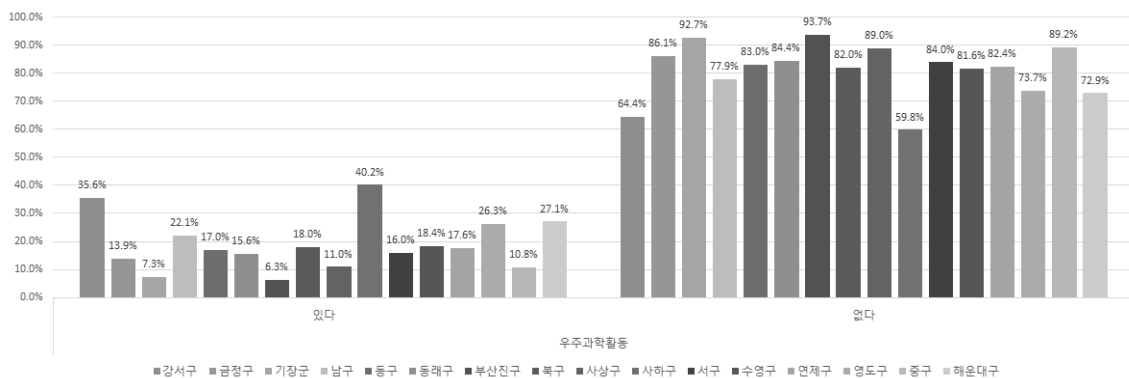
〈그림 61〉 성적별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 지역별 과학정보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기술공학활동($\chi^2=45.497$, $p<.001$), 우주과학활동($\chi^2=83.865$, $p<.001$)과 생명과학활동($\chi^2=83.807$, $p<.001$), 해양과학활동($\chi^2=52.971$, $p<.001$), 정보통신활동($\chi^2=70.341$,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기술공학활동은 사하구(42.2%), 강서구(33.3%), 해운대구(32.3%)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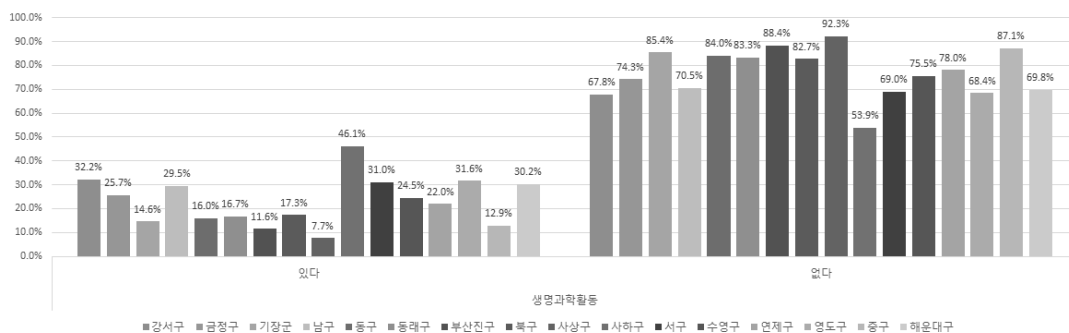
〈그림 62〉 지역별 기술공학활동 참여경험

- 우주과학활동은 사하구(40.2%), 강서구(35.6%), 해운대구(27.1%)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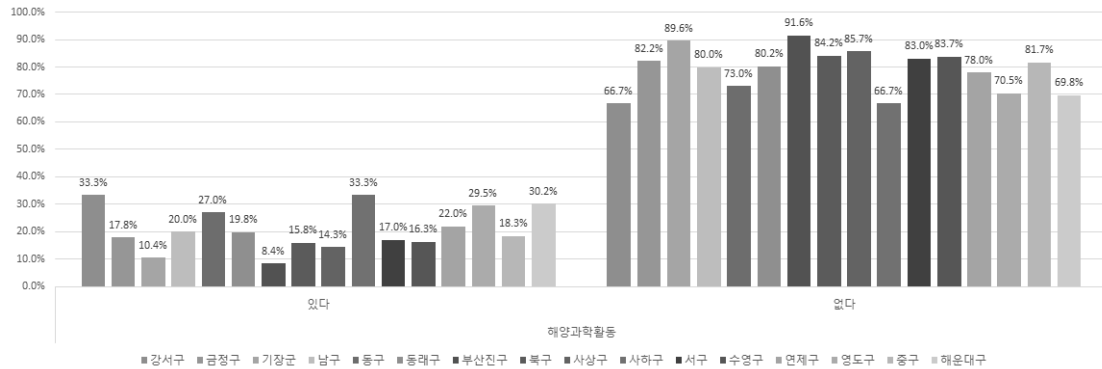
〈그림 63〉 지역별 우주과학활동 참여경험

- 생명과학활동은 사하구(46.1%), 강서구(32.2%), 영도구(31.6%)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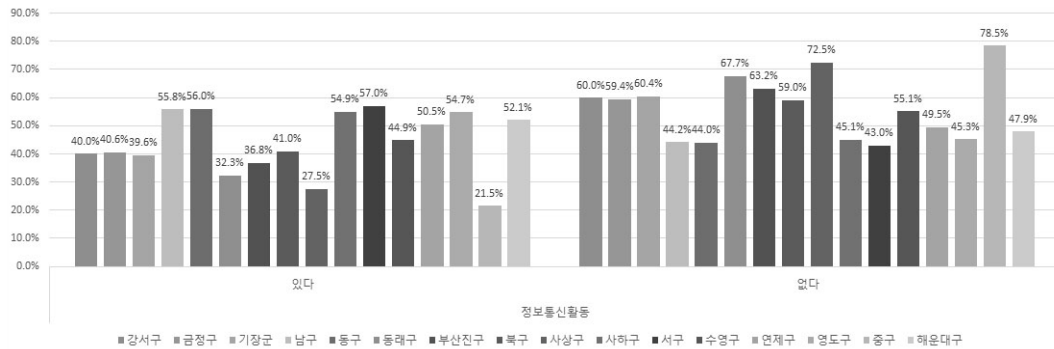
〈그림 64〉 지역별 생명과학활동 참여경험

- 해양과학활동은 사하구(33.3%), 강서구(33.3%), 해운대구(30.2%)가 참여경험이 높음.



〈그림 65〉 지역별 해양과학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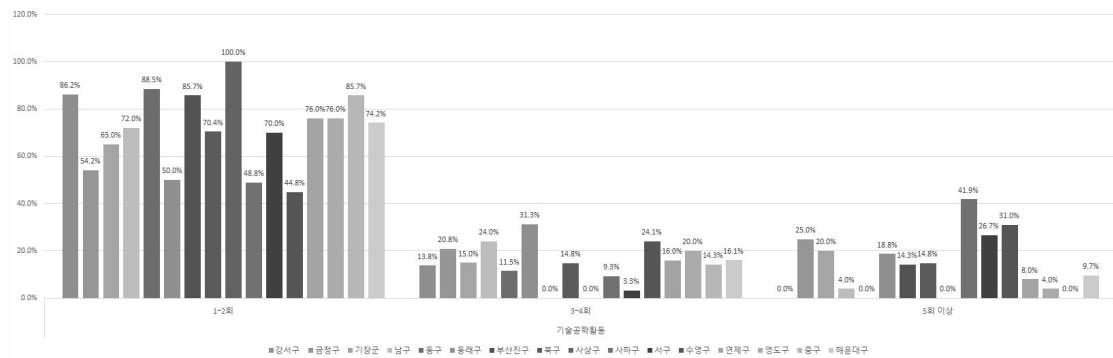
- 정보통신활동은 서구(57.0%), 동구(56.0%), 남구(55.8%)가 참여경험이 높음.



〈그림 66〉 지역별 정보통신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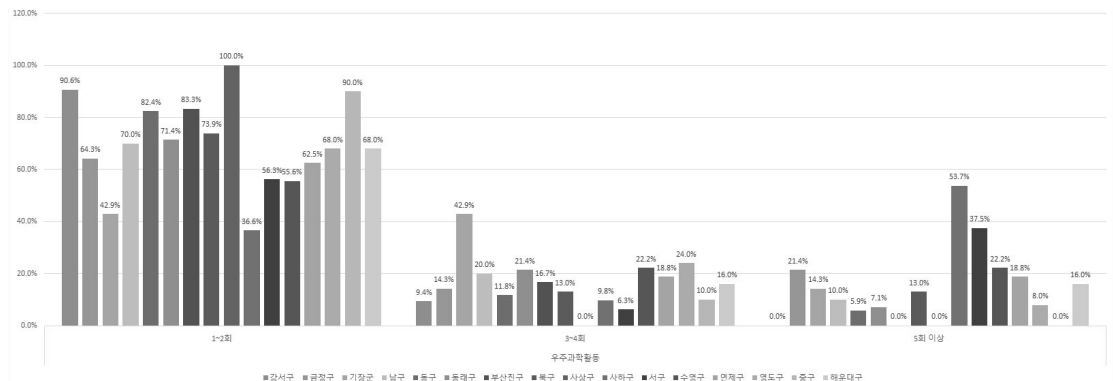
- 과학정보활동 중 지역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기술공학활동($\chi^2=73.617$, $p<.001$), 우주과학활동($\chi^2=72.371$, $p<.001$)과 생명과학활동($\chi^2=64.824$, $p<.001$), 해양과학활동($\chi^2=51.892$, $p<.01$), 정보통신활동($\chi^2=54.121$,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지역별 참여횟수는 기술공학활동의 경우 1~2회는 사상구(100%), 동구(88.5%), 강서구(86.2%)순으로 참여회수가 높았고, 3~4회는 동래구(31.3%), 수영구(24.1%), 남구(24.0%), 5회 이상은 사하구(41.9%), 수영구(31.0%), 서구(26.7%) 순으로 나타남.

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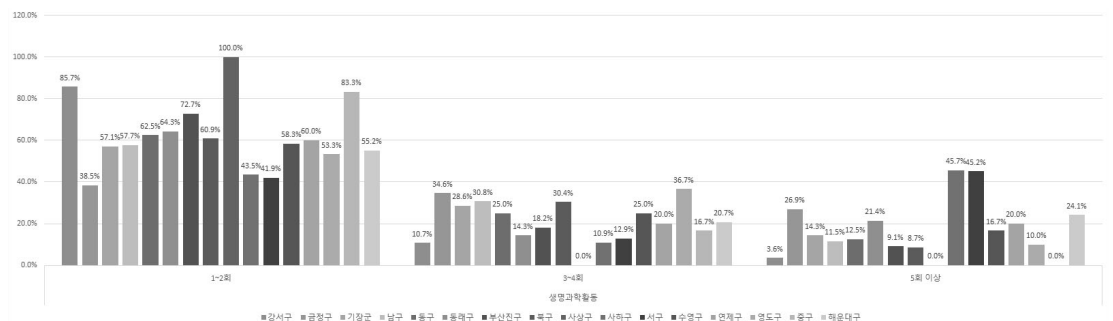
〈그림 67〉 지역별 기술공학활동 참여횟수

- 우주과학활동은 1~2회는 사상구(100%), 강서구(90.6%), 중구(90.0%), 3~4회는 기장군(42.9%), 영도구(24.0%), 수영구(22.2%), 5회 이상은 사하구(53.7%), 서구(37.5%), 수영구(2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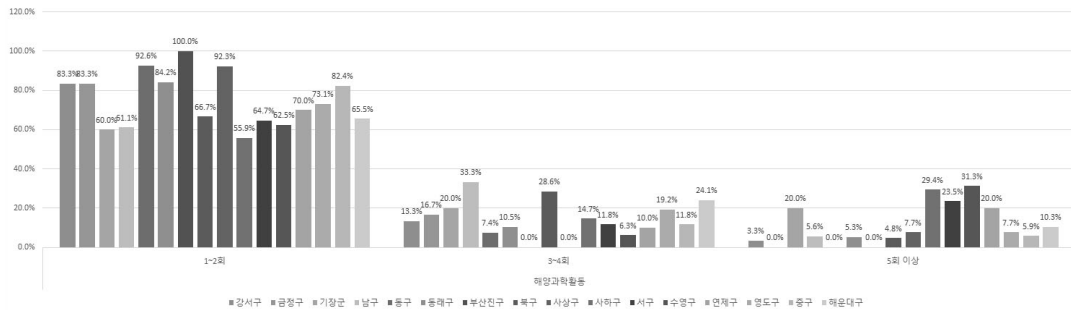
〈그림 68〉 지역별 우주과학활동 참여횟수

- 생명과학활동은 1~2회는 사상구(100.0%), 강서구(85.7%), 중구(83.3%), 3~4회는 영도구(36.7%), 금정구(34.6%), 남구(30.8%), 5회 이상은 사하구(45.7%), 서구(45.2%), 금정구(26.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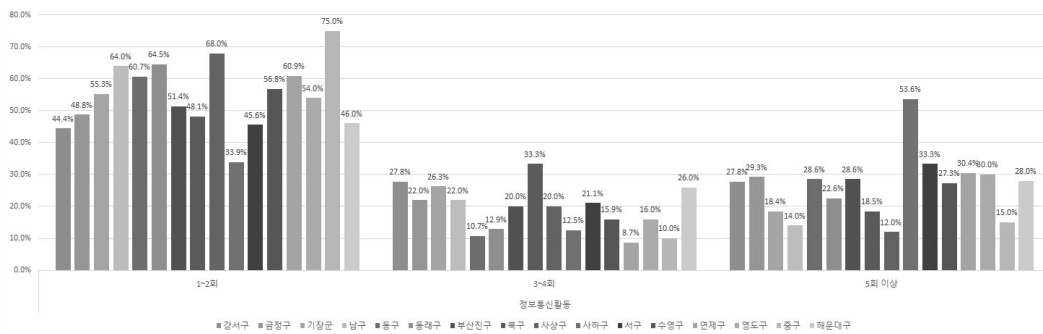
〈그림 69〉 지역별 생명과학활동 참여횟수

- 해양과학활동은 1~2회는 부산진구(100.0%), 동구(92.6%), 사상구(92.3%), 3~4회는 남구(33.3%), 북구(28.6%), 해운대구(24.1%), 5회 이상은 수영구(31.3%), 사하구(29.4%), 서구(23.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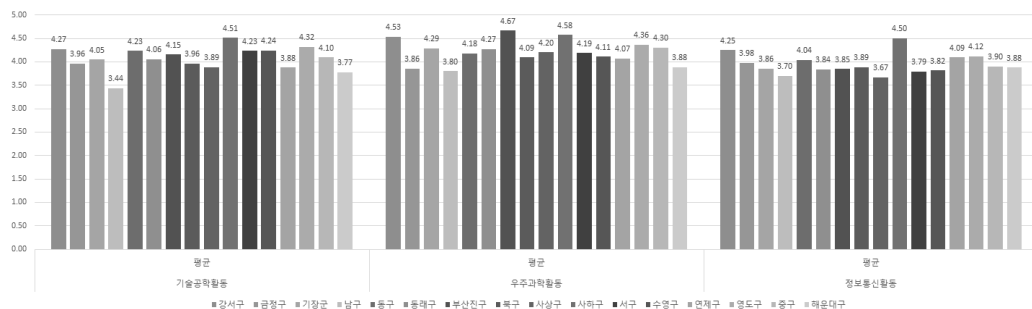
〈그림 70〉 지역별 해양과학활동 참여횟수

- 정보통신활동은 1~2회는 중구(75.0%), 사상구(68.0%), 동래구(64.5%), 3~4회는 북구(33.3%), 강서구(27.8%), 기장군(26.3%), 5회 이상은 사하구(53.6%), 서구(33.3%), 연제구(30.4%) 순으로 나타남.



〈그림 71〉 지역별 정보통신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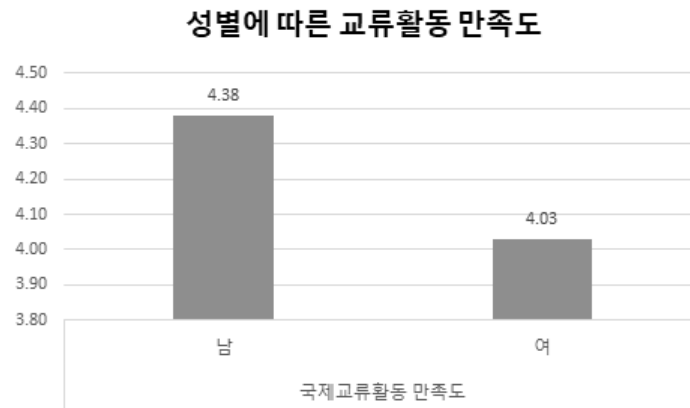
- 지역별 과학정보활동 만족도는 기술공학활동($F=2.887$, $p<.001$), 우주과학활동($F=2.042$, $p<.001$) 과 정보통신활동($F=2.832$,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기술공학활동은 사하구(평균 4.51), 영도구(평균 4.32), 강서구(평균 4.27), 우주과학 활동은 부산진구(평균 4.67), 사하구(평균 4.58), 강서구(평균 4.53), 정보통신활동은 사하구(평균 4.50), 강서구(평균 4.25), 영도구(평균 4.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72〉 지역별 과학정보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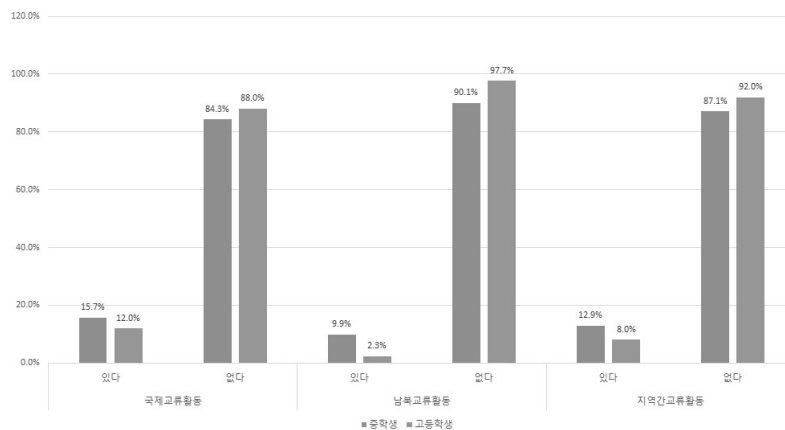
3-3-3 교류활동

- 교류활동의 경우 성별차이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활동 만족도에서만 $t=2.835$, $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남자 평균 만족도 4.38, 여자 4.03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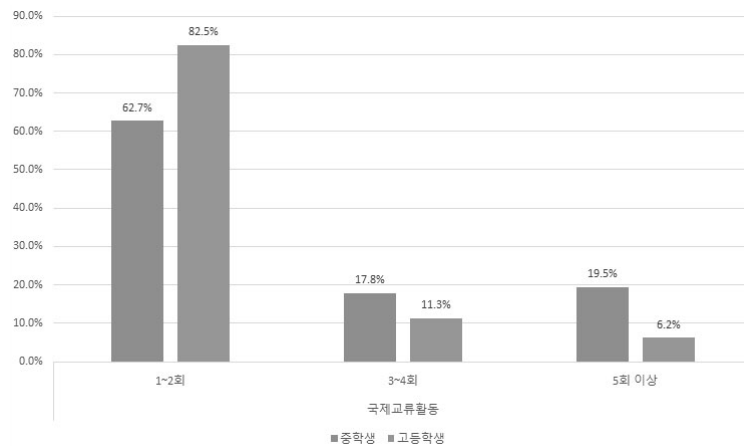
〈그림 72〉 성별에 따른 교류활동만족도

- 교류활동의 교급별 차이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활동($\chi^2=4.659$, $p<.05$), 남북교류활동($\chi^2=39.759$, $p<.001$)과 지역간교류활동($\chi^2=10.221$,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국제교류활동은 중학생 15.7%, 고등학생 12.0%, 남북교류활동은 중학생 9.9%, 고등학생은 2.3%, 지역간교류활동은 중학생 12.9%, 고등학생 8.0%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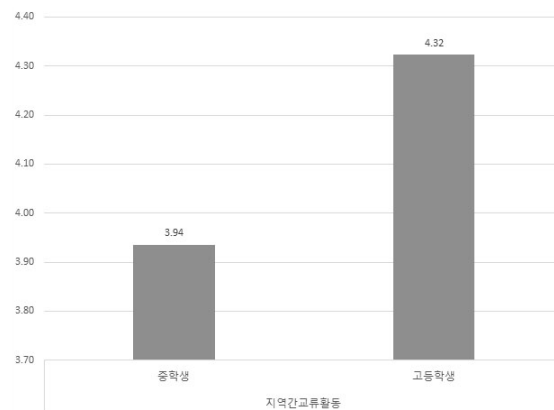
〈그림 74〉 교급별 교류활동 참여경험

- 교류활동 중 교급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국제교류활동($\chi^2=11.382$,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국제교류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62.7%, 고등학생 82.5%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17.8%, 고등학생 11.3%, 5회 이상은 중학생 19.5%, 고등학생 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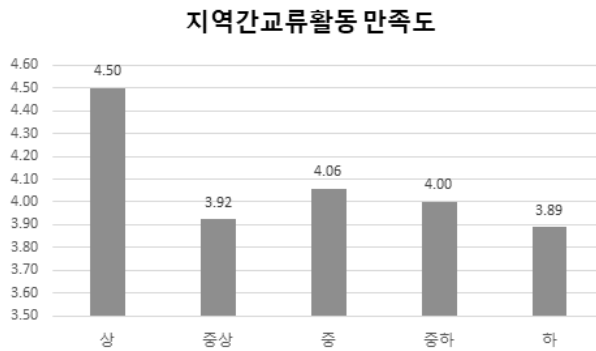
〈그림 75〉 교급별 교류활동 참여횟수

- 교류활동의 만족도의 경우 교급별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간 교류활동에서만 $t=-2.848$, $p<.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중학생 평균 3.94, 고등학생 평균 4.32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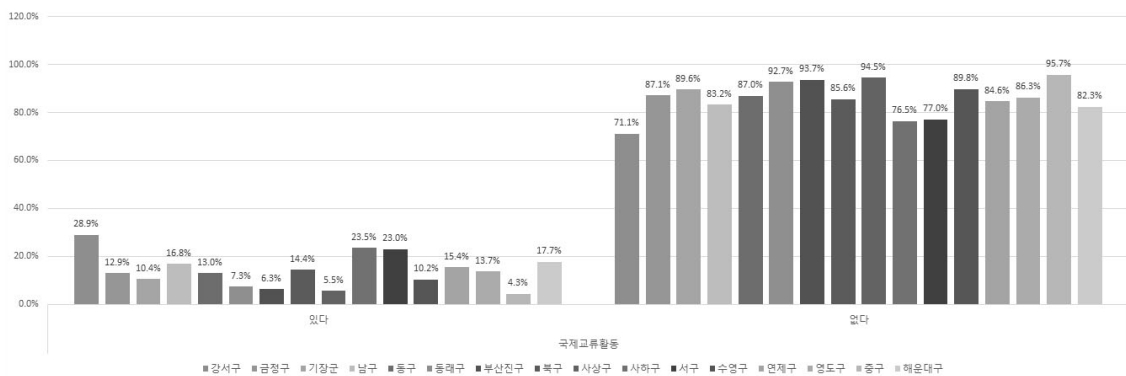
〈그림 76〉 교급별 교류활동 만족도

- 교류활동 만족도의 경우 성적별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간교류활동($F=2.545$,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지역간교류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50), '중상'(평균 3.92), 중(평균 4.06), 중하(평균 4.00), 하(평균 3.8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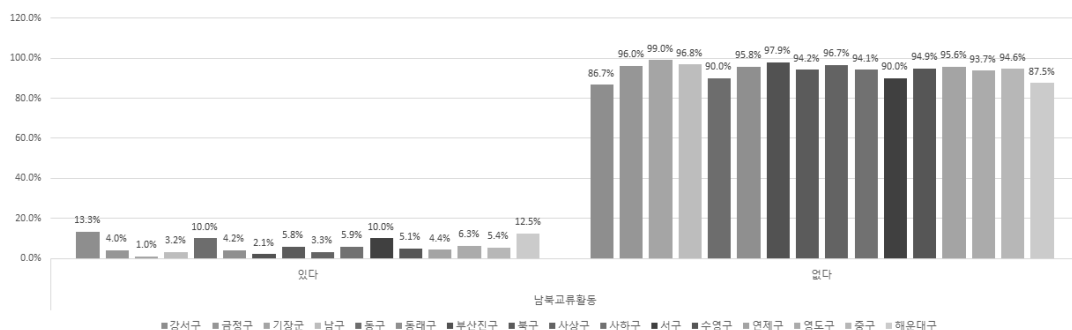
〈그림 77〉 성적별 교류활동 만족도

- 지역별 교류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활동($\chi^2=56.246$, $p<.001$)과 남북교류활동($\chi^2=32.593$,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국제교류활동은 강서구(28.9%), 사하구(23.5%), 서구(23.0%)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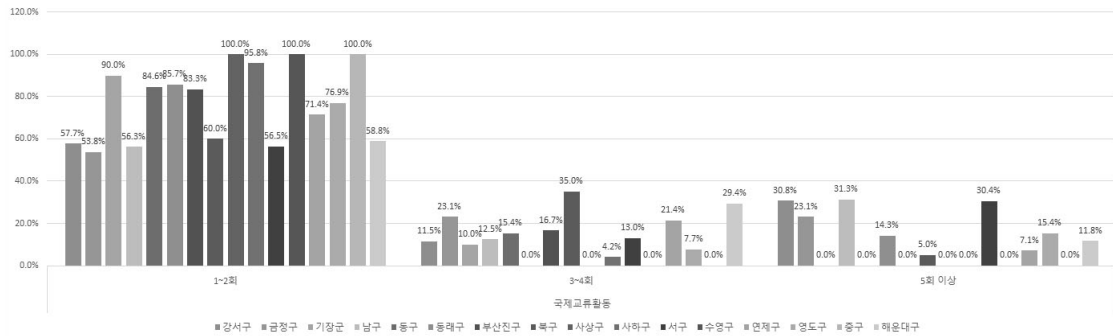
〈그림 78〉 지역별 국제교류활동 참여경험

- 남북교류활동은 강서구(13.3%), 해운대구(12.5%), 동구, 서구(10.0%)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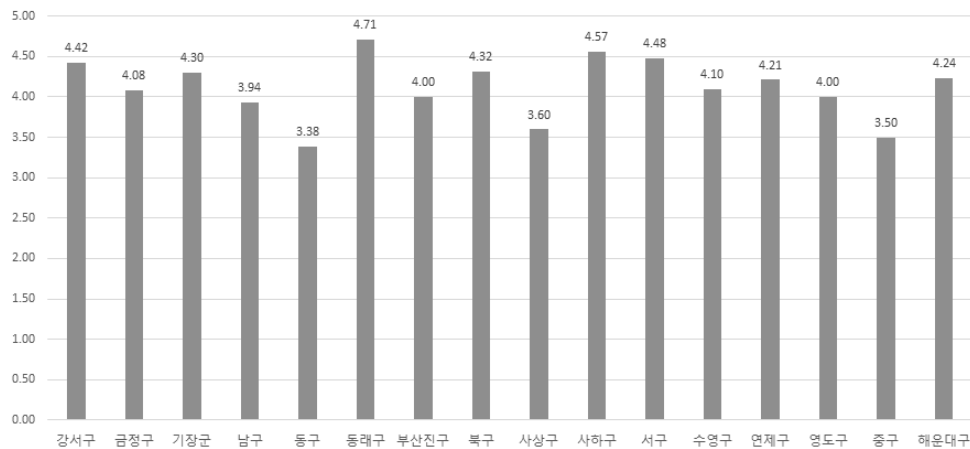
〈그림 79〉 지역별 남북교류활동 참여경험

- 교류활동 중 지역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국제교류활동($\chi^2=50.222$,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지역별 참여횟수는 국제교류활동의 경우 1~2회는 수영, 중구, 사상구(100%), 사하구(95.8%), 기장구(90.0%)순으로 참여회수가 높았고, 3~4회는 북구(35.0%), 해운대구(29.4%), 금정구(23.1%), 5회 이상은 남구(31.3%), 강서구(30.8%), 서구(30.4%) 순으로 나타남.



〈그림 80〉 지역별 국제교류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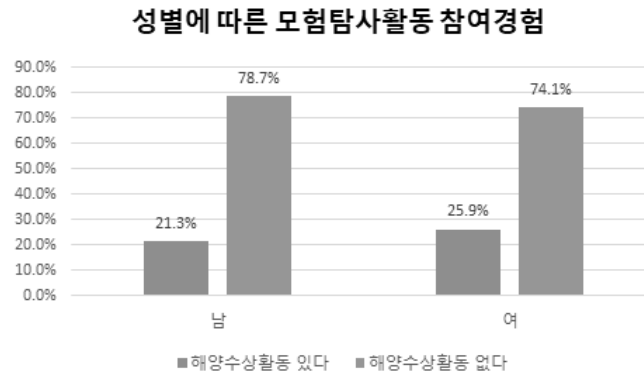
- 지역별 교류활동 만족도는 국제교류활동($F=2.887$,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국제교류활동은 동래구(평균 4.71), 사하구(평균 4.57), 서구(평균 4.48)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 지역별 국제교류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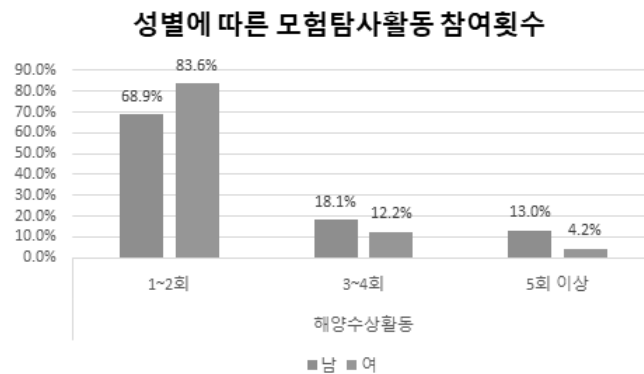
3-3-4 모험탐사활동

- 모험탐사활동에 있어서는 해양수상활동만 참여경험에 있어서 $\chi^2=4.501$, $p<.05$, 참여횟수에 있어서 $\chi^2=12.980$, $p<.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경험에 있어서는 남성(21.3%), 여성 (25.9%)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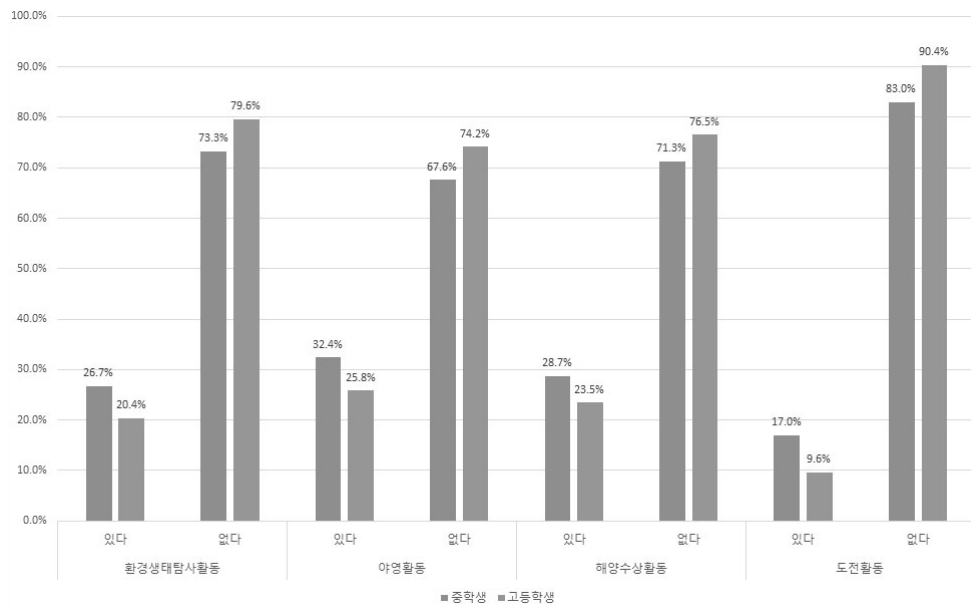
〈그림 82〉 성별에 따른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1~2회 참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남성(68.9%), 여성 (83.6%)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3~4회 참여는 남성(18.1%), 여성 (12.2%), 5회이상 참여는 남성 (13.0%), 여성 (4.2%)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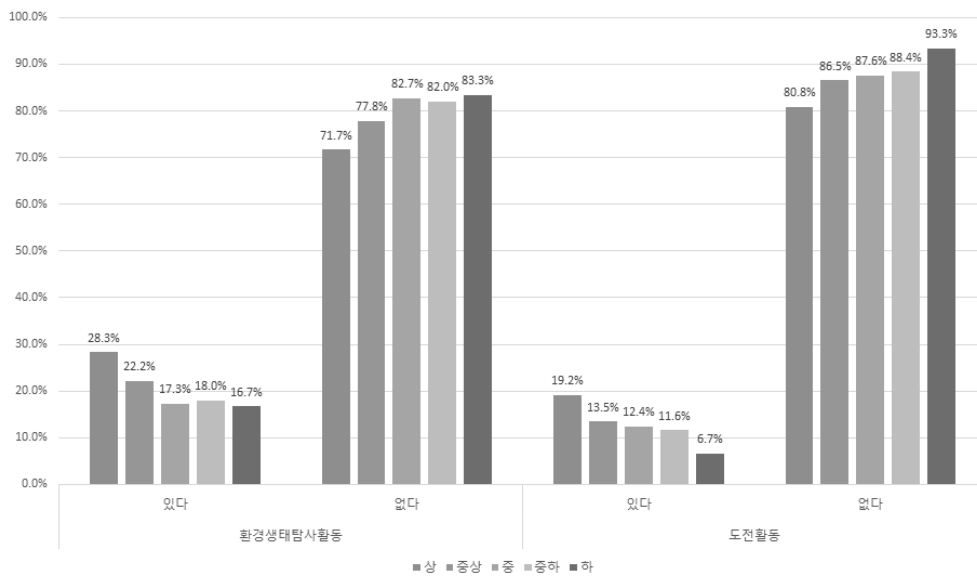
〈그림 83〉 성별에 따른 해양수상활동 참여횟수

- 모험탐사활동에 있어서 교급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환경생태탐사활동($\chi^2=35.492$, $p<.001$), 야영 활동($\chi^2=32.632$, $p<.001$)과 해양수상활동($\chi^2=22.003$, $p<.001$), 도전활동($\chi^2=18.828$, $p<.0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환경생태탐사활동은 중학생 26.7%, 고등학생 14.5%, 야영활동은 중학생 32.4%, 고등학생은 19.7%, 해양수상활동은 중학생 28.7%, 고등학생 18.6%, 도전활동은 중학생 17.0%, 고등학생은 9.6%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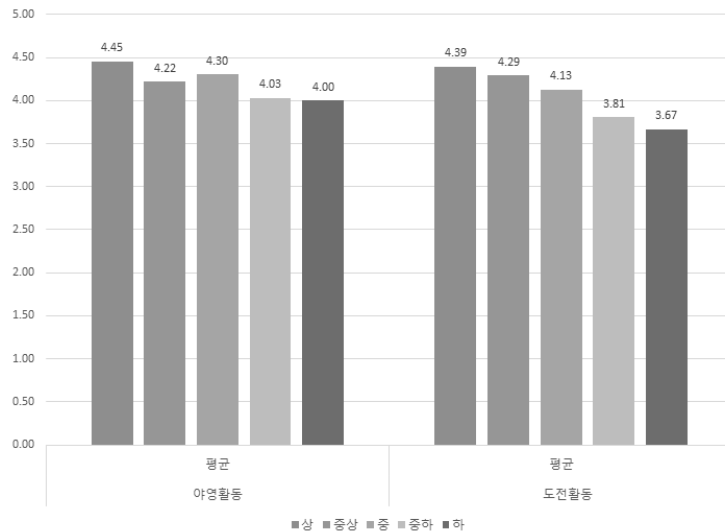
〈그림 84〉교급별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 모험탐사활동에 있어서 성적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환경생태탐사활동($\chi^2=15.203$, $p<.01$), 도전활동($\chi^2=11.755$,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환경생태탐사활동은 성적이 상(28.3%), 중상(22.2%), 중(17.3%), 중하(18.0%), 하(16.7%), 도전활동은 성적이 상(19.2%), 중상(13.5%), 중(12.4%), 중하(11.6%), 하(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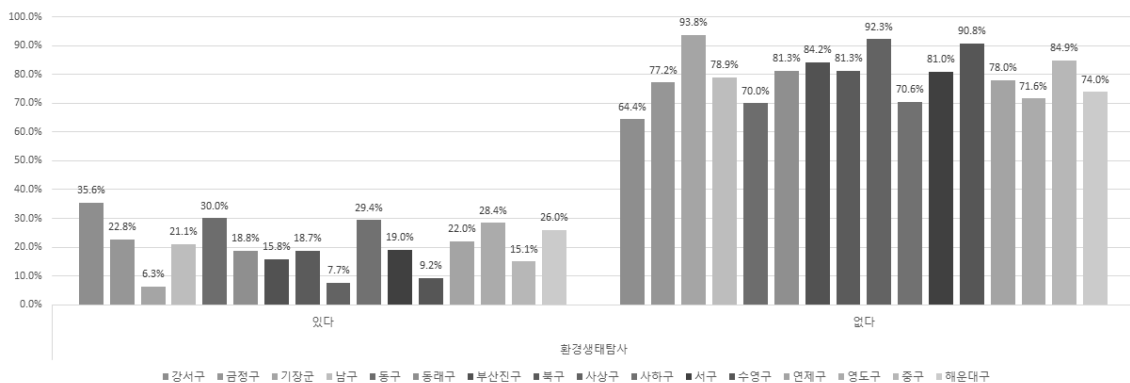
〈그림 85〉성적별 모험탐사활동 참여경험

- 모험탐사활동 만족도의 경우 성적별 차이에 대해서는 야영활동($F=2.961$, $p<.05$), 도전활동($F=3.070$,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야영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45), '중상'(평균 4.22), 중(평균 4.30), 중하(평균 4.03), 하(평균 4.00)로 나타남.
- 도전활동은 성적 '상'(평균 4.25), '중상'(평균 4.40), 중(평균 4.30), 중하(평균 4.37), 하(평균 4.20)로 나타남.



〈그림 86〉 성적별 모험탐사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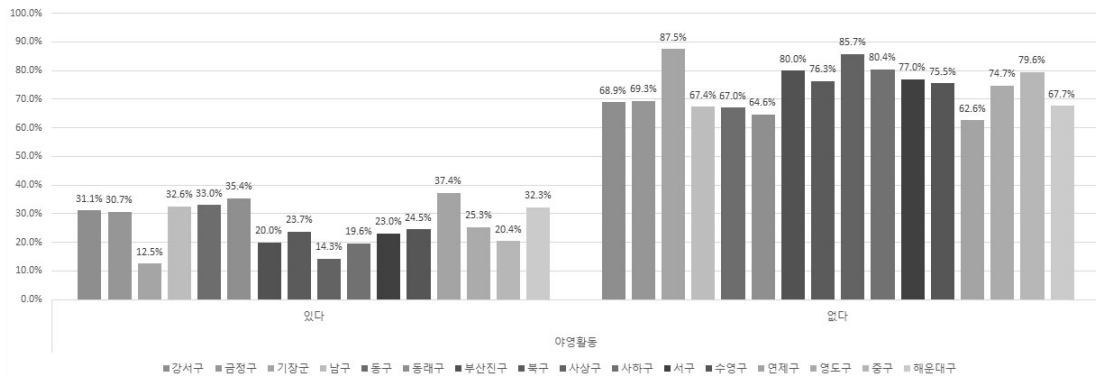
- 지역별 모험탐사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환경생태탐사활동($\chi^2=61.691$, $p<.001$)과 야영활동($\chi^2=41.688$, $p<.001$), 해양수상활동($\chi^2=48.830$, $p<.001$), 도전활동($\chi^2=51.881$,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환경생태탐사활동은 강서구(35.6%), 동구(30.0%), 사하구(29.4%)가 참여경험이 높음.



〈그림 87〉 지역별 환경생태탐사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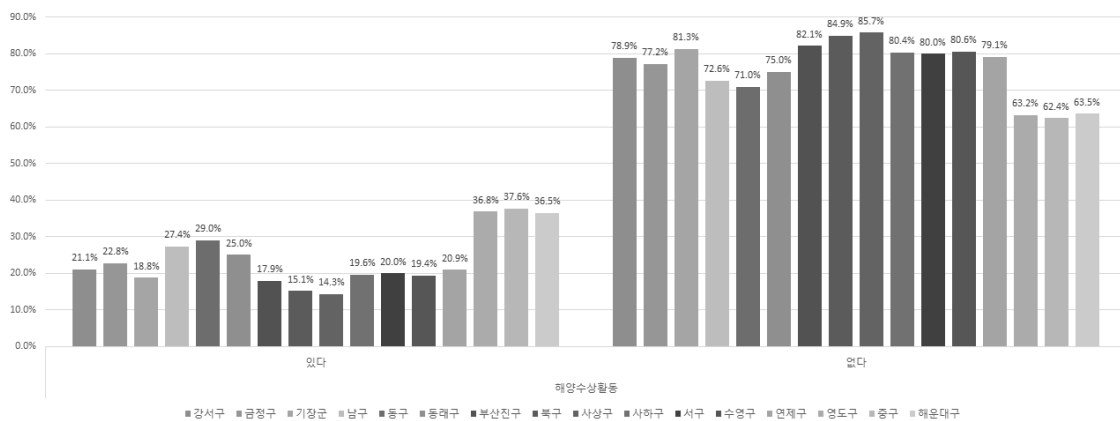
2018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야영활동은 연제구(37.4%), 동래구(35.4%), 동구(33.0%)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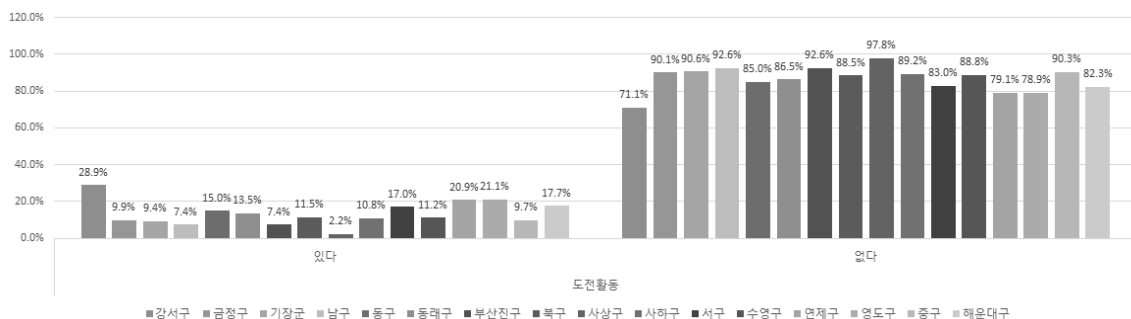
〈그림 88〉 지역별 야영활동 참여경험

- 해양수상활동은 중구(37.6%), 영도구(36.8%), 해운대구(36.5%)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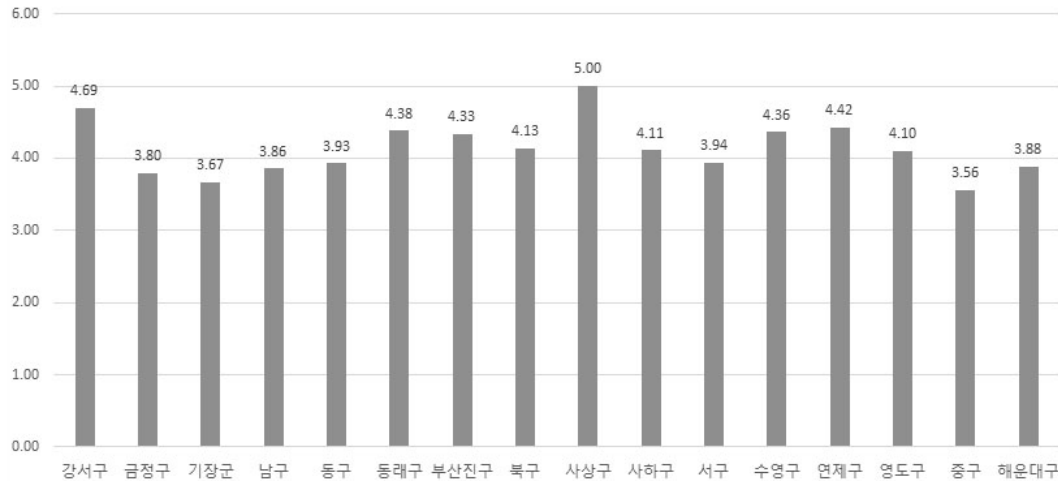
〈그림 89〉 지역별 해양수상활동 참여경험

- 도전활동은 강서구(28.9%), 영도구(21.1%), 연제구(20.9%)가 참여경험이 높음.



〈그림 90〉 지역별 도전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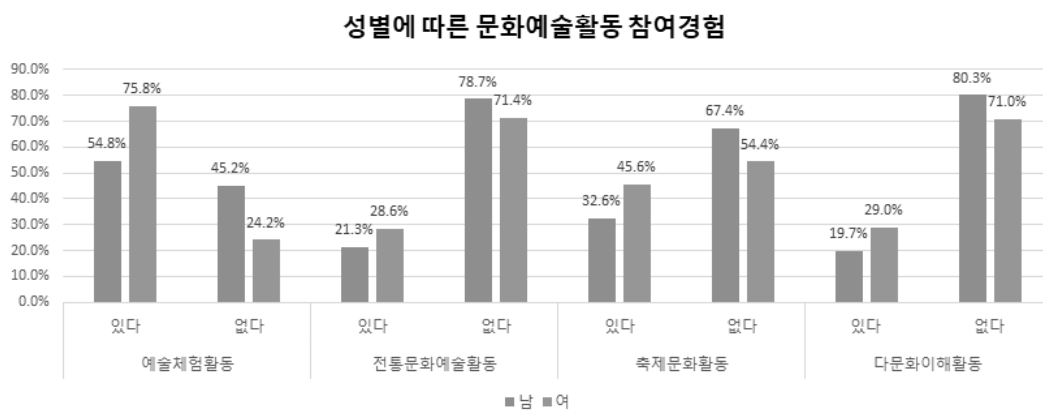
- 지역별 모험탐사활동 만족도는 도전활동($F=2.110$,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도전활동은 사상구(평균 5.00), 강서구(평균 4.69), 연제구(평균 4.42) 순으로 나타남



〈그림 91〉 지역별 모험탐사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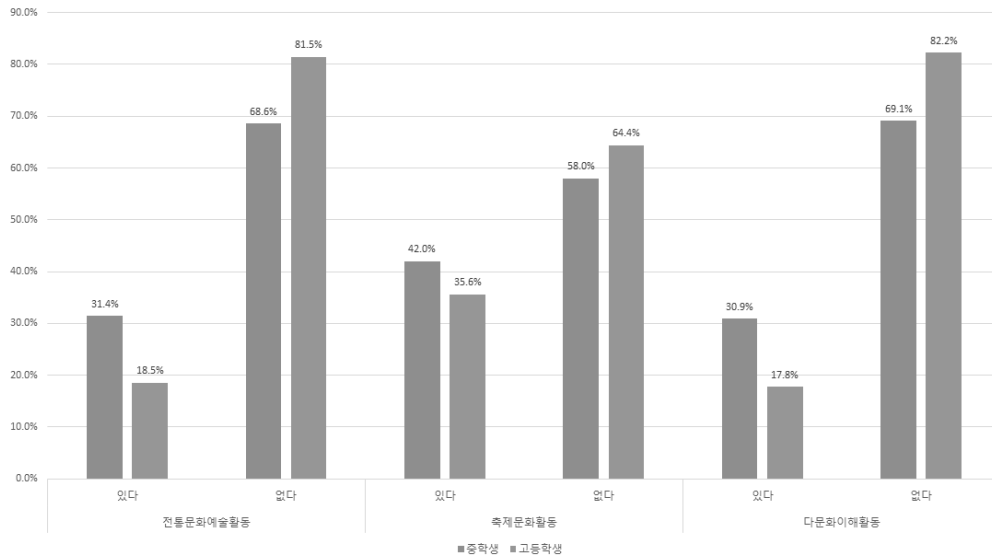
3-3-5 문화예술활동

-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는 참여경험에 있어서 예술체험활동($\chi^2=75.444$, $p<.001$), 축제 문화 활동($\chi^2=27.645$, $p<.001$), 전통문화예술활동($\chi^2=11.085$, $p<.01$), 다문화이해활동($\chi^2=18.235$, $p<.001$)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체험활동은 남성(54.8%), 여성 (75.8%), 축제문화활동은 남성(32.6%), 여성 (45.6%), 전통문화화활동은 남성(21.3%), 여성 (28.6%), 다문화이해활동은 남성(19.7%), 여성 (2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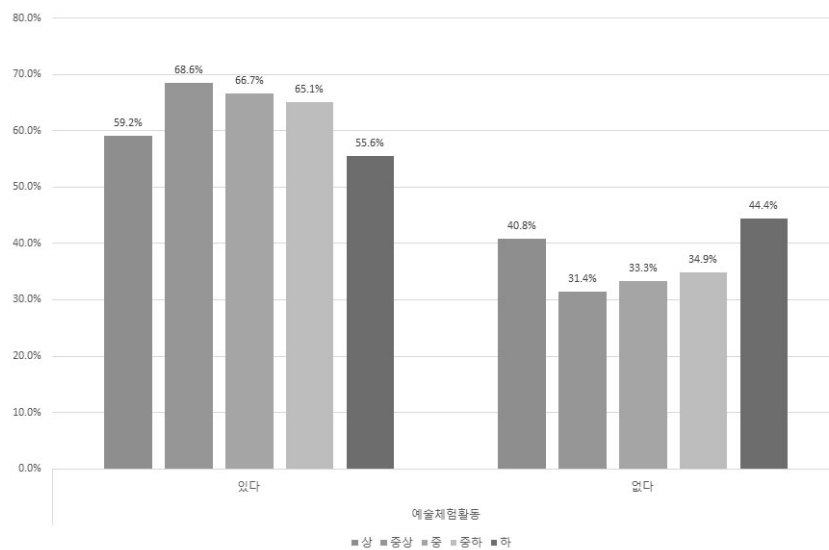
〈그림 92〉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교급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예술활동($\chi^2=35.492$, $p<.001$), 축제 문화활동($\chi^2=32.632$, $p<.001$)과 다문화이해활동($\chi^2=22.003$,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전통문화예술활동은 중학생 31.4%, 고등학생 18.5%, 축제문화활동은 중학생 42.0%, 고등학생은 35.6%, 다문화이해활동은 중학생 30.9%, 고등학생 17.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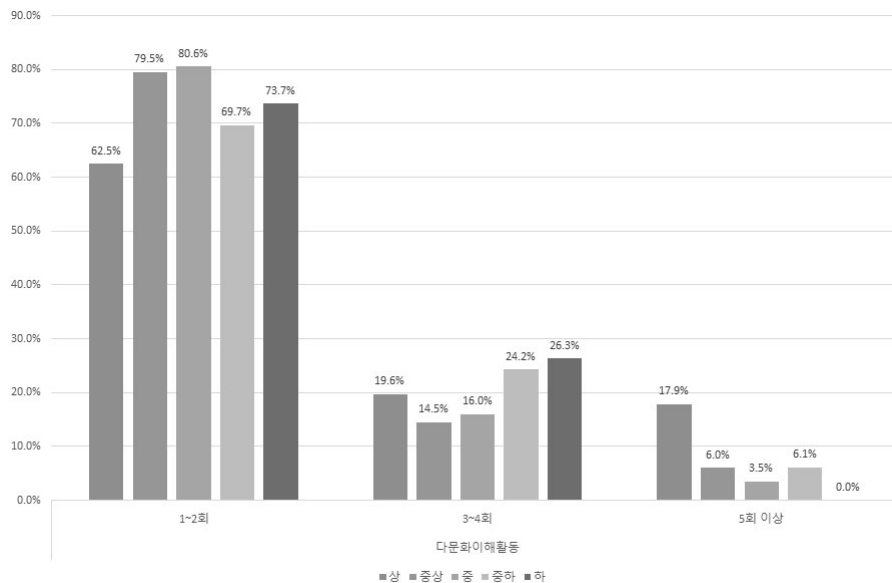
〈그림 93〉 교급별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성적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예술체험활동($\chi^2=9.699$,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예술체험활동은 성적이 상(59.2%), 중상(68.6%), 중(66.7%), 중하(65.1%), 하(55.6%)로 나타남.



〈그림 94〉 성적별 따른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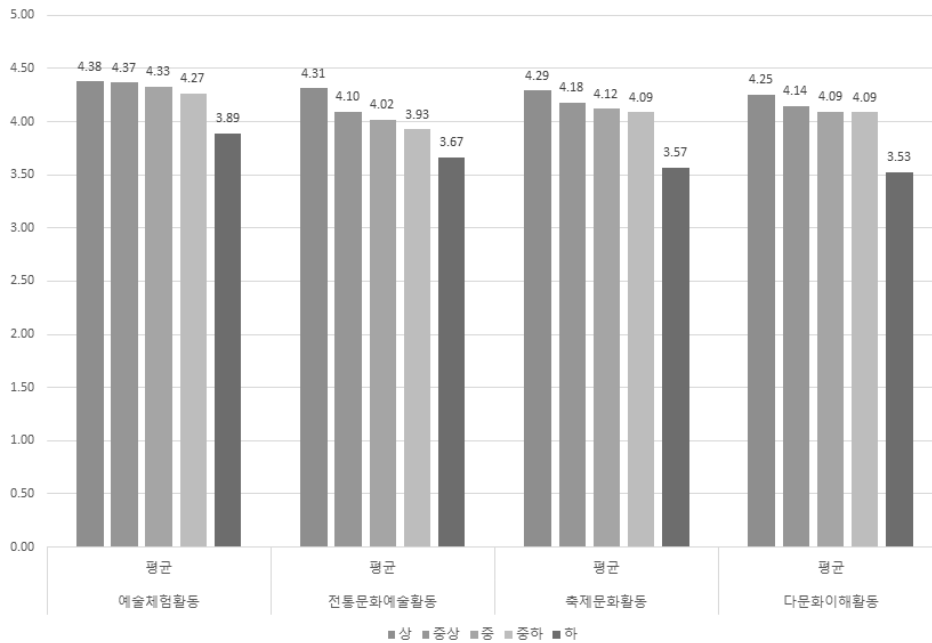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 중 성적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다문화이해활동($\chi^2=22.762$,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다문화이해활동에 있어서는 1~2회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이 상(62.5%), 중상(79.5%), 중(80.6%), 중하(69.7%), 하(73.7%)로 나타남. 3~4회는 성적이 상(19.6%), 중상(14.5%), 중(16.0%), 중하(24.2%), 하(26.3%), 5회 이상은 성적이 상(17.9%), 중상(6.0%), 중(3.5%), 중하(6.1%), 하(0.0%)로 나타남



〈그림 95〉 성적별 따른 다문화이해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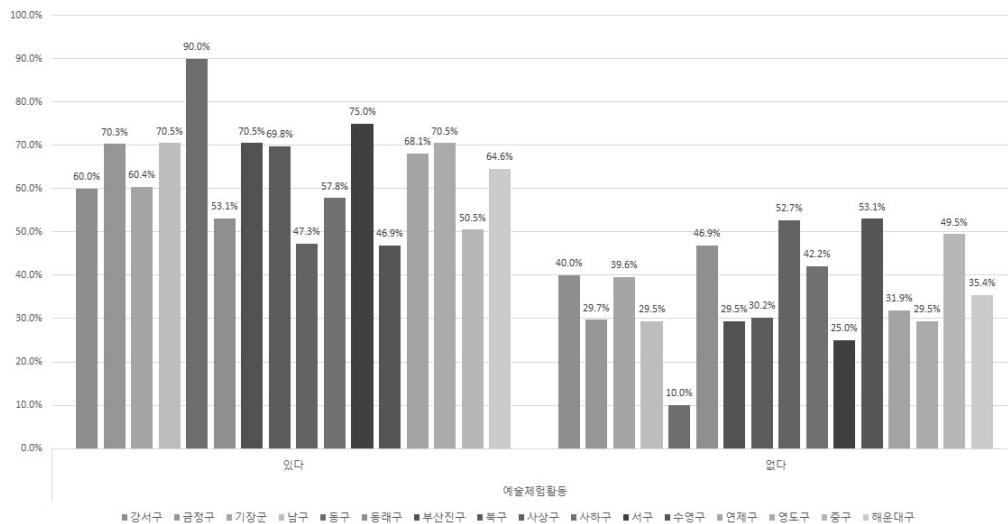
- 문화예술활동 만족도의 경우 성적별 차이에 대해서는 예술체험활동($F=3.792$, $p<.01$), 전통문화예술활동($F=2.944$, $p<.05$), 축제문화활동($F=4.544$, $p<.01$), 다문화이해활동($F=2.963$,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예술체험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38), '중상'(평균 4.37), 중(평균 4.33), 중하(평균 4.27), 하(평균 3.89)로 나타남.
- 전통문화예술활동은 성적 '상'(평균 4.31), '중상'(평균 4.31), 중(평균 4.10), 중하(평균 4.02), 하(평균 3.93)로 나타남.
- 축제문화활동활동은 성적 '상'(평균 3.67), '중상'(평균 4.05), 중(평균 4.29), 중하(평균 4.18), 하(평균 4.12)로 나타남.
- 다문화이해활동은 성적 '상'(평균 4.09), '중상'(평균 3.57), 중(평균 4.13), 중하(평균 4.25), 하(평균 4.14)로 나타남.

2018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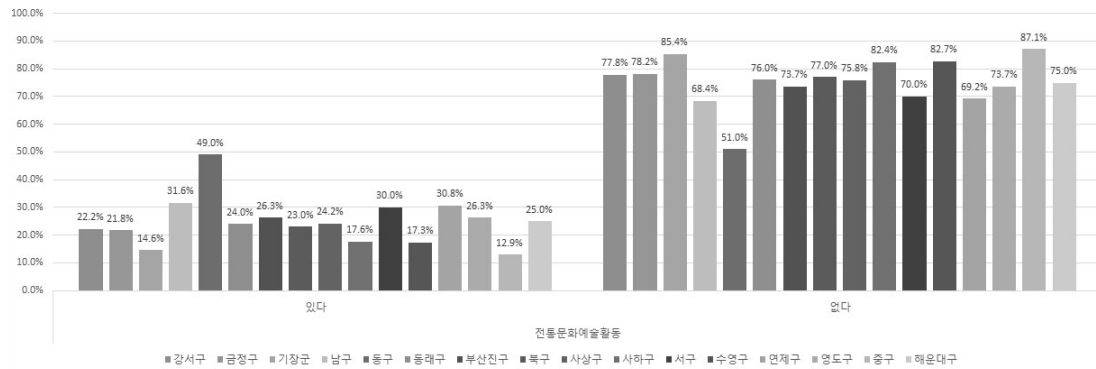
〈그림 96〉 성적별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 지역별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예술체험활동($\chi^2=83.139$, $p<.001$)과 전통문화예술활동($\chi^2=56.454$, $p<.001$), 축제문화활동($\chi^2=33.774$, $p<.01$), 다문화이해활동($\chi^2=64.067$,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예술체험활동은 동구(90.0%), 서구(75.0%), 남구, 부산진구, 영도구(70.5%)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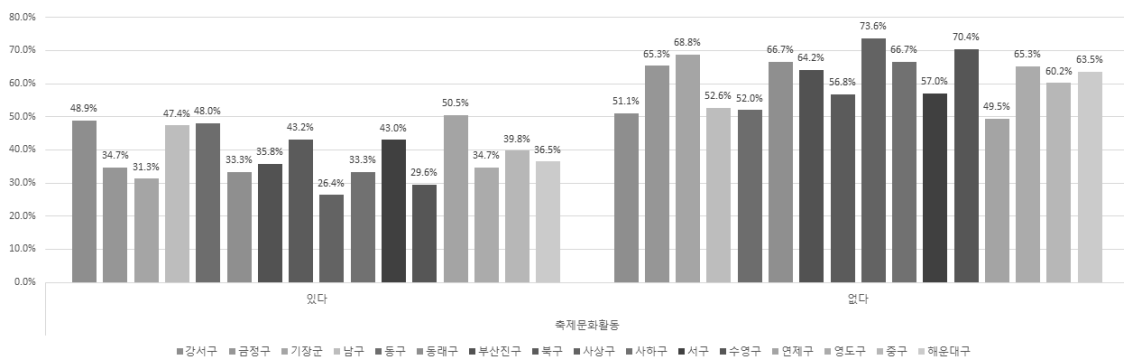
〈그림 97〉 지역별 예술체험활동의 참여경험

- 전통문화예술활동은 동구(49.0%), 남구(31.6%), 연제구(30.8%)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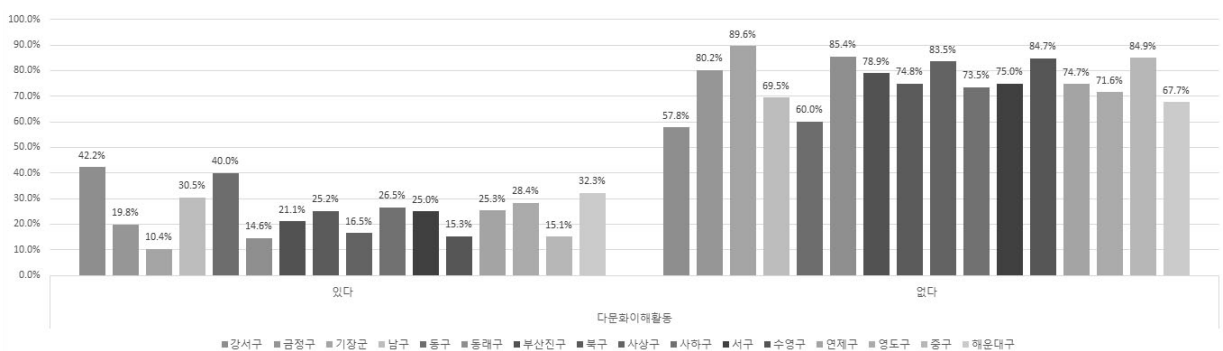
〈그림 98〉 지역별 전통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

- 축제문화활동은 연제구(50.5%), 강서구(48.9%), 동구(48.0%)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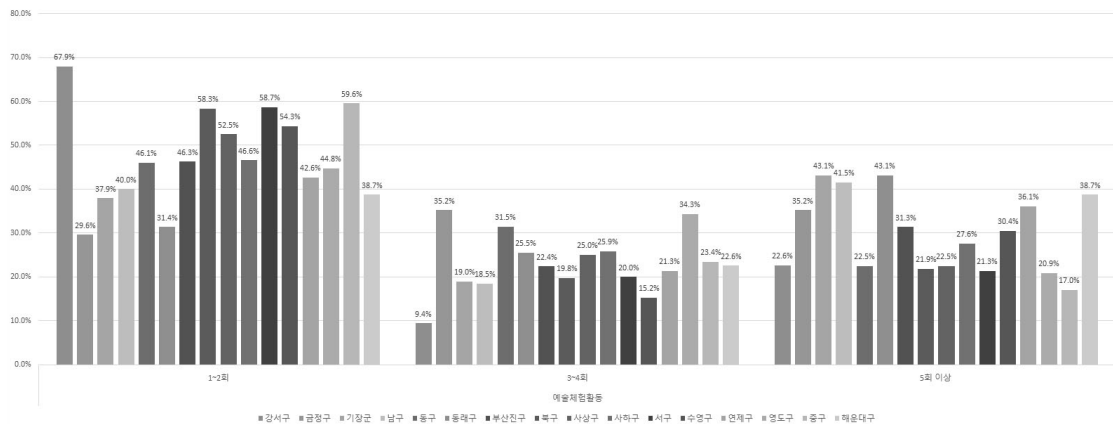
〈그림 99〉 지역별 축제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

- 다문화이해활동은 강서구(42.2%), 동구(40.0%), 해운대구(32.3%)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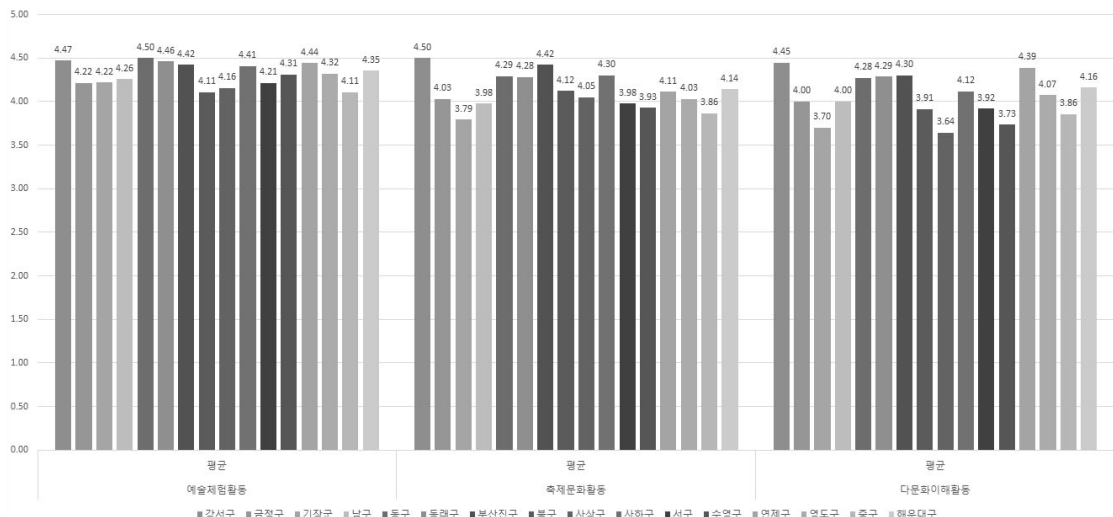
〈그림 100〉 지역별 다문화이해활동의 참여경험

- 문화예술활동 중 지역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예술체험활동($\chi^2=65.031$,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지역별 참여횟수는 예술체험활동의 경우 1~2회는 강서구(67.9%), 중구(59.6%), 북구(58.3%) 순으로 참여회수가 높았고, 3~4회는 금정구(35.2%), 영도구(34.3%), 동구(31.5%), 5회 이상은 기장군, 동래구(43.1%), 남구(41.5%), 해운대구(38.7%)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1〉 지역별 예술체험활동의 참여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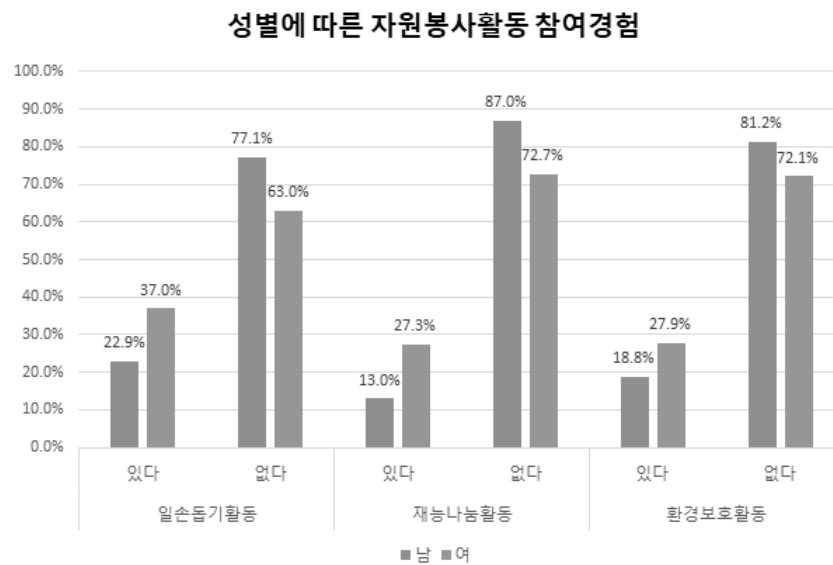
- 지역별 문화예술활동 만족도는 예술체험활동($F=1.712$, $p<.05$), 축제문화활동($F=1.314$, $p<.01$), 다문화이해활동($F=1.967$,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예술체험활동은 동구(평균 4.50), 강서구(평균 4.47), 동래구(평균 4.46), 축제문화활동은 강서구(평균 4.50), 부산진구(평균 4.42), 사하구(평균 4.30), 다문화이해활동은 강서구(평균 4.45), 연제구(평균 4.39), 부산진구(평균 4.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2〉 지역별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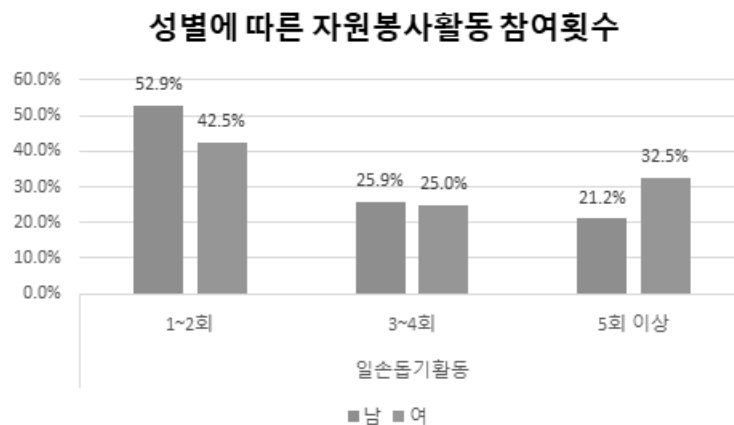
3-3-6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중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일손돕기활동($\chi^2=37.328$, $p<.001$)과 환경보호활동($\chi^2=18.283$, $p<.001$), 재능나눔활동($\chi^2=50.713$, $p<.001$)이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참여 횟수에 대해서는 일손돕기활동($\chi^2=7.676$, $p<.05$)이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참여경험 중 일손돕기활동에 대해서는 남성(22.9%), 여성 (37.0%), 환경보호활동에 대해서는 남성 (18.8%), 여성 (27.9%), 재능나눔활동에 대해서는 남성(13.0%), 여성 (27.3%)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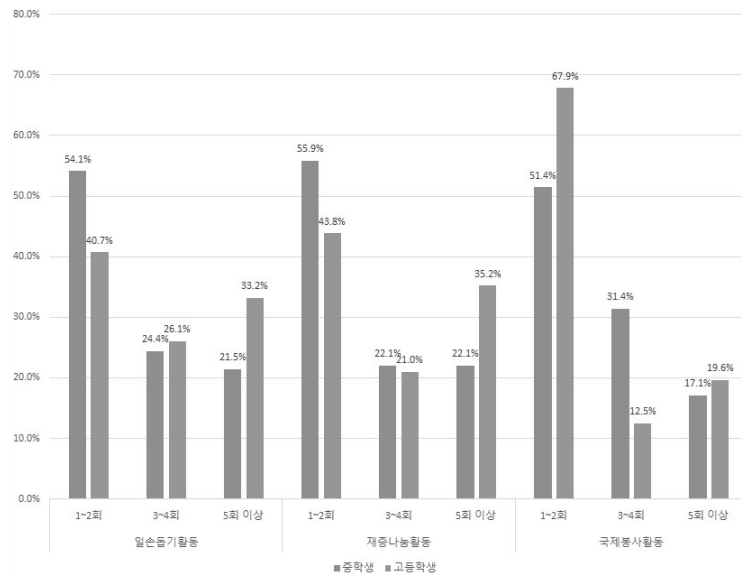
〈그림 103〉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 참여횟수는 일손돕기활동에 있어서 1~2회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성(52.9%), 여성 (42.5%), 3~4회는 남성(25.9%), 여성 (25.0%), 5회 이상은 남성(21.2%), 여성 (32.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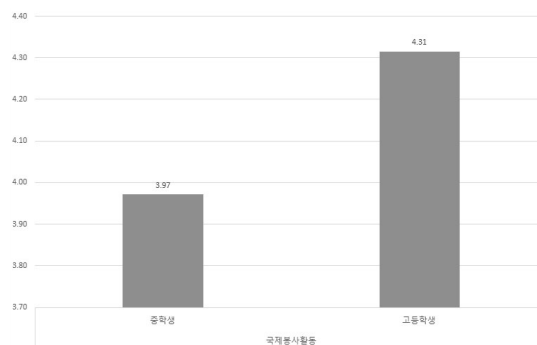
〈그림 104〉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 자원봉사활동 중 교급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일손돕기활동($\chi^2=9.065$, $p<.05$), 재능나눔활동($\chi^2=20.991$, $p<.001$)과 국제봉사활동($\chi^2=12.923$,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일손돕기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54.1%, 고등학생 40.7%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24.4%, 고등학생 26.1%, 5회 이상은 중학생 21.5%, 고등학생 33.2%로 나타남
- 재능나눔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55.9%, 고등학생 43.8%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22.1%, 고등학생 21.0%, 5회 이상은 중학생 22.1%, 고등학생 35.2%로 나타남
- 국제봉사활동은 1~2회 중학생 51.4%, 고등학생 67.9%, 3~4회는 중학생 31.4%, 고등학생 12.5%, 5회 이상은 중학생 17.1%, 고등학생 19.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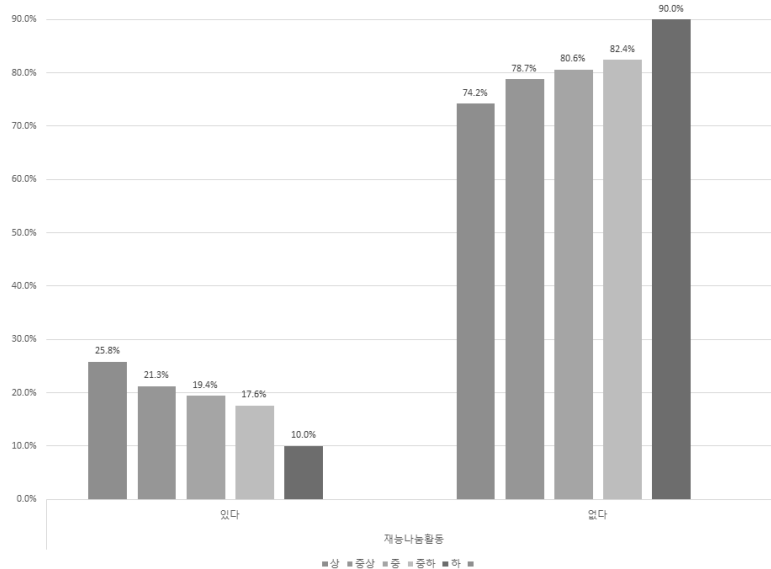
〈그림 105〉 교급별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의 경우 교급별 차이에 대해서는 국제봉사활동에서만 $t=-2.098$, $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중학생 평균 3.97, 고등학생 평균 4.31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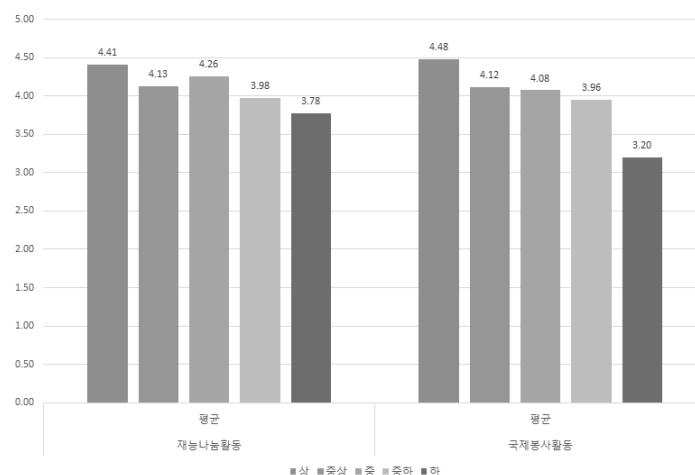
〈그림 106〉 교급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성적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재능나눔활동($\chi^2=12.245$,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재능나눔활동은 성적이 상(25.8%), 중상(21.3%), 중(19.4%), 중하(17.6%), 하(1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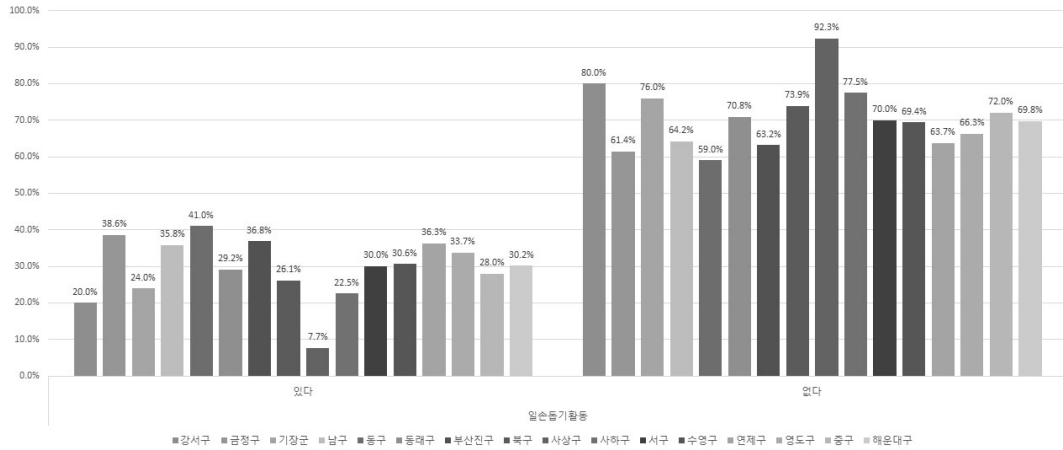
〈그림 107〉 성적별 재능나눔활동 참여경험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경우 성적별 차이에 대해서는 재능나눔활동($F=2.906$, $p<.05$)과 국제봉사활동($F=2.764$,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재능나눔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41), '중상'(평균 4.13), 중(평균 4.26), 중하(평균 3.98), 하(평균 3.78)로 나타남.
- 국제봉사활동은 성적 '상'(평균 4.20), '중상'(평균 4.48), 중(평균 4.12), 중하(평균 4.08), 하(평균 3.9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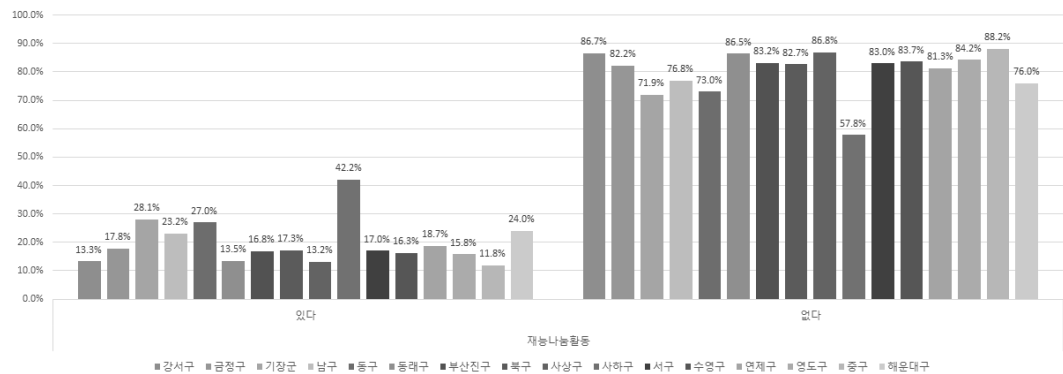
〈그림 108〉 성적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일손돕기활동($\chi^2=47.010$, $p<.001$)과 재능나눔활동($\chi^2=55.7774$, $p<.001$), 환경보호활동($\chi^2=36.774$,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일손돕기활동은 동구(41.0%), 금정구(38.6%), 부산진구(36.8%)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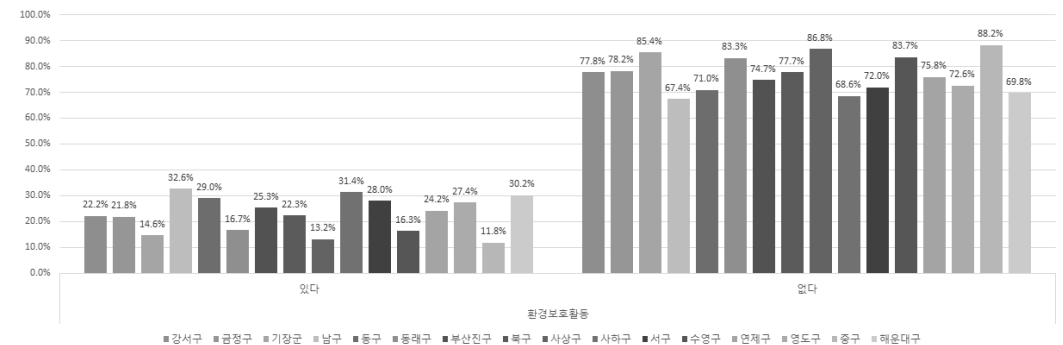
〈그림 109〉 지역별 일손돕기활동 참여경험

- 재능나눔활동은 사하구(42.2%), 기장군(28.1%), 동구(27.0%)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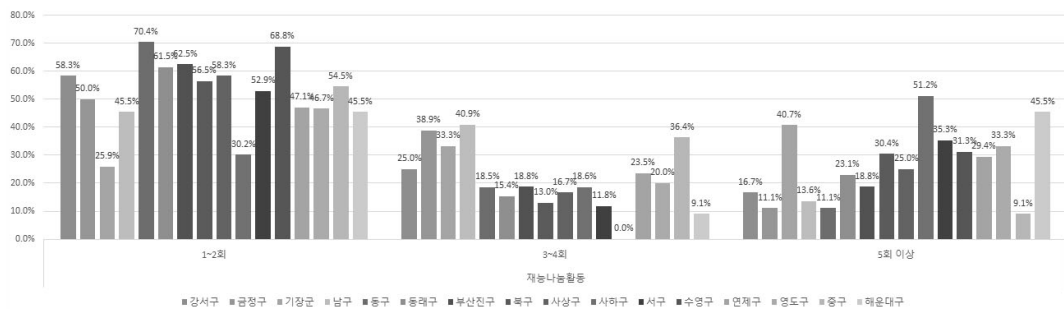
〈그림 110〉 지역별 재능나눔활동 참여경험

- 환경보호활동은 남구(32.6%), 사하구(31.4%), 해운대구(30.2%)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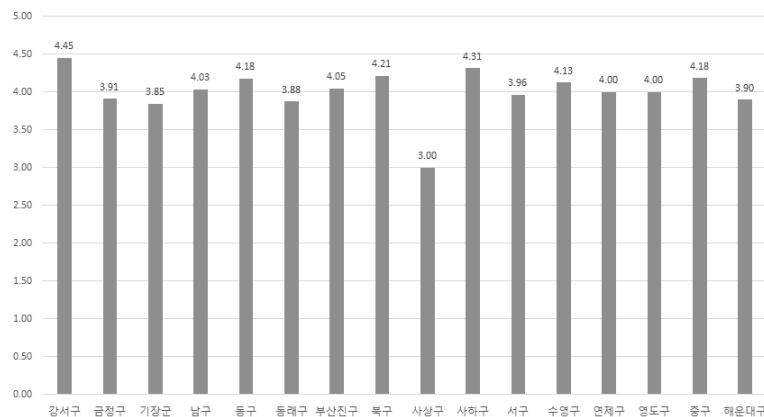
〈그림 111〉 지역별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

- 자원봉사활동 중 지역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재능나눔활동($\chi^2=48.965$,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지역별 참여횟수는 재능나눔활동의 경우 1~2회는 동구(70.4%), 수영구(68.8%), 부산진구(62.5%) 순으로 참여회수가 높았고, 3~4회는 남구(40.9%), 금정구(38.9%), 중구(36.4%), 5회 이상은 사하구(51.2%), 해운대구(45.5%), 기장군(4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2〉 지역별 재능나눔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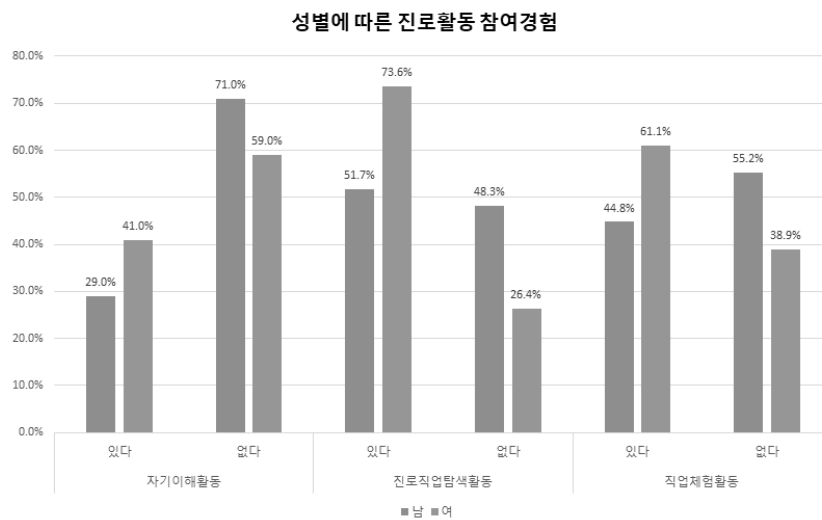
-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환경보호활동($F=1.903$,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환경보호활동은 강서구(평균 4.45), 사하구(평균 4.31), 북구(평균 4.21)순으로 나타남



〈그림 113〉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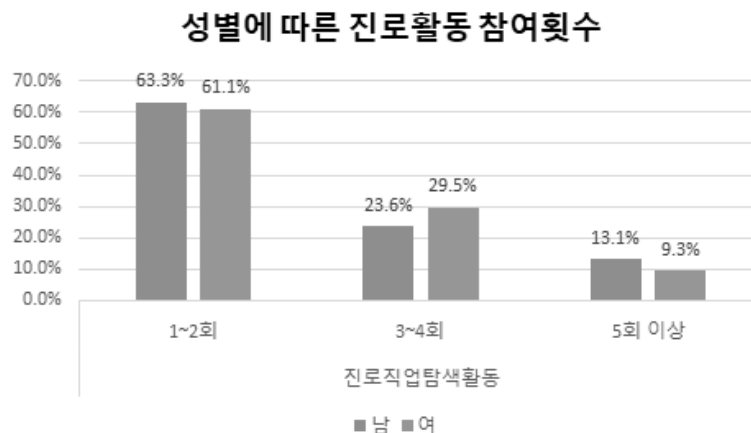
3-3-7 진로활동

- 진로활동 중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자기이해활동($\chi^2=24.615$, $p<.001$)과 직업체험활동($\chi^2=41.666$, $p<.001$), 진로직업탐색활동($\chi^2=79.116$, $p<.001$)이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참여 횟수에 대해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chi^2=6.317$, $p<.05$)이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진로활동 만족도는 자기이해활동에 대해서 $t=2.412$, $p<.05$ 로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참여경험에 있어서는 자기이해활동에 대해서는 남성(29.0%), 여성 (41.0%), 직업체험활동에 대해서는 남성(44.8%), 여성 (61.1%), 진로직업탐색활동에 대해서는 남성(51.7%), 여성 (73.6%) 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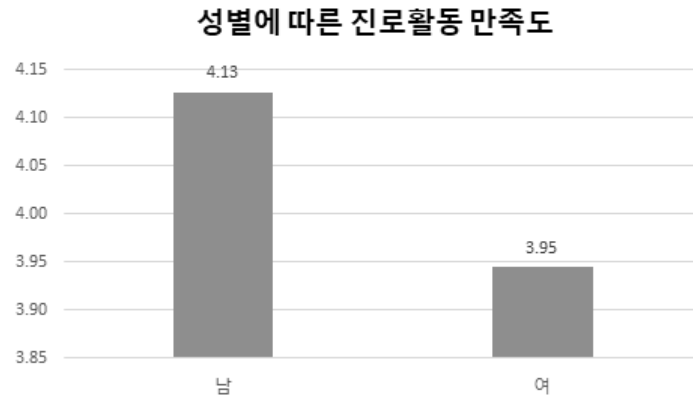
〈그림 114〉 성별에 따른 진로활동 참여경험

- 참여 회수에 있어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에 있어서 1~2회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성(63.3%), 여성 (61.1%), 3~4회는 남성(23.6%), 여성 (29.5%), 5회 이상은 남성(13.1%), 여성 (9.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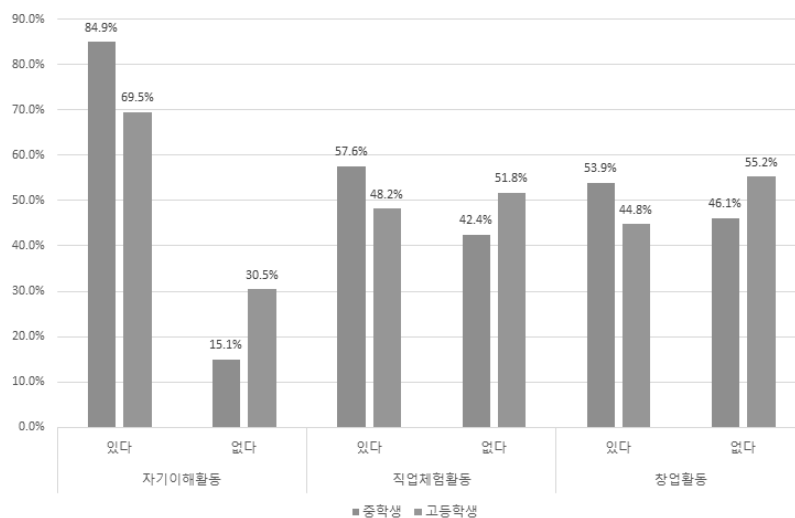
〈그림 115〉 성별에 따른 진로활동 참여횟수

- 진로활동 만족도는 자기이해활동에 대해서 $t=2.412$, $p<.05$ 로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 평균 만족도 4.13, 여자 3.95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6〉 성별에 따른 진로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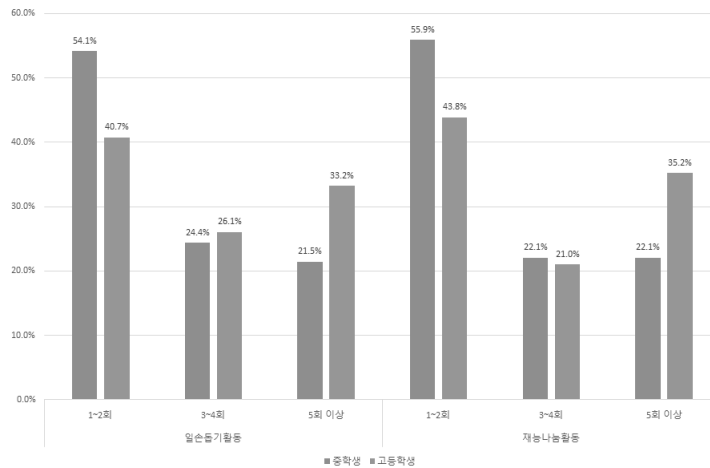
- 진로활동에 있어서 교급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자기이해활동($\chi^2=18.827$, $p<.001$), 직업체험활동($\chi^2=36.416$, $p<.001$)과 창업활동($\chi^2=25.333$,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자기이해활동은 중학생 40.0%, 고등학생 29.6%, 직업체험활동은 중학생 60.2%, 고등학생은 45.0%, 창업활동은 중학생 16.1%, 고등학생 7.9%로 나타남



〈그림 117〉 교급별 진로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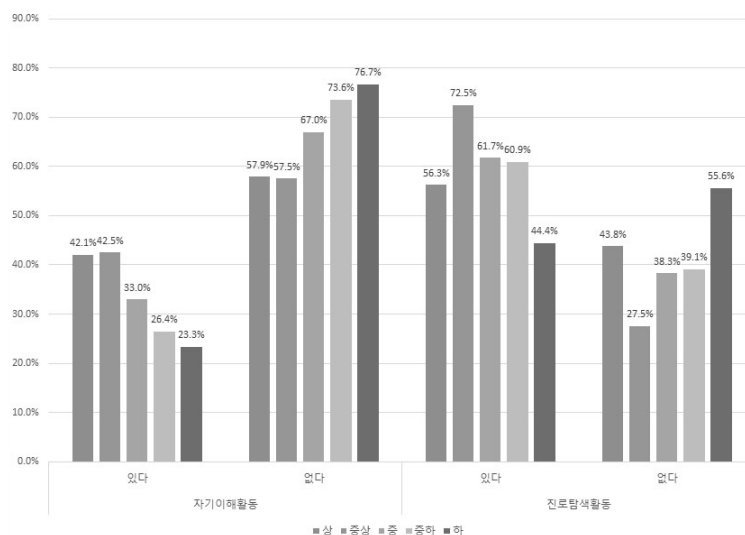
- 진로활동 중 교급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일손돕기활동($\chi^2=7.347$, $p<.05$), 재능나눔활동($\chi^2=18.559$,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일손돕기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62.2%, 고등학생 67.1%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19.4%, 고등학생 22.8%, 5회 이상은 중학생 18.4%, 고등학생 10.15%로 나타남

- 재능나눔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64.0%, 고등학생 77.7%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27.1%, 고등학생 17.6%, 5회 이상은 중학생 8.9%, 고등학생 4.7%로 나타남



〈그림 118〉 교급별 진로활동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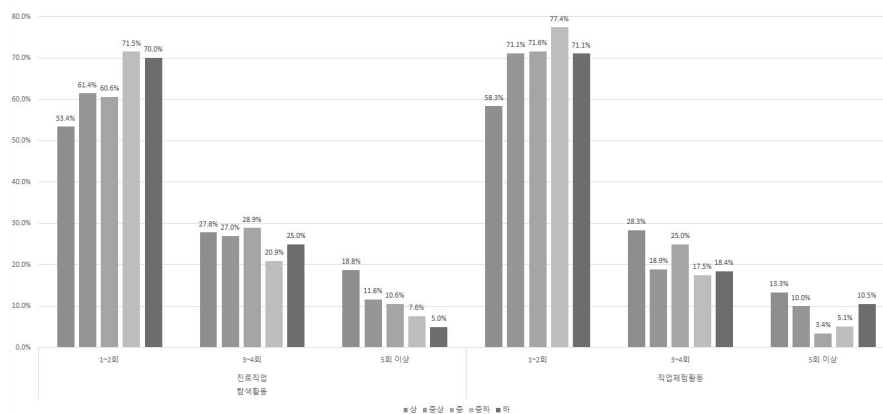
- 진로활동에 있어서 성적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자기이해활동($\chi^2=13.586$, $p<.01$)과 진로탐색활동($\chi^2=9.550$,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자기이해활동은 성적이 상(42.1%), 중상(42.5%), 중(33.0%), 중하(26.4%), 하(23.3%), 진로탐색활동은 성적이 상(56.3%), 중상(61.7%), 중(60.9%), 중하(44.4%), 하(43.8%)로 나타남.



〈그림 119〉 성적별 진로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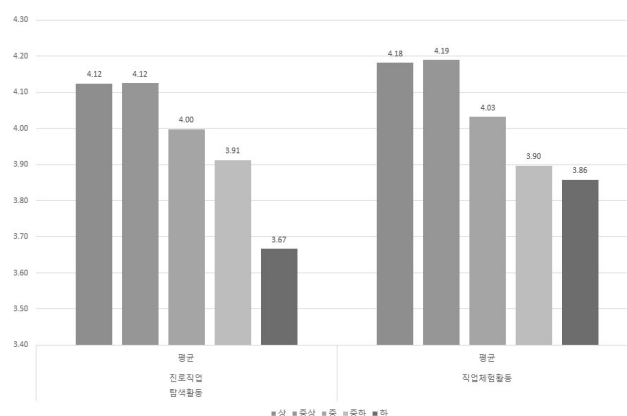
- 진로활동 중 성적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chi^2=13.586$, $p<.01$)과 직업체험활동($\chi^2=9.550$,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진로직업탐색활동에 있어서는 1~2회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이 상(53.4%), 중상(61.4%), 중(60.6%), 중하(71.5%), 하(70.0%)로 나타남. 3~4회는 성적이 상(27.8%), 중상(27.0%), 중(28.9%), 중하(20.9%), 하(25.0%), 5회 이상은 성적이 상(18.8%), 중상(11.6%), 중(10.6%), 중하(7.6%), 하(5.0%)로 나타남.
- 직업체험활동에 있어서는 1~2회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이 상(58.3%), 중상(71.1%), 중(71.6%), 중하(77.4%), 하(71.1%)로 나타남. 3~4회는 성적이 상(28.3%), 중상(18.9%), 중(25.0%), 중하(17.5%), 하(18.4%), 5회 이상은 성적이 상(13.3%), 중상(10.0%), 중(3.4%), 중하(5.1%), 하(1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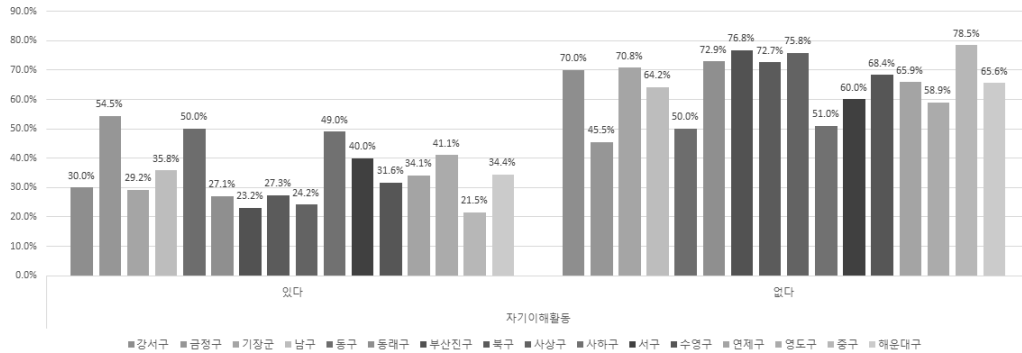
〈그림 120〉 성적별 진로활동 참여횟수

- 진로활동 만족도의 경우 성적별 차이에 대해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F=3.990$, $p<.01$)과 직업체험활동($F=3.634$,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진로직업탐색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12), '중상'(평균 4.12), 중(평균 4.00), 중하(평균 3.91), 하(평균 3.67)로 나타남.
- 직업체험활동은 성적 '상'(평균 4.02), '중상'(평균 4.18), 중(평균 4.19), 중하(평균 4.03), 하(평균 3.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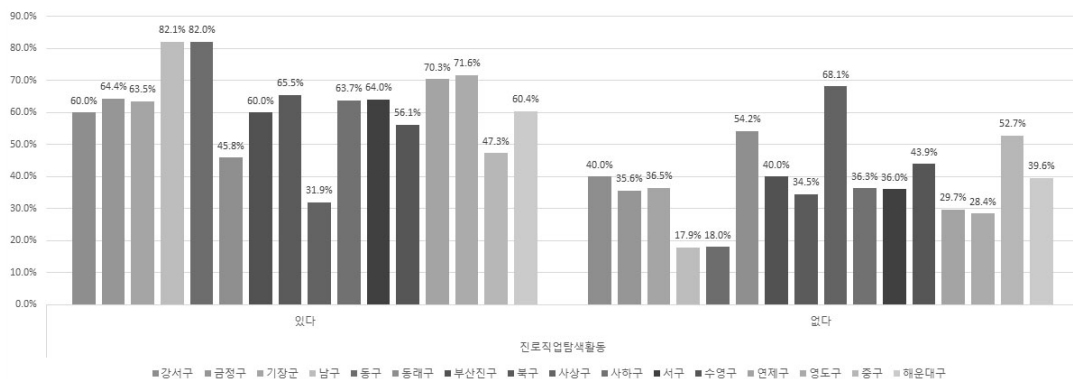
〈그림 121〉 성적별 진로활동 만족도

- 지역별 진로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자기이해활동($\chi^2=65.584$, $p<.001$)과 진로직업탐색활동($\chi^2=97.127$, $p<.001$), 창업활동($\chi^2=32.208$,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자기이해활동은 금정구(54.5%), 동구(50.0%), 사하구(49.0%)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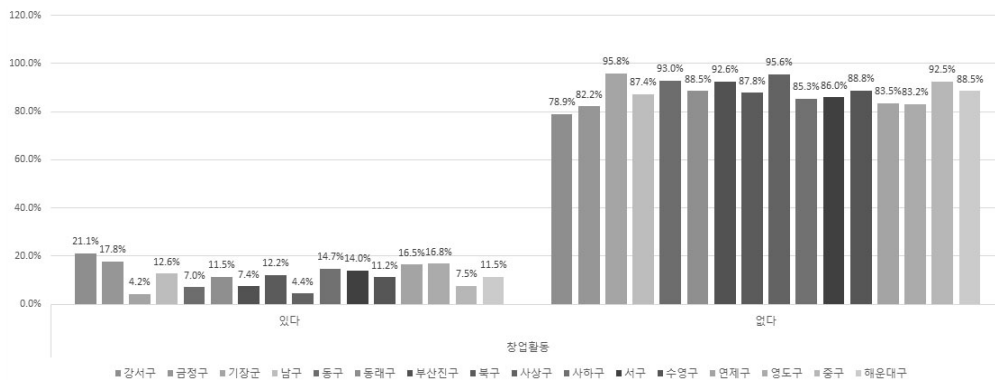
〈그림 122〉 지역별 자기이해활동 참여경험

- 진로직업탐색활동은 남구(82.1%), 동구(82.0%), 영도구(71.6%)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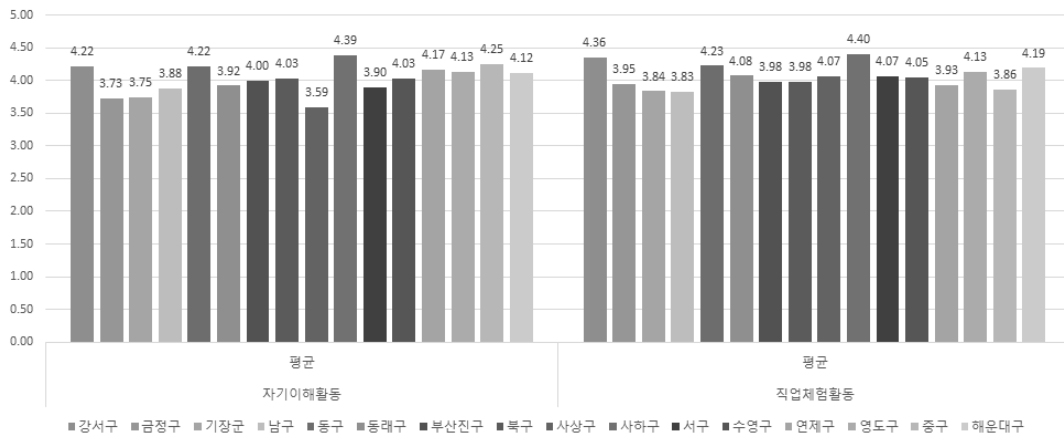
〈그림 123〉 지역별 진로직업탐색활동 참여경험

- 창업활동은 강서구(21.1%), 금정구(17.8%), 영도구(16.8%)가 참여경험이 높음.



〈그림 124〉 지역별 창업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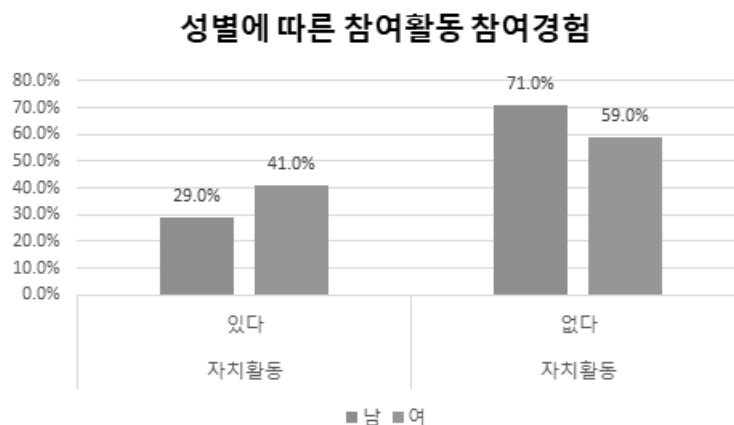
- 지역별 진로활동 만족도는 자기이해활동($F=2.228$, $p<.01$)과 직업체험활동($F=2.174$,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자기이해활동은 사하구(평균 4.39), 중구(평균 4.25), 동구, 강서구(평균 4.22), 직업 체험활동은 사하구(평균 4.40), 강서구(평균 4.36), 동구(평균 4.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5〉 지역별 진로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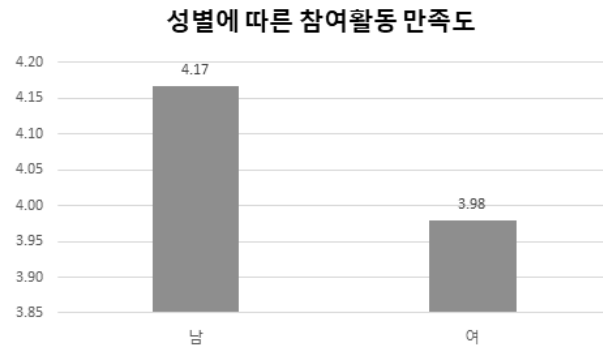
3-3-8 참여활동

- 참여활동 중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자치활동($\chi^2=23.188$, $p<.001$)이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만족도는 인권개선활동에 대해서 $t=2.024$, $p<.05$ 로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참여경험에 있어서는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남성(60.4%), 여성 (72.0%)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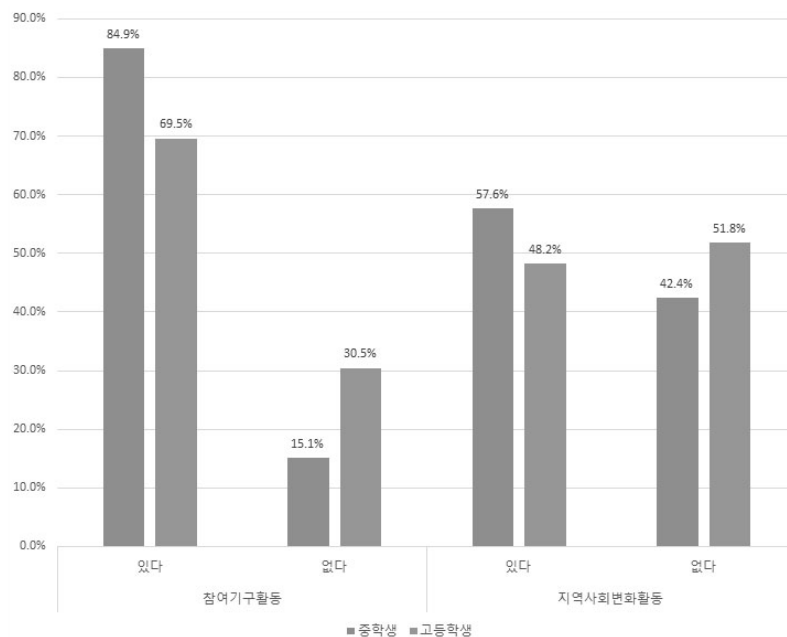
〈그림 126〉 성별에 따른 참여활동 참여경험

- 참여활동 만족도는 남자 평균 4.29 여자 평균 3.97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7〉 성별에 따른 참여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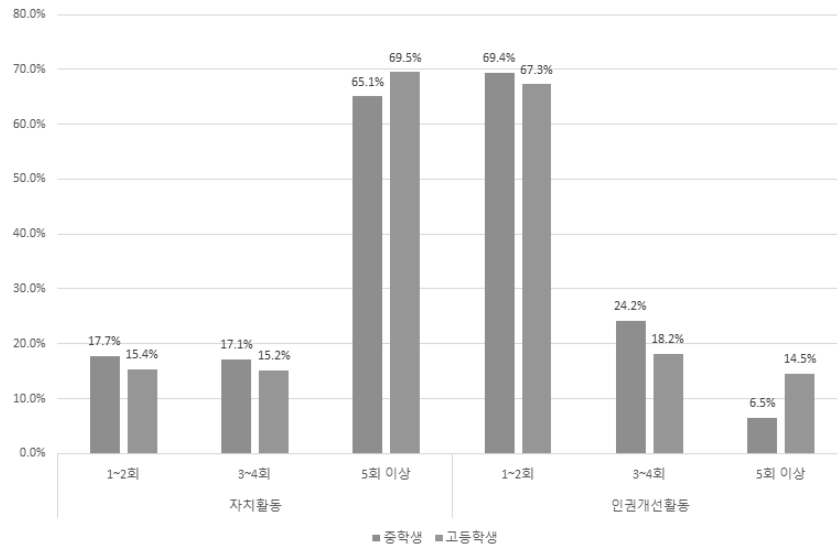
- 참여활동에 있어서 교급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참여기구활동($\chi^2=11.402$, $p<.01$), 지역사회변화활동($\chi^2=13.016$,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참여기구활동은 중학생 14.95%, 고등학생 9.4%, - 지역사회변화활동은 중학생 8.6%, 고등학생은 14.4% 로 나타남



〈그림 128〉 교급별 참여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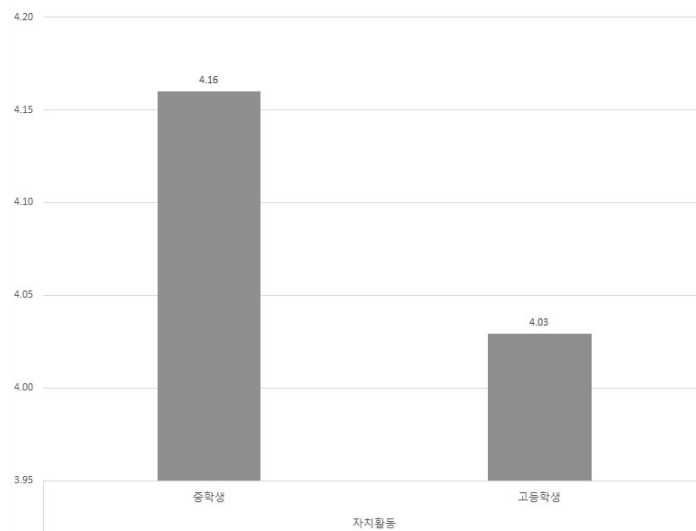
- 참여활동 중 교급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자치활동($\chi^2=9.647$, $p<.05$), 인권개선활동($\chi^2=9.315$,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자치활동에 있어서는 5회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65.1%, 고등학생 73.6%, 1~2회는 중학생 17.7%, 고등학생 13.1%, 3~4회는 중학생 17.1%, 고등학생 13.3%, 로 나타남

- 인권개선활동에 있어서는 1~2회 참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69.4%, 고등학생 64.6%로 나타남. 3~4회는 중학생 24.2%, 고등학생 10.4%, 5회 이상은 중학생 6.5%, 고등학생 2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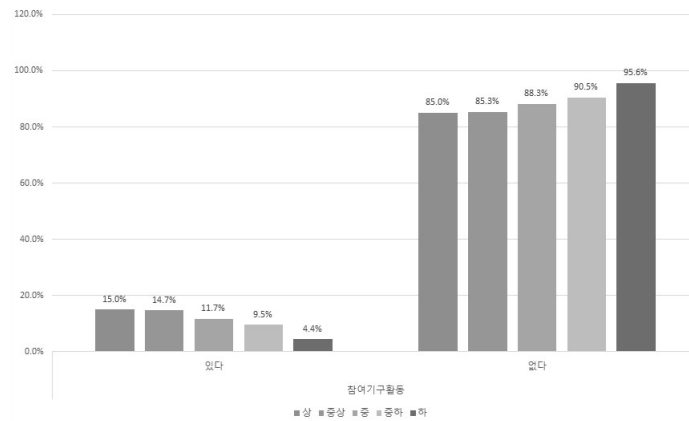
〈그림 129〉 교급별 참여활동 참여횟수

- 참여활동의 만족도의 경우 교급별차이에 대해서는 자치활동이 $t=2.341$, $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중학생 평균 4.16, 고등학생 평균 4.03로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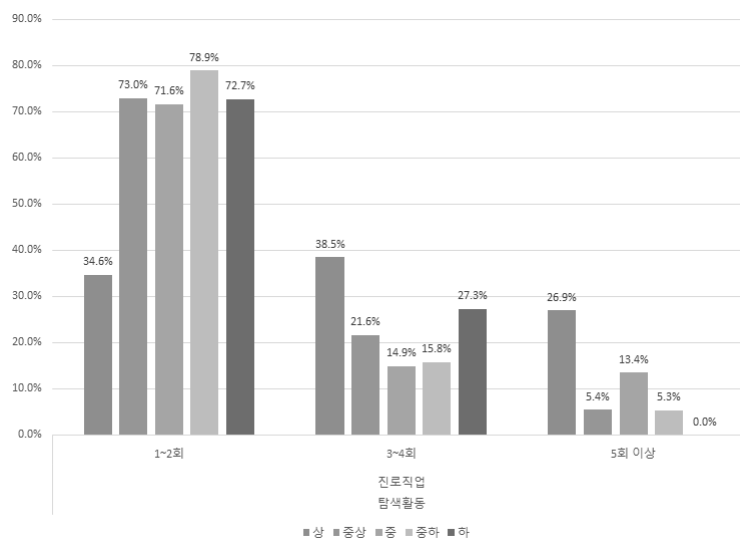
〈그림 130〉 교급별 참여활동 만족도

- 참여활동에 있어서 성적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참여기구활동($\chi^2=10.840$, $p<.05$),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참여기구활동은 성적이 상(15.0%), 중상(14.7%), 중(11.7%), 중하(9.5%), 하(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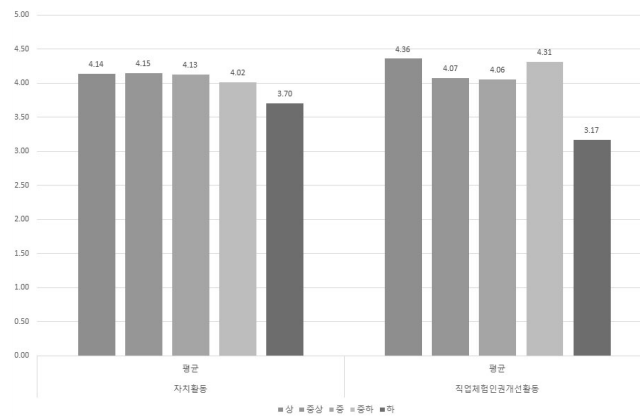
〈그림 131〉 교급별 참여활동 만족도

- 참여활동 중 성적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chi^2=20.554$, $p<.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진로직업탐색에 있어서 1~2회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이 상(34.6%), 중상(73.0%), 중(71.6%), 중하(78.9%), 하(72.7%)로 나타남. 3~4회는 성적이 상(38.5%), 중상(21.6%), 중(14.9%), 중하(15.8%), 하(27.3%), 5회 이상은 성적이 상(26.9%), 중상(5.4%), 중(13.4%), 중하(5.3%), 하(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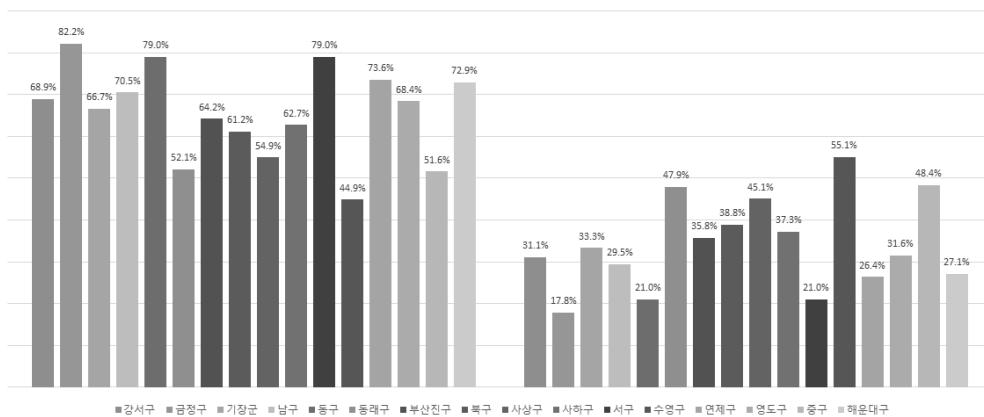
〈그림 132〉 성적별 진로직업탐색활동 참여횟수

- 참여활동 만족도의 경우 성적별 차이에 대해서는 자치활동($F=3.047$, $p<.05$)과 인권개선활동($F=2.783$,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자치활동의 경우 성적 '상'(평균 4.14), '중상'(평균 4.15), 중(평균 4.13), 중하(평균 4.02), 하(평균 3.70)로 나타남.
- 인권개선활동은 성적 '상'(평균 4.09), '중상'(평균 4.12), 중(평균 4.16), 중하(평균 4.08), 하(평균 4.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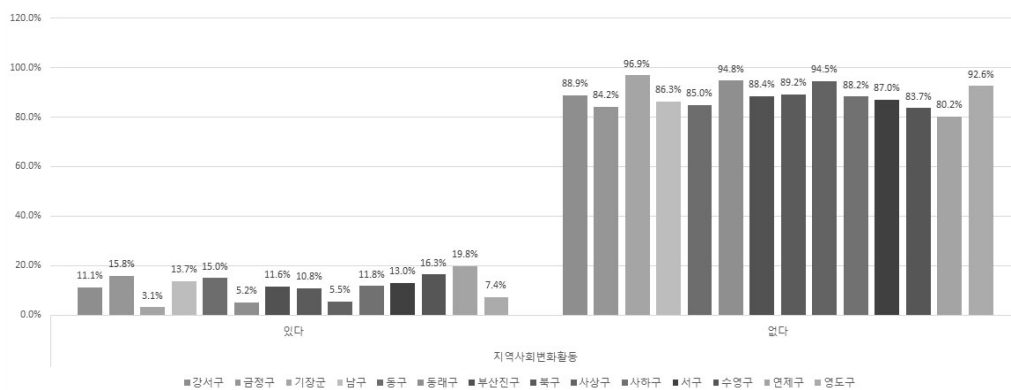
〈그림 133〉 성적별 참여활동 만족도

- 지역별 참여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자치활동($\chi^2=75.797$, $p<.001$)과 지역사회변화활동($\chi^2=29.053$,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자치활동은 금정구(82.2%), 동구, 서구(79.0%), 연제구(73.6%)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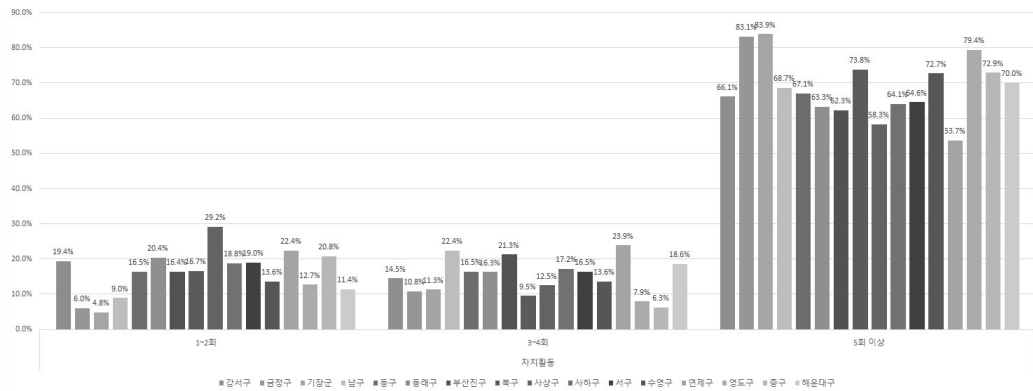
〈그림 134〉 지역별 자치활동 참여경험

- 지역사회변화활동은 연제구(19.8%), 수영구(16.3%), 금정구(15.8%)가 참여경험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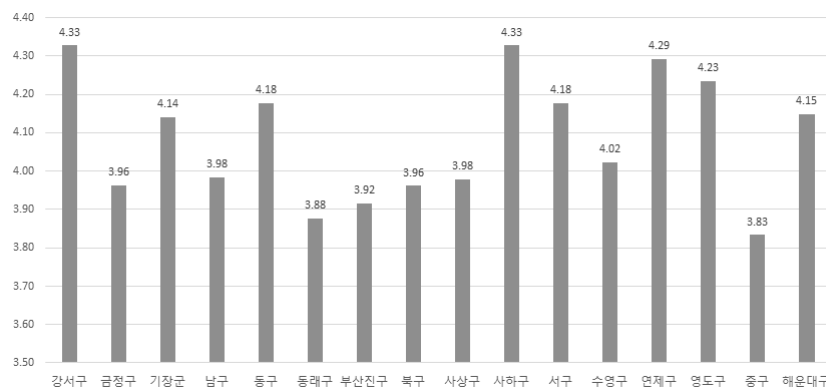
〈그림 135〉 지역별 지역사회변화활동 참여경험

- 참여활동 중 지역별 참여횟수에 있어서는 자치활동($\chi^2=50.113$,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지역별 참여횟수는 자치활동의 경우 1~2회는 사상구(29.2%), 연제구(22.4%), 중구(20.8%) 순으로 참여회수가 높았고, 3~4회는 연제구(23.9%), 남구(22.4%), 부산진구(21.3%), 5회 이상은 기장군(83.9%), 금정구(83.1%), 영도구(79.4%)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6〉 지역별 자치활동 참여경험

- 지역별 참여활동 만족도는 자치활동($F=2.045$,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자치활동은 강서구, 사하구(평균 4.33), 연제구(평균 4.29), 영도구(평균 4.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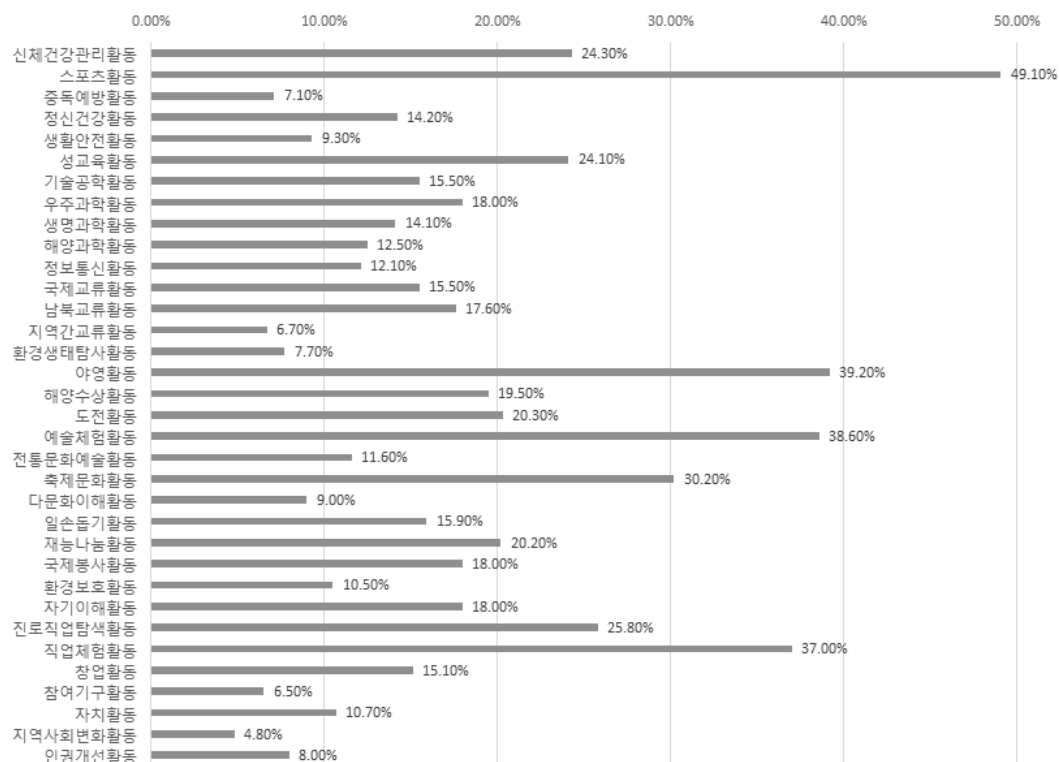
〈그림 137〉 지역별 참여활동 만족

4.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실태

5. 청소년활동 참여요구

5-1 청소년활동 참여희망(전체)

-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4개 활동 중 스포츠 활동이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야영활동(39.2%), 예술체험활동(38.6%), 직업체험활동(37.0%), 축제문화활동(30.2%), 진로직업탐색활동(25.8%), 신체건강관리활동(24.3%), 성교육활동(24.1%) 도전활동(20.3%) 재능나눔활동(20.2%) 순으로 나타남
- 참여희망이 가장 낮은 영역은 지역사회변화활동(4.8%)이었고 다음으로는 참여기구활동(6.5%), 지역간교류활동(6.7%), 중독예방활동(7.1%), 환경생태탐사활동(7.7%), 인권개선활동(8.0%), 다문화이해활동(9.0%), 생활안전활동(9.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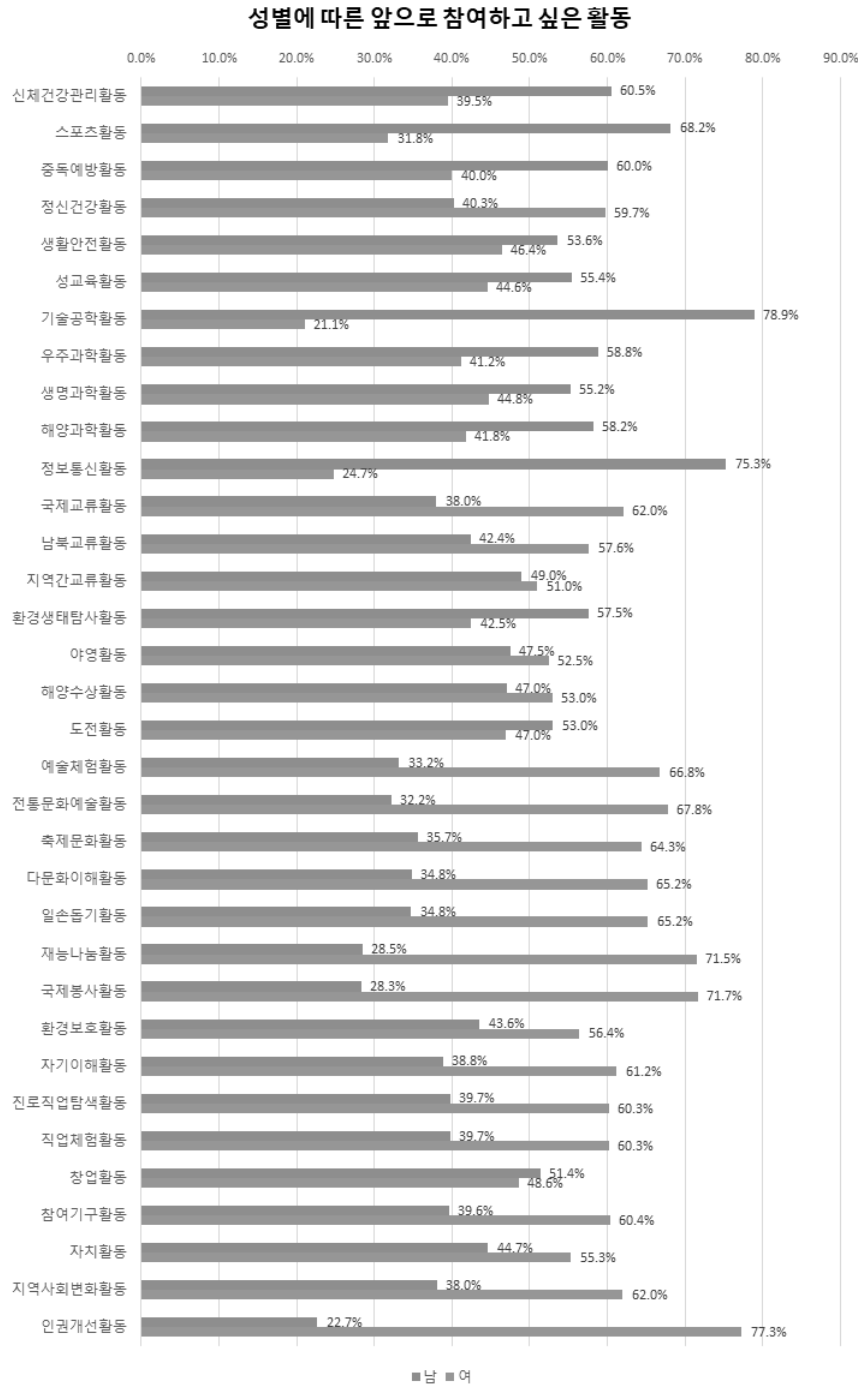


〈그림 138〉 청소년활동 참여희망

5-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비교(성별/학교 성적/교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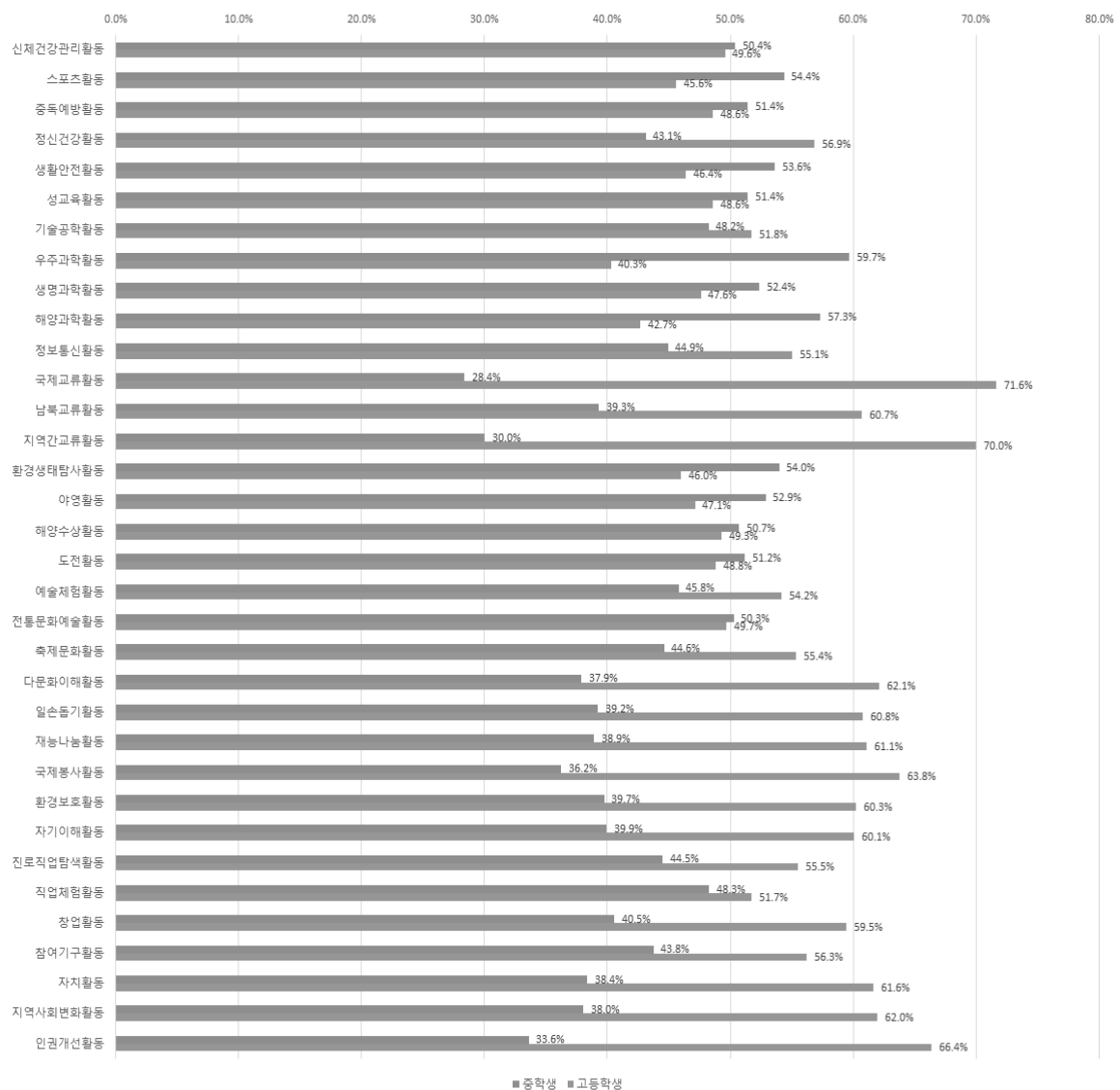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희망활동은 남성의 경우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4개 활동 중 기술공학활동이 7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정보통신활동(75.3%), 스포츠활동(68.2%), 신체건강관리활동(60.5%), 중독예방활동(60.0%) 순으로 나타남

- 참여희망이 가장 낮은 활동은 인권개선활동(22.7%)이었고 다음으로는 국제봉사활동(28.3%), 재능나눔활동(28.5%)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인권개선활동이 7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제봉사활동(71.7%), 재능나눔활동(71.5%), 전통문화예술활동(67.8%), 예술체험활동(66.8%) 순으로 나타남
- 참여희망이 가장 낮은 활동은 기술공학활동(21.1%)이었고 다음으로는 정보통신활동(24.7%), 스포츠활동(31.8%)순으로 나타남



〈그림 139〉 성별에 따른 청소년활동 참여희망

- 교급별에 참여희망 활동은 중학생의 경우 전체 34개 활동 중 우주과학활동이 5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해양과학활동(57.3%), 스포츠활동(54.4%), 환경생태탐사활동(54.0%), 생활안전활동(53.6%) 순으로 나타남
- 참여희망이 가장 낮은 활동은 국제교류활동(28.4%)이었고 다음으로 지역간교류활동(30.3%), 인권개선활동(33.6%)순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 국제교류활동이 7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지역간교류활동(70.0%), 인권개선활동(66.4%), 국제봉사활동(63.8%), 다문화이해활동(62.1%) 순으로 나타남
- 참여희망이 가장 낮은 활동은 우주과학활동(40.3%)이었고 다음으로 해양과학활동(42.7%), 스포츠활동(45.6%)순으로 나타남



〈그림 140〉 교급별 청소년활동 참여희망

- 지역별에 참여희망 활동은 전체 34개 활동 중 강서구에서는 기술공학활동(8.7%), 금정구에서는 생활안전활동(10.9%), 기장군에서는 남북교류활동(11.5%), 남구에서는 환경보호활동(10.3%), 동구에서는 국제봉사활동(13.1%), 동래구에서는 생활안전활동(10.1%)과 성교육활동(10.1%), 부산진구에서는 국제봉사활동(9.0%), 북구에서는 자치활동(14.5%), 사상구에서는 중독예방활동(8.5%), 사하구에서는 우주과학활동(11.2%), 서구에서는 인권개선활동(10.9%), 수영구에서는 정보통신활동(11.7%), 연제구에서는 국제교류활동(10.9%), 영도구에서는 참여기구활동(11.5%), 중구에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6.3%), 해운대구에서는 환경보호활동(12.2%) 이 가장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으로 나타남.

〈표 3〉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신체건강관리활동	19 5.3%	26 7.2%	17 4.7%	22 6.1%	16 4.4%	23 6.4%	22 6.1%	38 10.5%	14 3.9%	27 7.5%	26 7.2%	25 6.9%	29 8.0%	15 4.2%	21 5.8%	21 5.8%
스포츠활동	49 6.7%	39 5.3%	31 4.3%	41 5.6%	39 5.3%	61 8.4%	30 4.1%	55 7.5%	41 5.6%	51 7.0%	46 6.3%	50 6.9%	55 7.5%	51 7.0%	43 5.9%	47 6.4%
중독예방활동	5 4.7%	9 8.5%	3 2.8%	3 2.8%	7 6.6%	9 8.5%	7 6.6%	10 9.4%	9 8.5%	7 6.6%	10 9.4%	4 3.8%	6 5.7%	4 3.8%	4 3.8%	9 8.5%
정신건강활동	6 2.8%	18 8.5%	15 7.1%	17 8.1%	17 8.1%	16 7.6%	14 6.6%	22 10.4%	7 3.3%	10 4.7%	15 7.1%	12 5.7%	8 3.8%	3 1.4%	11 5.2%	20 9.5%
생활안전활동	6 4.3%	15 10.9%	7 5.1%	11 8.0%	11 8.0%	14 10.1%	4 2.9%	12 8.7%	8 5.8%	7 5.1%	8 5.8%	7 5.1%	8 5.8%	5 3.6%	4 2.9%	11 8.0%
성교육활동	20 5.6%	28 7.8%	18 5.0%	17 4.7%	28 7.8%	36 10.1%	17 4.7%	30 8.4%	19 5.3%	13 3.6%	31 8.7%	23 6.4%	22 6.1%	17 4.7%	20 5.6%	19 5.3%
기술공학활동	20 8.7%	10 4.3%	16 7.0%	13 5.7%	8 3.5%	19 8.3%	6 2.6%	22 9.6%	10 4.3%	24 10.4%	18 7.8%	26 11.3%	12 5.2%	11 4.8%	5 2.2%	10 4.3%
우주과학활동	15 5.6%	14 5.2%	16 6.0%	19 7.1%	16 6.0%	13 4.9%	8 3.0%	24 9.0%	16 6.0%	30 11.2%	14 5.2%	20 7.5%	14 5.2%	15 5.6%	9 3.4%	24 9.0%
생명과학활동	5 2.4%	9 4.3%	11 5.2%	18 8.6%	18 8.6%	16 7.6%	8 3.8%	17 8.1%	8 3.8%	19 9.0%	12 5.7%	20 9.5%	8 3.8%	12 5.7%	7 3.3%	22 10.5%
해양과학활동	11 5.9%	12 6.5%	8 4.3%	16 8.6%	10 5.4%	14 7.6%	4 2.2%	14 7.6%	7 3.8%	20 10.8%	14 7.6%	10 5.4%	9 4.9%	10 5.4%	7 3.8%	19 10.3%
정보통신활동	4 2.2%	10 5.6%	9 5.0%	11 6.1%	4 2.2%	16 8.9%	3 1.7%	17 9.5%	12 6.7%	19 10.6%	15 8.4%	21 11.7%	10 5.6%	7 3.9%	5 2.8%	16 8.9%

〈표 3 연속〉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국제 교류 활동	7 3.0%	16 7.0%	19 8.3%	13 5.7%	18 7.8%	9 3.9%	16 7.0%	28 12.2%	6 2.6%	19 8.3%	17 7.4%	11 4.8%	25 10.9%	10 4.3%	4 1.7%	12 5.2%
남북 교류 활동	6 2.3%	24 9.2%	30 11.5%	15 5.7%	25 9.5%	13 5.0%	15 5.7%	25 9.5%	10 3.8%	18 6.9%	15 5.7%	10 3.8%	14 5.3%	12 4.6%	8 3.1%	22 8.4%
지역간 교류 활동	6 6.0%	8 8.0%	6 6.0%	5 5.0%	10 10.0%	8 8.0%	4 4.0%	12 12.0%	5 5.0%	10 10.0%	6 6.0%	4 4.0%	6 6.0%	4 4.0%	2 2.0%	4 4.0%
환경생태탐사 활동	8 7.0%	3 2.6%	6 5.3%	10 8.8%	7 6.1%	15 13.2%	4 3.5%	13 11.4%	5 4.4%	6 5.3%	5 4.4%	7 6.1%	5 4.4%	8 7.0%	6 5.3%	6 5.3%
야영 활동	30 5.2%	35 6.0%	27 4.6%	30 5.2%	55 9.5%	36 6.2%	36 6.2%	52 9.0%	28 4.8%	29 5.0%	38 6.5%	30 5.2%	35 6.0%	43 7.4%	28 4.8%	49 8.4%
해양수상활동	7 2.4%	21 7.2%	12 4.1%	24 8.3%	20 6.9%	28 9.7%	18 6.2%	18 6.2%	11 3.8%	13 4.5%	18 6.2%	20 6.9%	15 5.2%	26 9.0%	11 3.8%	28 9.7%
도전 활동	17 5.6%	17 5.6%	14 4.7%	18 6.0%	18 6.0%	26 8.6%	10 3.3%	33 11.0%	13 4.3%	23 7.6%	21 7.0%	17 5.6%	22 7.3%	18 6.0%	12 4.0%	22 7.3%
예술체험활동	20 3.5%	33 5.8%	37 6.5%	42 7.3%	55 9.6%	29 5.1%	45 7.9%	55 9.6%	25 4.4%	28 4.9%	37 6.5%	20 3.5%	31 5.4%	37 6.5%	33 5.8%	45 7.9%
전통문화예술 활동	5 2.9%	5 2.9%	7 4.0%	16 9.2%	16 9.2%	12 6.9%	15 8.7%	22 12.7%	8 4.6%	7 4.0%	14 8.1%	6 3.5%	5 2.9%	15 8.7%	5 2.9%	15 8.7%
축제문화활동	24 5.4%	30 6.7%	24 5.4%	36 8.1%	42 9.4%	31 6.9%	24 5.4%	41 9.2%	21 4.7%	24 5.4%	29 6.5%	13 2.9%	28 6.3%	32 7.2%	19 4.3%	29 6.5%
다문화 이해 활동	4 3.0%	7 5.3%	13 9.8%	11 8.3%	10 7.5%	7 5.3%	4 3.0%	12 9.0%	4 3.0%	5 3.8%	13 9.8%	6 4.5%	9 6.8%	8 6.0%	7 5.3%	13 9.8%
일손돕기 활동	6 2.5%	18 7.6%	13 5.5%	18 7.6%	24 10.2%	11 4.7%	18 7.6%	22 9.3%	12 5.1%	9 3.8%	18 7.6%	9 3.8%	9 3.8%	15 6.4%	12 5.1%	22 9.3%
재능나눔 활동	11 3.7%	11 3.7%	22 7.3%	24 8.0%	36 12.0%	10 3.3%	18 6.0%	21 7.0%	13 4.3%	22 7.3%	20 6.7%	17 5.7%	17 5.7%	14 4.7%	14 4.7%	30 10.0%
국제봉사 활동	4 1.5%	24 9.0%	23 8.6%	24 9.0%	35 13.1%	11 4.1%	24 9.0%	21 7.9%	11 4.1%	13 4.9%	13 4.9%	11 4.1%	12 4.5%	12 4.5%	11 4.1%	18 6.7%
환경보호 활동	4 2.6%	13 8.3%	10 6.4%	16 10.3%	5 3.2%	11 7.1%	9 5.8%	15 9.6%	7 4.5%	9 5.8%	11 7.1%	9 5.8%	7 4.5%	3 1.9%	8 5.1%	19 12.2%
자기이해 활동	10 3.7%	26 9.7%	18 6.7%	19 7.1%	16 6.0%	15 5.6%	18 6.7%	30 11.2%	9 3.4%	18 6.7%	15 5.6%	9 3.4%	17 6.3%	14 5.2%	13 4.9%	21 7.8%
진로직업탐색 활동	5 1.3%	29 7.6%	18 4.7%	32 8.4%	31 8.1%	25 6.5%	27 7.0%	45 11.7%	18 4.7%	19 5.0%	23 6.0%	13 3.4%	20 5.2%	31 8.1%	24 6.3%	23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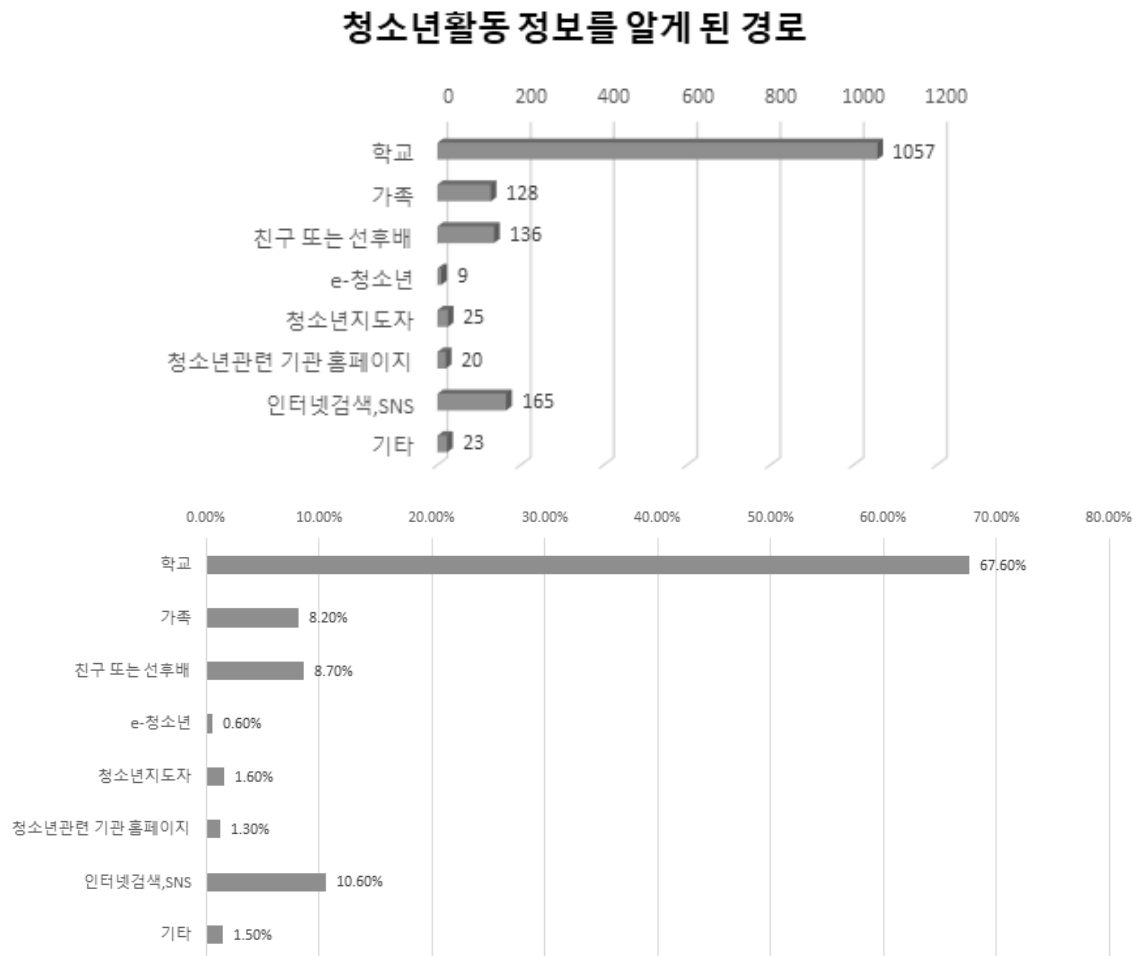
〈표 3 연속〉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직업체 험활동	23 4.2%	42 7.7%	30 5.5%	42 7.7%	47 8.6%	30 5.5%	37 6.7%	57 10.4%	21 3.8%	24 4.4%	34 6.2%	24 4.4%	31 5.6%	46 8.4%	28 5.1%	33 6.0%
창업 활동	10 4.5%	17 7.6%	9 4.0%	12 5.4%	15 6.7%	14 6.3%	13 5.8%	23 10.3%	12 5.4%	19 8.5%	10 4.5%	17 7.6%	17 7.6%	10 4.5%	8 3.6%	18 8.0%
참여기 구활동	1 1.0%	7 7.3%	5 5.2%	3 3.1%	9 9.4%	7 7.3%	5 5.2%	9 9.4%	3 3.1%	7 7.3%	9 9.4%	1 1.0%	6 6.3%	11 11.5%	2 2.1%	11 11.5%
자치 활동	5 3.1%	13 8.2%	13 8.2%	14 8.8%	9 5.7%	8 5.0%	5 3.1%	23 14.5%	7 4.4%	11 6.9%	11 6.9%	5 3.1%	16 10.1%	6 3.8%	4 2.5%	9 5.7%
지역사 회변화 활동	2 2.8%	3 4.2%	3 4.2%	6 8.5%	7 9.9%	5 7.0%	4 5.6%	9 12.7%	4 5.6%	4 5.6%	6 8.5%	4 5.6%	4 5.6%	1 1.4%	2 2.8%	7 9.9%
인권개 선활동	0 0.0%	11 9.2%	12 10.1%	7 5.9%	10 8.4%	6 5.0%	10 8.4%	12 10.1%	4 3.4%	3 2.5%	13 10.9%	4 3.4%	7 5.9%	3 2.5%	4 3.4%	13 10.9%

6. 청소년활동 결정 요인

6-1. 청소년활동 제공받은 정보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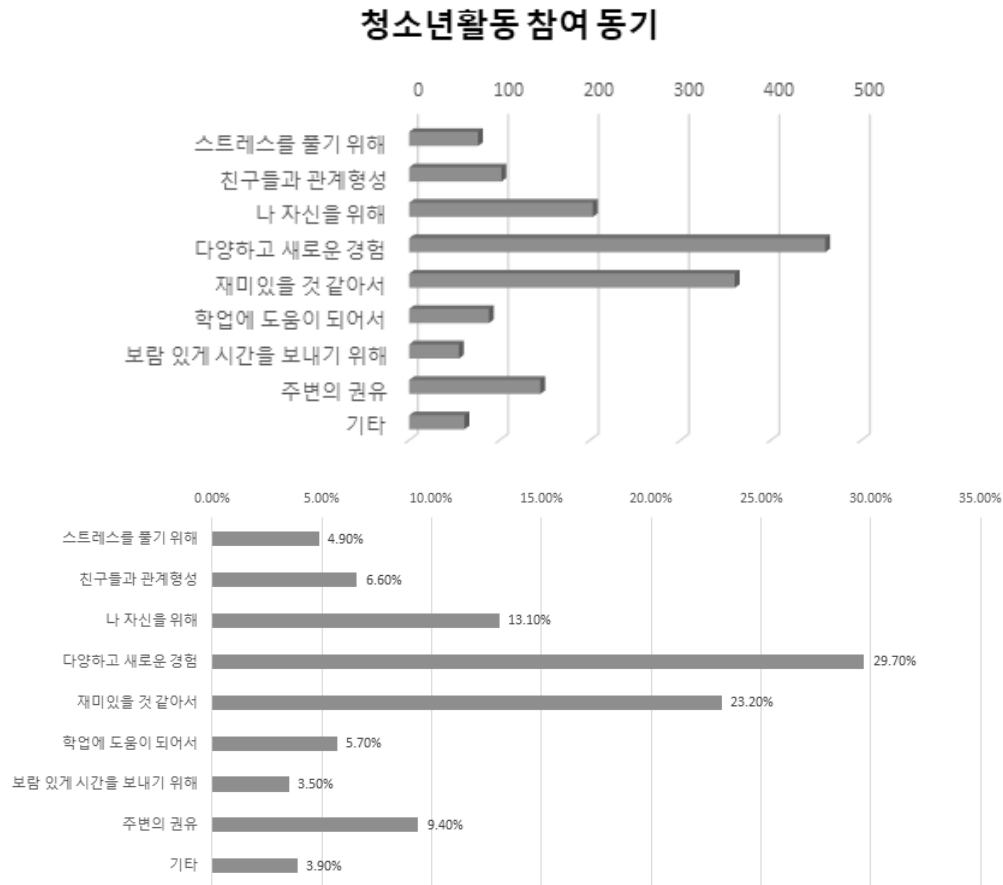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1563명 1057명인 67.6%가 '학교'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 2위 인터넷검색 및 SNS (10.6%), 3위 친구 또는 선후배(8.7%), 4위 가족 (8.2%), 청소년지도사 (1.6%) 등의 순서를 보임.



〈그림 141〉 청소년활동정보 획득경로

6-2. 청소년 참여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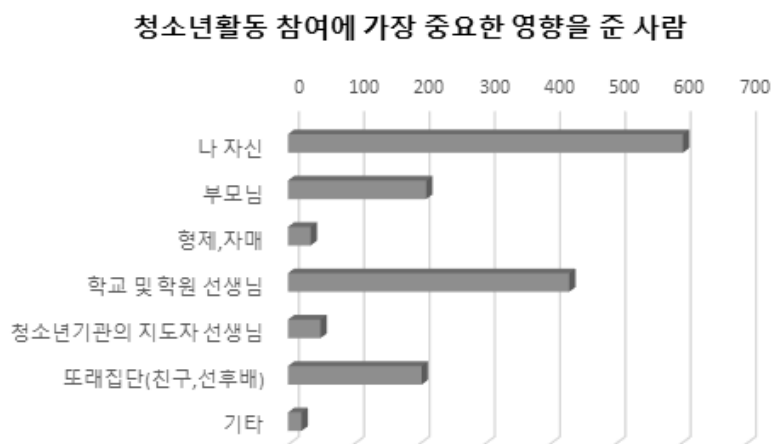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29.7%). 다음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한 청소년이 23.2%였고, '나 자신을 위해' 13.1%, '주변의 권유' 9.4%,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6.6%,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5.7% 와 '보람 있게 시간보내기' 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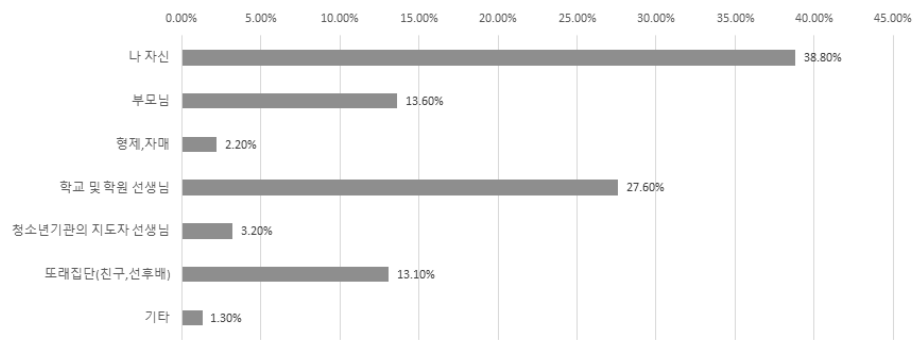


〈그림 142〉 청소년활동정보 참여동기

6-3. 청소년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람

-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까지 그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나 자신'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38.8%). '학교 및 학원 선생님' 27.6%, 부모님 13.6%, '또래집단(친구, 선후배)' 13.1%, 순으로 응답. '청소년기관의 지도자 선생님' 3.2%, '형제, 자매' 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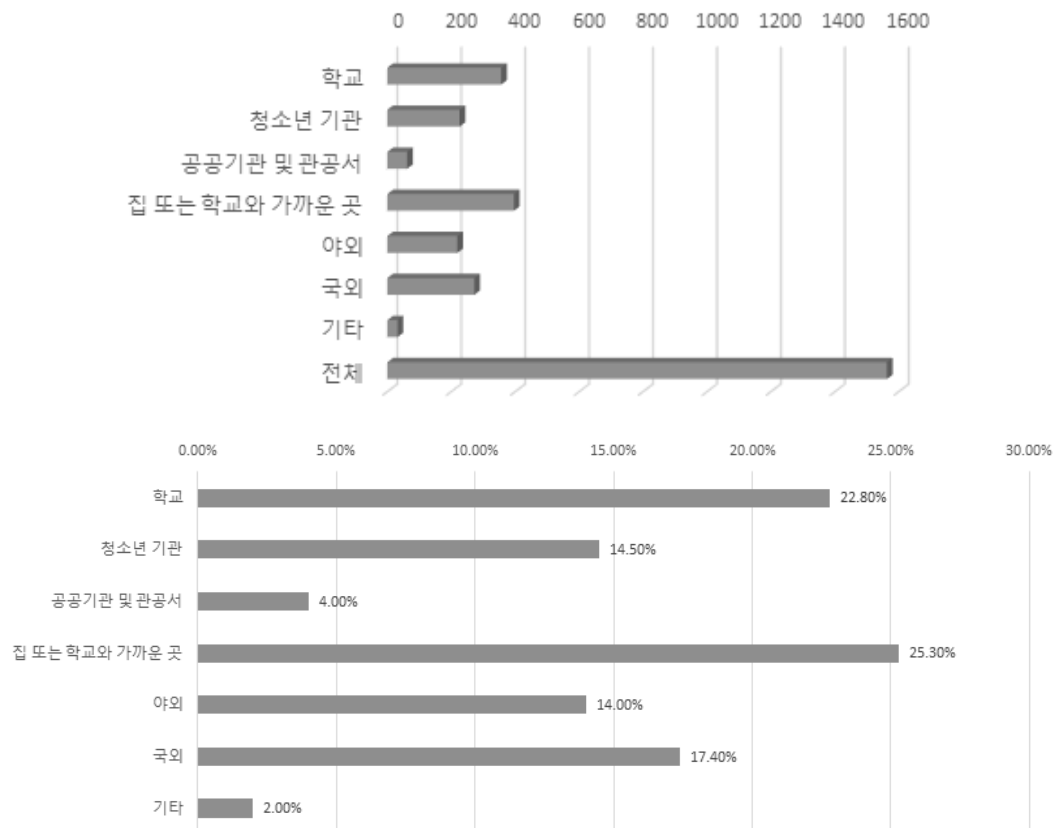


〈그림 143〉 청소년 참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

6-4. 청소년 희망활동 장소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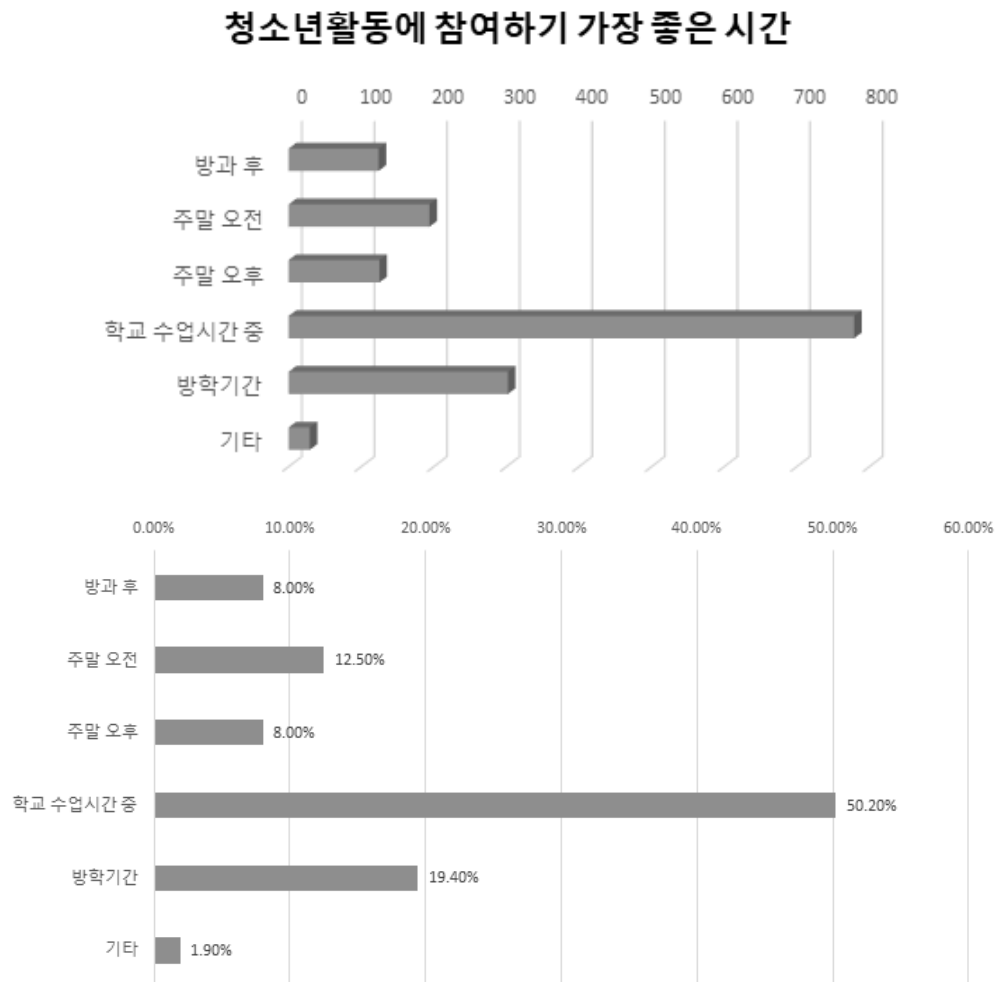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장소는 응답자 1563명 중 396명 (25.3%)이 '집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을 희망, 356명 (22.8%)이 '학교', 272명 (17.4%)이 '국외' 226명 (14.5%)이 '청소년기관', 219명 (14.0%)이 '야외', 62명 (4.0%)이 '공공기관 및 관공서'로 응답

가장 희망하는 활동장소



〈그림 144〉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장소

-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전체 응답자 1553명 중 '학교 수업시간 중' 779명(50.2%), '방학기간' 302명(19.4%), '주말 오전' 194명(12.5%), '주말 오후' 125명(8.0%), '방과 후' 124명(8.0%)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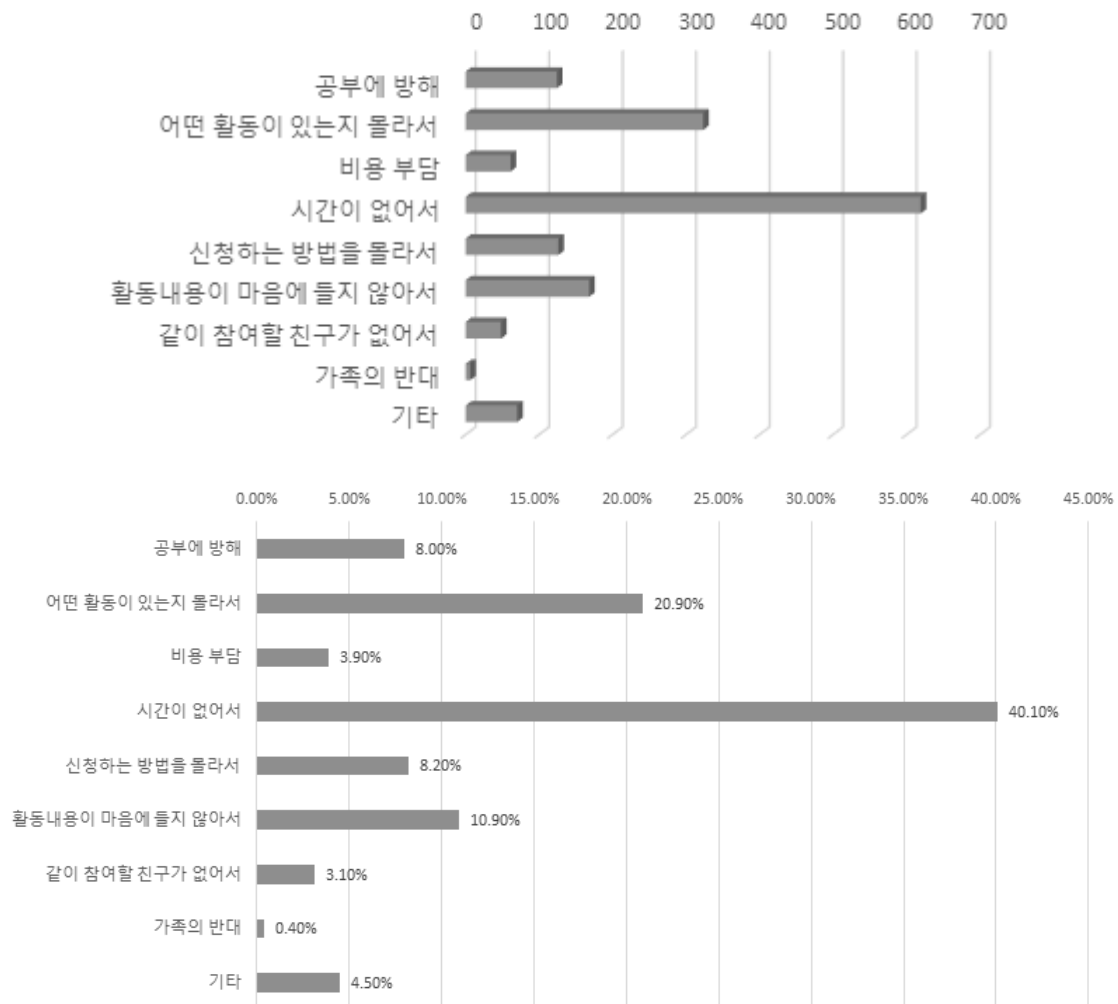


〈그림 145〉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

6-5.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 요인

- 청소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1545명의 전체 응답자 중 619명(40.1%)가 '시간이 없어서', 323명(20.9%)가 '어떤 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168명(10.9%)가 '활동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26명(8.2%)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124명(8.0%)이 '공부에 방해' 라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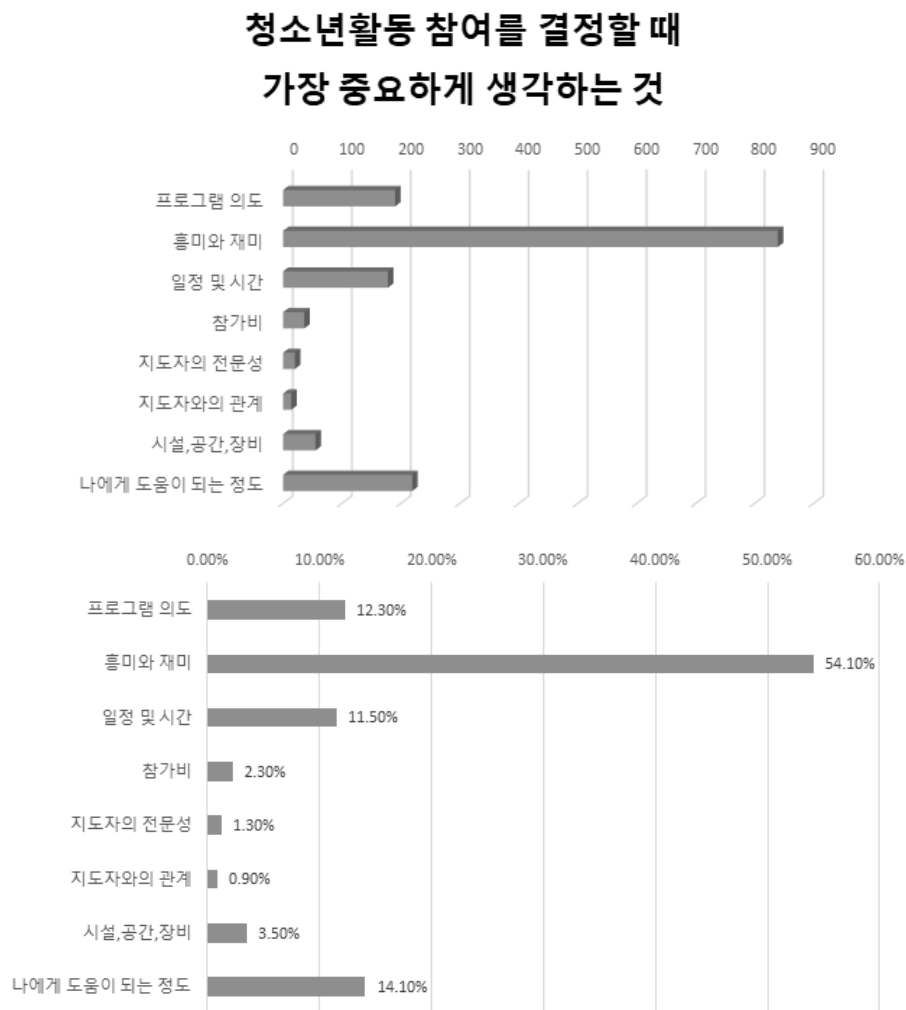
청소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그림 146〉 청소년활동참여 장애요인

6-6. 참여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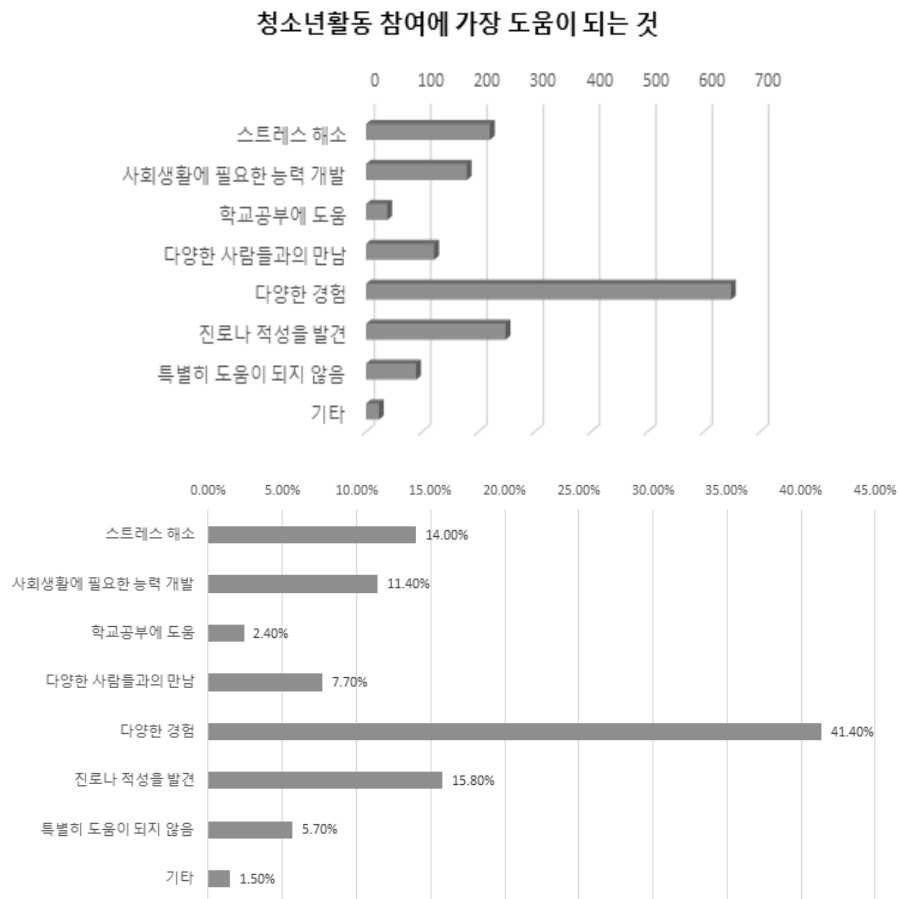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 참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 1551명 중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 839명 (54.1%)'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219명 (14.1%)', '프로그램 의도, 190명(12.3%)', '일정 및 시간, 178명(11.5%)', '시설, 공간, 장비, 55명 (3.5%)'. '참가비, 36명(2.3%)', '지도자의 전문성, 20명(1.3%)', '지도자와의 관계, 14명(0.9%)'순으로 나타남.



〈그림 147〉 청소년활동 참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6-7. 청소년활동 참여 도움이 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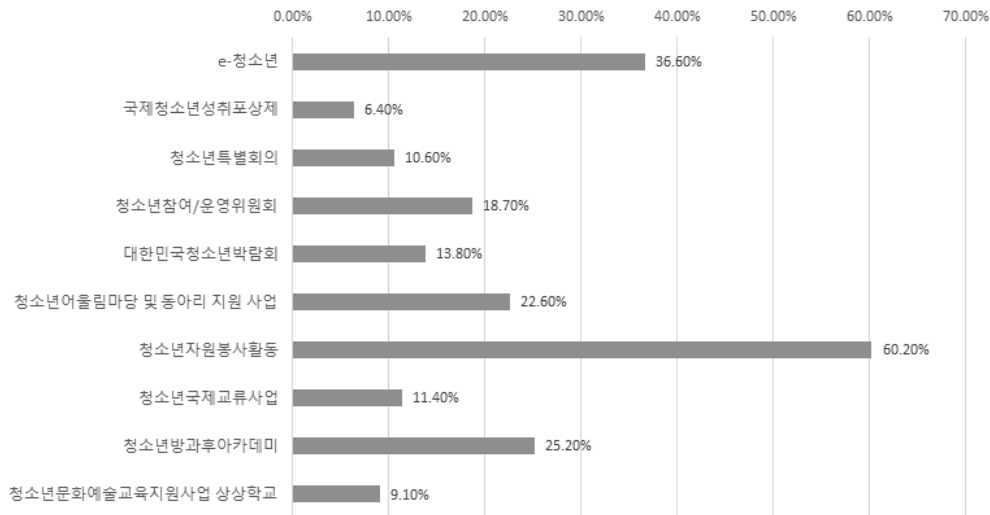
- 청소년 활동 참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 1566명 중 ‘다양한 경험’ 648명 (41.4%), ‘진로나 적성을 발견’ 248명(15.8%), ‘스트레스 해소’ 220명(14.0%),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개발’ 179명(11.4%),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121명(7.7%),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음’ 89명(5.7%), ‘학교공부에 도움’ 38명(2.4%) 순으로 응답함



〈그림 148〉 청소년 활동 참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

6-8. 청소년 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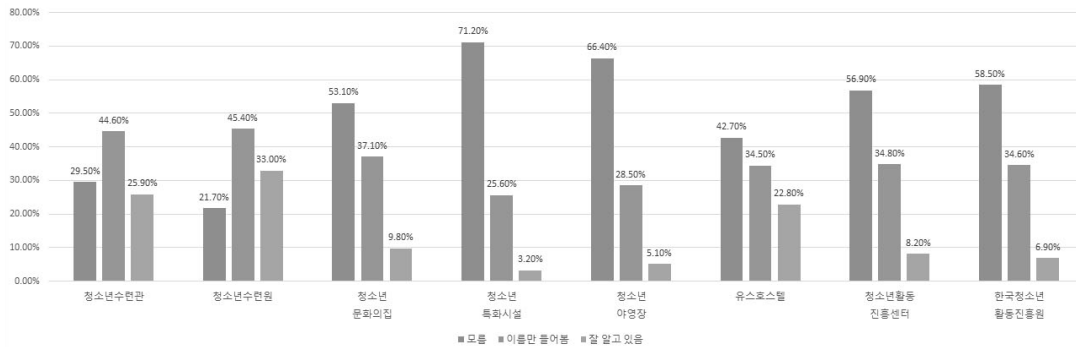
- 알고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자 1259명 중 ‘청소년자원봉사활동’ 758명(60.2%), ‘e-청소년’ 461명(36.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17명(25.2%),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사업 285명(22.6%),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235명(18.7%),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174명(13.8%), ‘청소년국제교류사업’ 143명(11.4%), ‘청소년특별회의’ 133명(10.6%),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상상학교’ 114명(9.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80명(6.4%) 순으로 응답



〈그림 149〉 알고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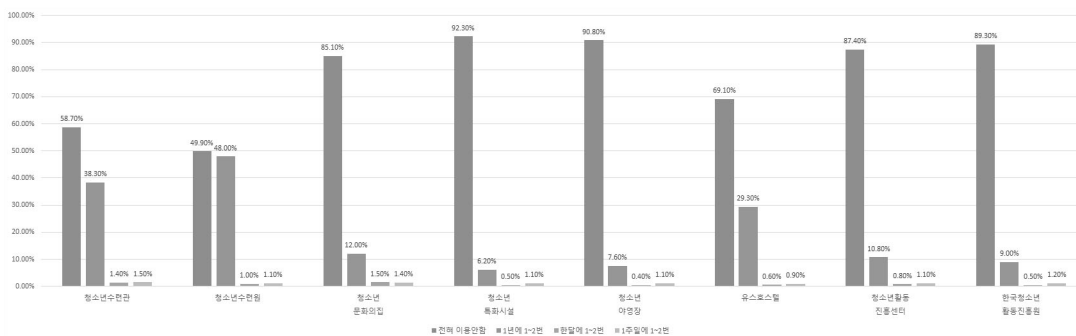
6-9. 청소년활동 시설 인지도 및 이용경험

-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수련관은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이 전체 1561명 중 696명 44.6%, 청소년 수련원은 708명 45.4%이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함. 청소년 문화의 집(53.1%), 청소년 특화시설(71.2%), 청소년 야영장(66.4%), 유스호스텔(42.7%), 청소년활동진흥센터(56.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58.5%)은 모른다고 응답



〈그림 150〉 알고 있는 청소년활동 시설

-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652명(49.9%)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627명(48.0%)이 1년에 1~2번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 수련관은 759명(58.7%)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495명(38.3%)이 1년에 1~2번 이용, 유스호스텔은 860명(69.1%)이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365명(29.3%)이 1년에 1~2번 이용한다고 응답, 청소년 문화의 집(85.1%), 청소년 특화시설(92.3%), 청소년 야영장(90.8%), 청소년활동진흥센터(87.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89.3%)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그림 151〉 청소년활동 시설이용경험

7.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상관관계

7-1. 청소년 역량 수준(개인시민성/협동/관계형성/진로설계)

7-1-1. 개인시민성

- 개인시민성은 4점 척도로 확인해 본 결과는 평균 3.50으로 나타남.
- 100점 만점에 87.5점

〈표 4〉 개인시민성 문항별 평균

		문항	평균
개인 시민성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57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자유를 가져야한다.	3.31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3.56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	3.56

7-1-2. 협동

- 협동은 평균 3.32,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3점

〈표 5〉 협동 문항별 평균

		문항	평균
협동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3.40
	2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30
	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35
	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3.33
	5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3.29
	6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3.26
	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3.33
	8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28

7-1-3. 관계형성

- 관계형성은 평균 3.24,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1점

〈표 6〉 관계형성 문항별 평균

		문항	평균
관계 형성	1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3.28
	2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되면 정확하게 알기위해 질문을 한다.	3.31
	3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3.34
	4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신한다	3.20
	5	나는 다른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다.	2.95
	6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18
	7	나는 다른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31
	8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3.29
	9	나는 바쁜일이 있어도, 화가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3.20
	10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3.33

7-1-4. 진로설계

- 진로설계는 평균 3.17,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9.25점

〈표 7〉 진로설계 문항별 평균

		문항	평균
진로 설계	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	3.28
	2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3.30
	3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3.18
	4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3.29
	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2.86
	6	관심 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한다.	3.13
	7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3.18
	8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3.00
	9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낀다.	2.99
	10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다.	3.42
	11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멋있다.	3.31
	12	나는 부모님이 내 장래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다.	3.20
	13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3.11
	1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3.10
	15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3.13

7-2. 청소년 활동이 개인시민성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성별을 제외한 학년, 학교성적, 참여한 청소년활동의 개수,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의 개수 등의 요인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f=11.098$, $p<.001$).
- 학년이 높을수록($\beta=.071$, $p<.01$), 성적이 낮을수록($\beta=-.091$, $p<.01$),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beta=.058$, $p<.05$), 청소년들이 참여를 원하는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beta=.129$, $p<.001$) 개인시민성은 높아짐
- VIF 값이 10 이하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음.
- 요인들은 개인시민성 역량을 설명력은 약 3.7%로 나타남

〈표 8〉 청소년 활동이 개인시민성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베타	$t(p)$	VIF	R^2	$F(p)$
(상수)	3.121	.087		35.675 (0.000) ***			
성별	-.008	.028	-.008	-0.299 (0.765)	1.05		
학년	.029	.011	.071	2.710 (0.007) **	1.02		
성적	.044	.013	.091	3.480 (0.001) **	1.03	0.034	11.098 (0.000)** *
참여활동 횟수	.063	.028	.058	2.240 (0.025) *	1.02		
희망활동 갯수	.013	.003	.129	4.926 (0.000) ***	1.03		

* $p<.05$, ** $p<.01$, *** $p<.001$

7-3. 청소년 활동이 협동역량이 미치는 영향

- 학년을 제외한 성별, 학교성적, 참여한 청소년활동의 개수,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의 개수 등의 요인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f=18.710$, $p<.001$).
- 성별에 따라 협동역량 차이가 있음($\beta=.076$, $p<.01$),
- 성적이 낮을수록($\beta=-.170$, $p<.001$),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beta=.052$, $p<.05$), 청소년들이 참여를 원하는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beta=.131$, $p<.001$) 개인시민성은 높아짐
- VIF 값이 10 이하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음.
- 요인들은 개인시민성 역량을 설명력은 약 5.8%로 나타남

〈표 9〉 청소년 활동이 협동역량이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베타	$t(p)$	VIF	R^2	$F(p)$
(상수)	2.762	.089		31.003 (0.000) ***			
성별	.084	.029	.076	2.932 (0.003) **	1.05		
학년	-.005	.011	-.012	-.478 (0.632)	1.02		
성적	.085	.013	.170	6.562 (0.000) ***	1.03	0.058	18.710 (0.000)** *
참여활동 횟수	.058	.029	.052	2.015 (0.044) *	1.02		
희망활동 갯수	.014	.003	.131	5.051 (0.000) ***	1.03		

* $p<.05$, ** $p<.01$, *** $p<.001$

7-4. 청소년 활동이 관계형성역량이 미치는 영향

- 학년, 성별을 제외한 학교성적, 참여한 청소년활동의 개수,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의 개수 등의 요인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f=14.106$, $p<.001$).
- 성적이 낮을수록($\beta=-.154$, $p<.001$),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beta=.060$, $p<.05$), 청소년들이 참여를 원하는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beta=.115$, $p<.01$) 개인시민성은 높아짐
- VIF 값이 10 이하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음.
- 요인들은 개인시민성 역량을 설명력은 약 4.3%로 나타남

〈표 10〉 청소년 활동이 관계형성역량이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베타	$t(p)$	VIF	R^2	$F(p)$
(상수)	2.812	.080		35.210 (0.000) ***			
성별	.032	.026	.032	1.234 (0.218)	1.05		
학년	-.001	.010	-.002	-.059 (0.953)	1.02		
성적	.069	.012	.154	5.885 (0.000) ***	1.04	0.043	14.106 (0.000)** *
참여활동 횟수	.060	.026	.060	2.324 (0.020) *	1.02		
희망활동 갯수	.011	.002	.115	4.399 (0.000) ***	1.04		

* $p<.05$, ** $p<.01$, *** $p<.001$

7-5. 청소년 활동이 진로역량이 미치는 영향

- 학년, 성별, 참여한 청소년활동의 개수를 제외한 학교성적,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의 개수 등의 요인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f=15.949$, $p<.001$).
- 성적이 낮을수록($\beta=-.189$, $p<.001$), 청소년들이 참여를 원하는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beta=.092$, $p<.001$), 개인시민성은 높아짐
- VIF 값이 10 이하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음.
- 요인들은 개인시민성 역량을 설명력은 약 5.2%로 나타남

〈표 11〉 청소년 활동이 진로역량이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베타	$t(p)$	VIF	R^2	$F(p)$
(상수)	2.611	.092		28.469 (0.000) ***			
성별	.033	.030	.029	1.107 (0.269)	1.047		
학년	.018	.011	.041	1.585 (0.113)	1.020		
성적	.097	.013	.189	7.252 (0.000) ***	1.035	0.049	15.949 (0.000)** *
참여활동 횟수	.053	.030	.046	1.771 (0.077)	1.021		
희망활동 갯수	.010	.003	.092	3.545 (0.000) ***	1.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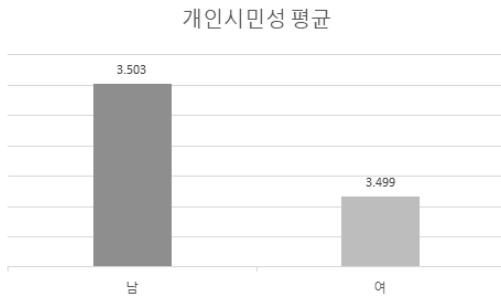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6. 개인시민성(성별/교급별/학교성적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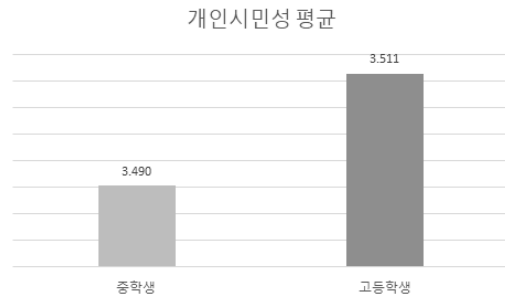
〈표 12〉 개인시민성 역량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F(p)$
성별	남	823	3.503	0.565	87.575	0.133(0.894)
	여	732	3.499	0.536	87.475	
교급	중	749	3.490	0.552	87.250	-0.755(0.450)
	고	807	3.511	0.551	87.775	
학교성적	상	240	3.595	0.589	89.875	4.979(0.001) **
	중상	333	3.551	0.489	88.775	
	중	581	3.500	0.528	87.500	
	중하	284	3.428	0.559	85.700	
	하	89	3.376	0.606	84.400	
고교유형	일반고	614	3.566	0.495	89.150	28.783(0.000) ***
	특성화고	142	3.218	0.670	80.450	
	특목고	52	3.702	0.420	92.550	
지역	강서구	87	3.480	0.549	87.000	3.260(0.000) ***
	금정구	101	3.515	0.500	87.875	
	기장군	96	3.477	0.527	86.925	
	남구	95	3.566	0.444	89.150	
	동구	99	3.475	0.474	86.875	
	동래구	96	3.365	0.682	84.125	
	부산진구	95	3.497	0.634	87.425	
	북구	137	3.573	0.505	89.325	
	사상구	90	3.247	0.661	81.175	
	사하구	101	3.614	0.462	90.350	
	서구	100	3.648	0.485	91.200	
	수영구	97	3.405	0.536	85.125	
	연제구	91	3.549	0.584	88.725	
	영도구	93	3.546	0.537	88.650	
	중구	92	3.440	0.581	86.000	
	해운대구	94	3.58	0.534	8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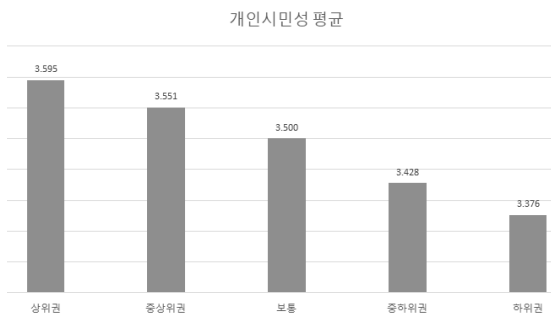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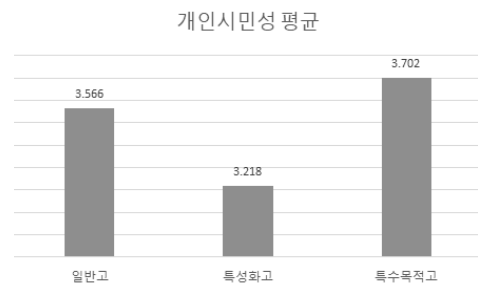
〈그림 152〉 성별에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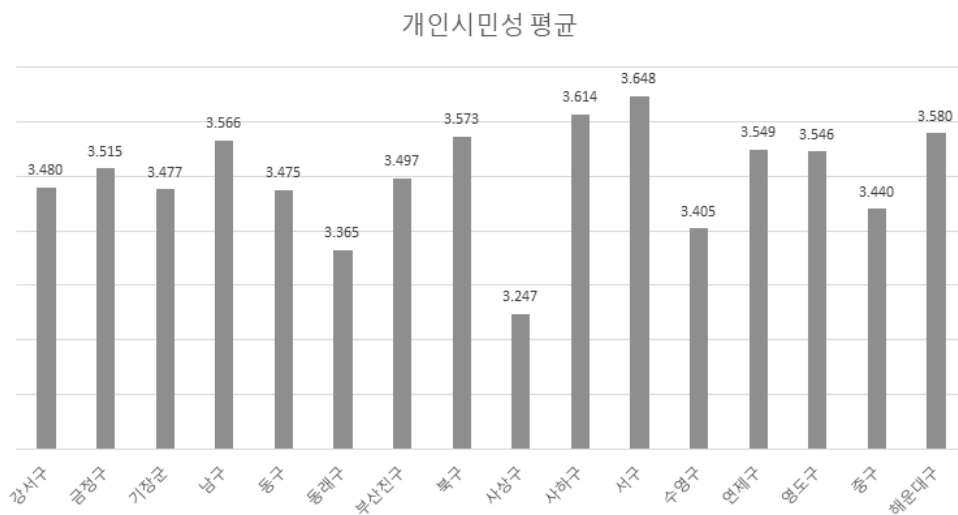
〈그림 153〉 교급별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그림 154〉 성적별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그림 155〉 고교유형에 따른 개인시민성 평균



〈그림 156〉 지역별 개인시민성 평균

7-7. 협동 (팔로우업,갈등문제해결)(성별/교급별/학교성적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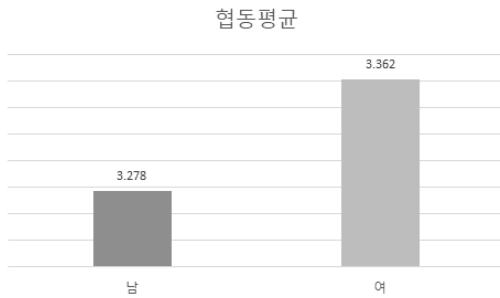
〈표 13〉 협동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팔로우업	1566	3.35	0.019	83.7998
갈등문제해결	1565	3.30	0.022	82.5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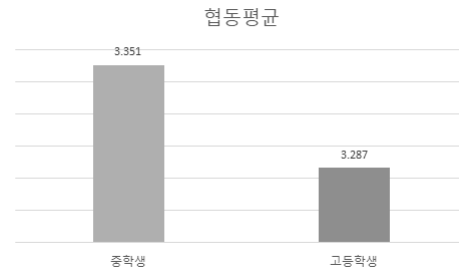
〈표 14〉 협동 역량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F(p)$
성별	남	823	3.278	0.578	81.950	-2.993(0.003)
	여	731	3.362	0.528	84.050	**
교급	중	748	3.351	0.560	83.775	2.269(0.023)
	고	807	3.287	0.552	82.175	*
학교성적	상	240	3.430	0.593	85.750	15.637(0.000) ***
	중상	333	3.419	0.501	85.475	
	중	581	3.324	0.539	83.100	
	중하	284	3.177	0.534	79.425	
	하	89	3.049	0.627	76.225	
고교유형	일반고	614	3.321	0.528	83.025	20.861(0.000) ***
	특성화고	142	3.050	0.609	76.250	
	특목고	52	3.541	0.426	88.525	
지역	강서구	87	3.257	0.561	81.425	3.052(0.000) ***
	금정구	100	3.239	0.498	80.975	
	기장군	96	3.323	0.531	83.075	
	남구	95	3.351	0.439	83.775	
	동구	99	3.446	0.525	86.150	
	동래구	96	3.263	0.647	81.575	
	부산진구	95	3.343	0.673	83.575	
	북구	137	3.274	0.477	81.850	
	사상구	90	3.151	0.593	78.775	
	사하구	101	3.542	0.471	88.550	
	서구	100	3.319	0.656	82.975	
	수영구	97	3.228	0.454	80.700	
	연제구	91	3.360	0.577	84.000	
	영도구	93	3.444	0.519	86.100	
	중구	92	3.238	0.565	80.950	
	해운대구	95	3.307	0.589	82.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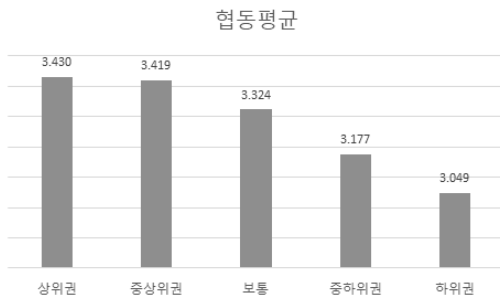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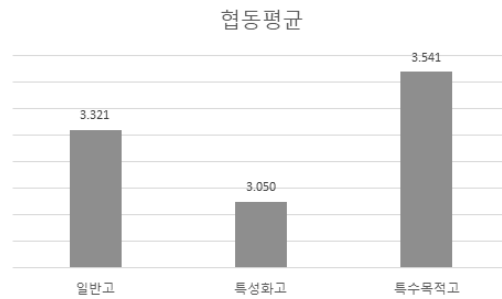
〈그림 157〉 성별에 따른 협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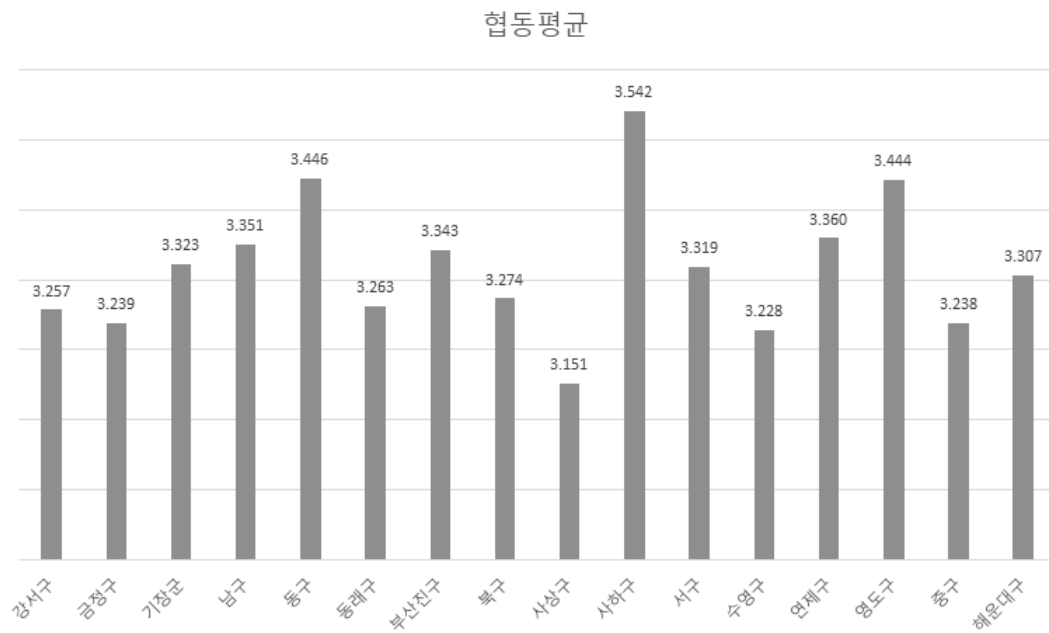
〈그림 158〉 교급별 협동 평균



〈그림 159〉 성적별 협동 평균



〈그림 160〉 고교유형별 협동 평균



〈그림 161〉 지역별 협동 평균

7-8. 관계형성(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성별/교급별/학교성적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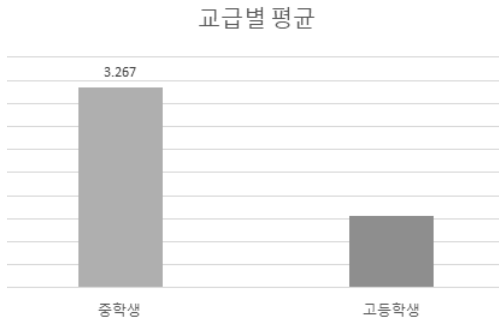
〈표 15〉 관계형성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의사소통	1565	3.21	0.143306	80.215
공감 및 배려	1565	3.28	0.059159	82.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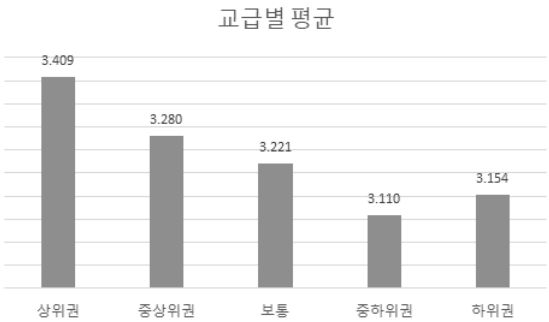
〈표 16〉 관계형성 역량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 / F(p)
성별	남	824	3.225	80.625	-0.949(0.343)
	여	730	3.250	81.250	
교급	중	749	3.267	81.675	2.190(0.029)*
	고	806	3.211	80.275	
학교성적	상	239	3.409	85.225	13.588(0.000) ***
	중상	333	3.280	82.000	
	중	582	3.221	80.525	
	중하	284	3.110	77.750	
	하	89	3.154	78.850	
교교유형	일반고	613	3.222	80.550	12.914(0.000) ***
	특성화고	142	3.080	77.000	
	특목고	52	3.469	86.725	
지역	강서구	88	3.15	78.750	2.837(0.000) ***
	금정구	100	3.27	81.750	
	기장군	96	3.20	80.000	
	남구	95	3.18	79.500	
	동구	99	3.26	81.500	
	동래구	96	3.23	80.750	
	부산진구	95	3.22	80.500	
	북구	137	3.19	79.750	
	사상구	90	3.11	77.750	
	사하구	101	3.45	86.250	
	서구	100	3.21	80.250	
	수영구	97	3.18	79.500	
	연제구	91	3.29	82.250	
	영도구	93	3.39	84.750	
	중구	92	3.24	81.000	
	해운대구	94	3.26	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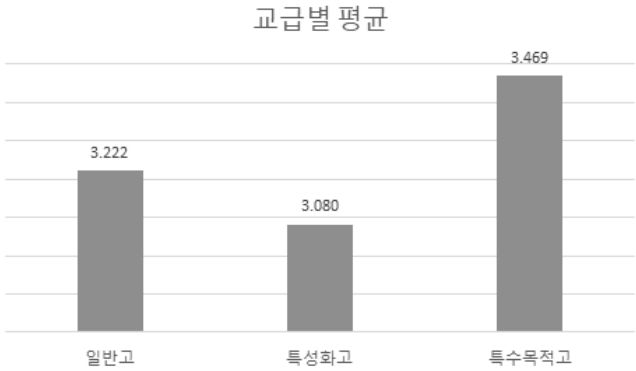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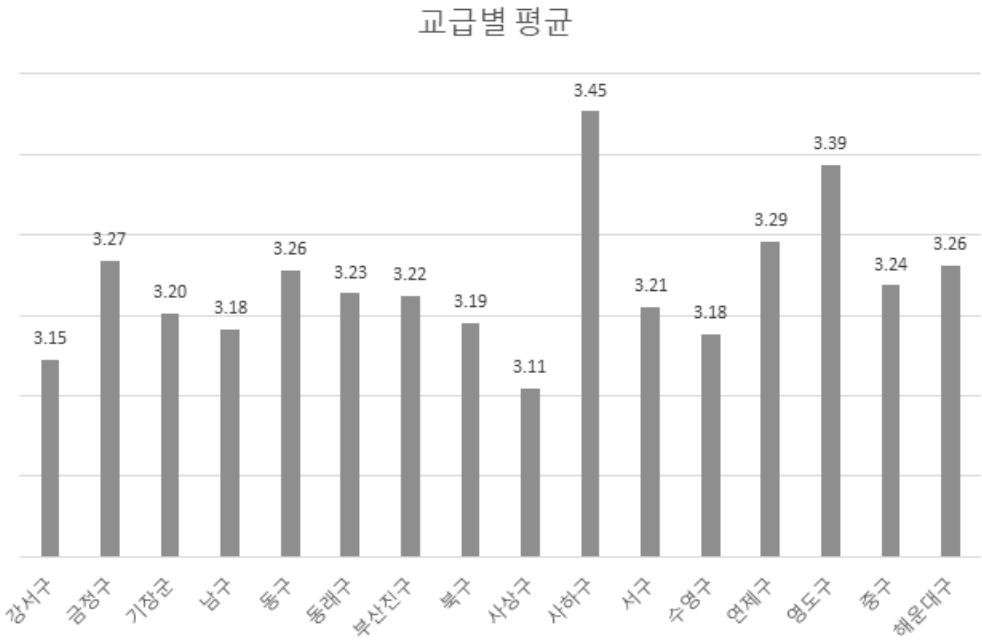
〈그림 162〉 교급별 관계형성 평균



〈그림 163〉 성적별 관계형성 평균



〈그림 164〉 고교유형별 관계형성 평균



〈그림 165〉 지역별 관계형성 평균

7-9.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성별/교급별/학교성적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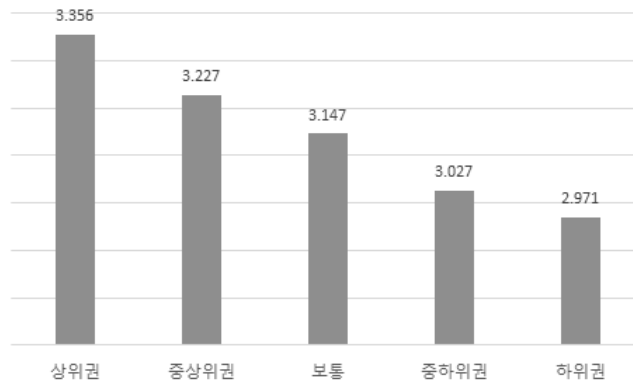
〈표 17〉 진로설계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자기탐색	1566	3.26	0.040	81.588
직업탐색	1565	3.04	0.060	76.006
직업가치관	1565	3.24	0.104	80.997
진로준비	1565	3.13	0.023	78.343

〈표 18〉 진로설계 역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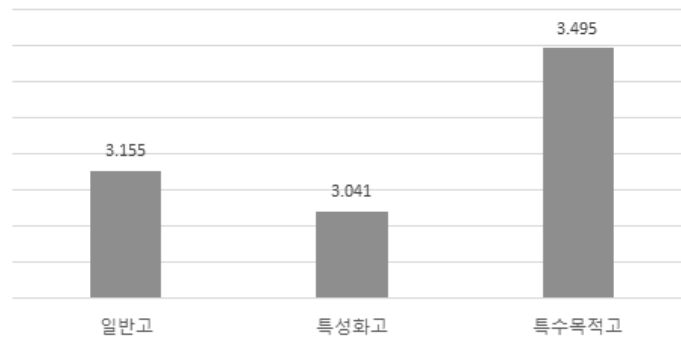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t/F(p)
성별	남	824	3.156	0.579	78.900	-0.561(0.575)
	여	730	3.172	0.558	79.300	
교급	중	749	3.175	0.578	79.375	0.683(0.495)
	고	806	3.155	0.562	78.875	
학교성적	상	239	3.356	0.565	83.900	15.305(0.000) ***
	중상	333	3.227	0.519	80.675	
	중	582	3.147	0.566	78.675	
	중하	284	3.027	0.551	75.675	
	하	89	2.971	0.623	74.275	
고교유형	일반고	613	3.155	0.541	78.875	13.051(0.000) ***
	특성화고	142	3.041	0.610	76.025	
	특목고	52	3.495	0.450	87.375	
지역	강서구	88	3.139	0.554	78.475	3.057(0.000) ***
	금정구	100	3.150	0.539	78.750	
	기장군	96	3.127	0.574	78.175	
	남구	95	3.044	0.501	76.100	
	동구	99	3.200	0.550	80.000	
	동래구	96	3.150	0.688	78.750	
	부산진구	95	3.175	0.677	79.375	
	북구	137	3.069	0.487	76.725	
	사상구	90	3.053	0.605	76.325	
	사하구	101	3.438	0.551	85.950	
	서구	100	3.143	0.634	78.575	
	수영구	97	3.089	0.462	77.225	
	연제구	91	3.190	0.544	79.750	
	영도구	93	3.324	0.543	83.100	
	중구	92	3.189	0.529	79.725	
	해운대구	94	3.178	0.611	79.450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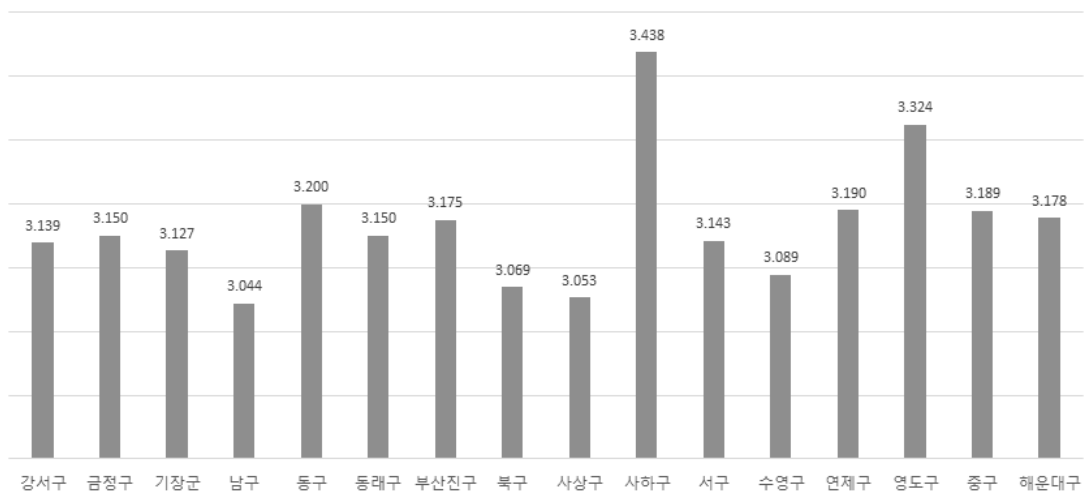
〈그림 166〉 성적별 진로설계 평균

진로설계평균



〈그림 167〉 고교유형별 진로설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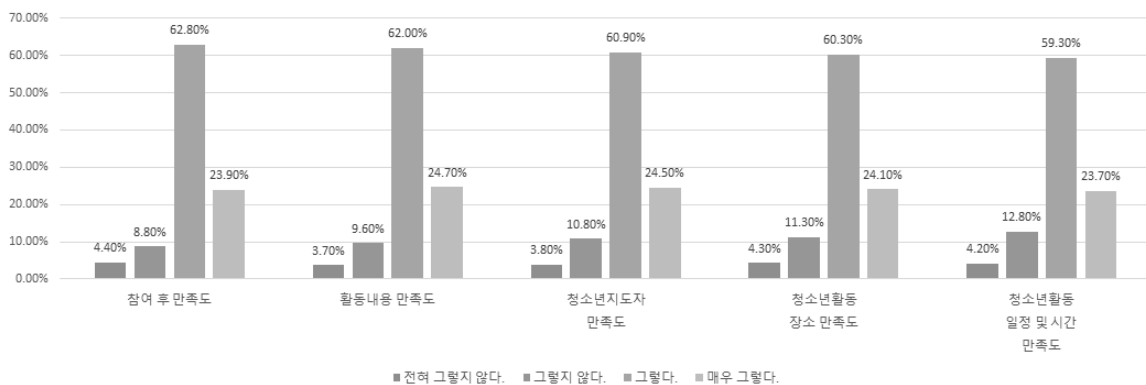
진로설계평균



〈그림 168〉 지역별 진로설계 평균

8-1. 청소년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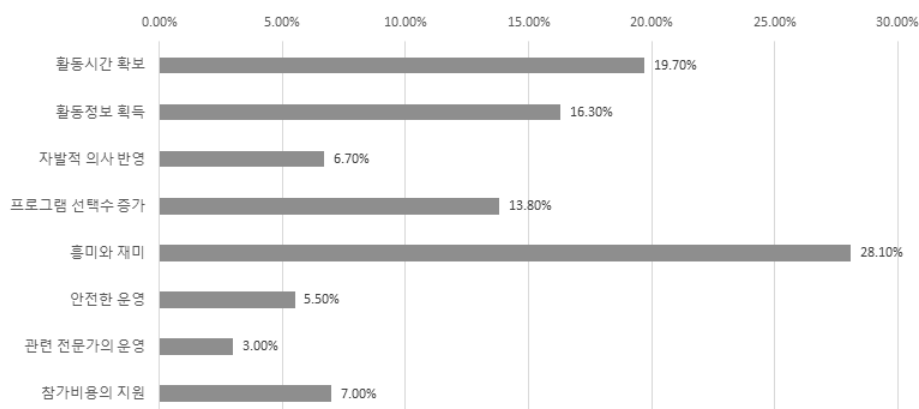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는 평균 3.05점(4점 만점),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약 76.33점
- 참여 후 만족도는 3.062(4점 만점), 76.55(100점 만점)
- 활동내용 만족도는 3.076(4점 만점), 76.89(100점 만점)
- 청소년지도자 만족도는 3.061(4점 만점), 76.53(100점 만점)
- 청소년활동 장소 만족도는 3.041(4점 만점), 76.03(100점 만점)
- 청소년활동 일정 및 시간 만족도는 3.025(4점 만점), 75.63(100점 만점)으로 나타남



〈그림 169〉 청소년활동 만족도

8-2.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 흥미와 재미가 전체 1522명 중 427명이 응답,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활동시간 확보 1522명 중 300명이 응답, 19.7%, 활동정보 획득은 248명이 응답하여 1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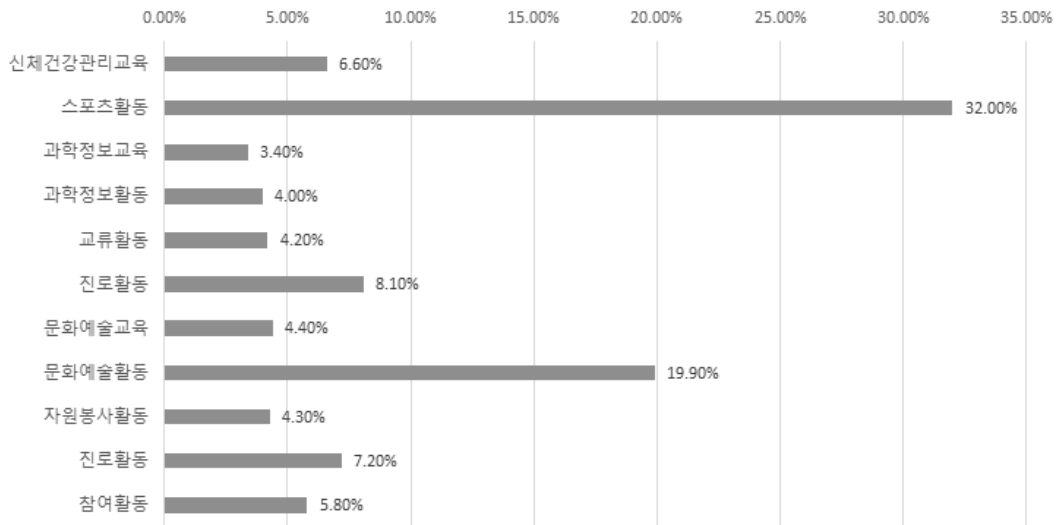


〈그림 170〉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8-3.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학교연계 희망활동

- 스포츠활동이 전체 1529명 중 490명이 응답,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이 1529명 중 305명이 응답, 19.97%, 진로활동은 124명이 응답하여 8.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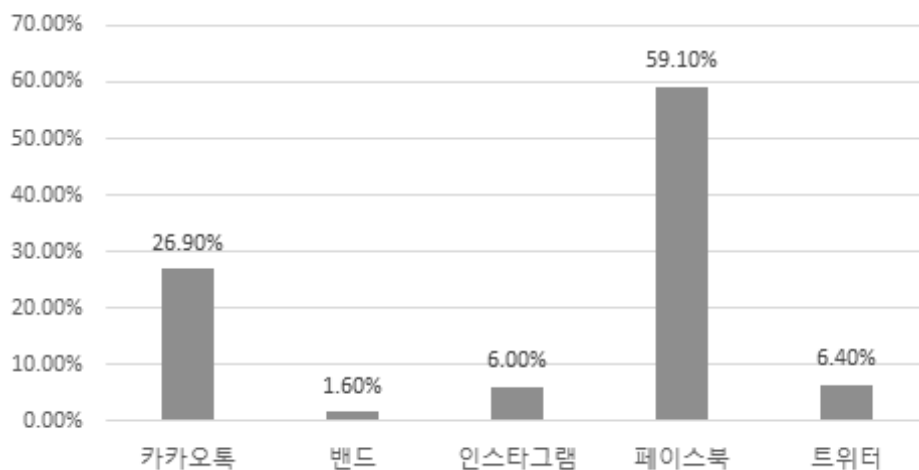


〈그림 171〉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학교연계 희망활동

8-4. 내가 즐겨 찾는 SNS방법

- 전체 응답자 1495명 중 884명이 응답, 페이스북이 59.1%로 가장 높음
- 다음은 402명이 응답 카카오톡이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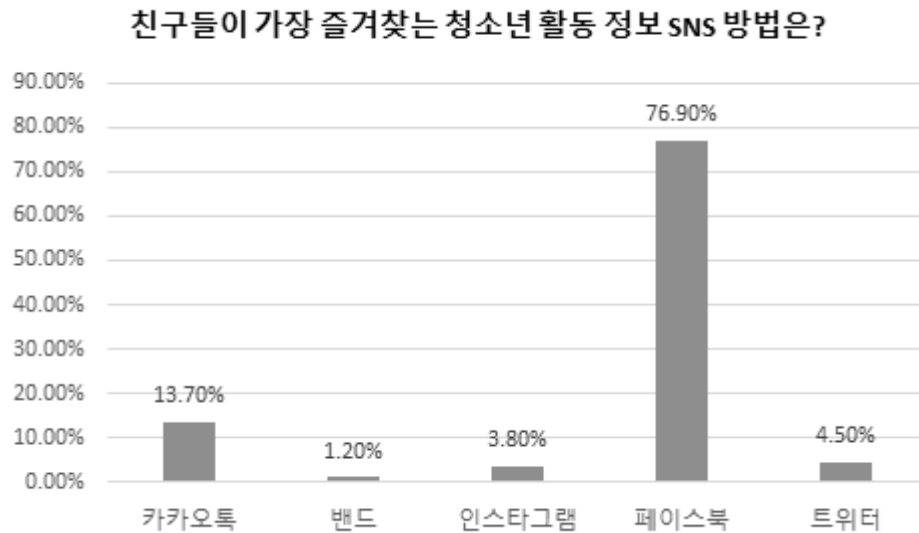
내가 가장 즐겨 찾는 청소년 활동 정보 SNS방법은?



〈그림 172〉 내가 즐겨 찾는 SNS 방법

8-5. 친구들이 즐겨 찾는 SNS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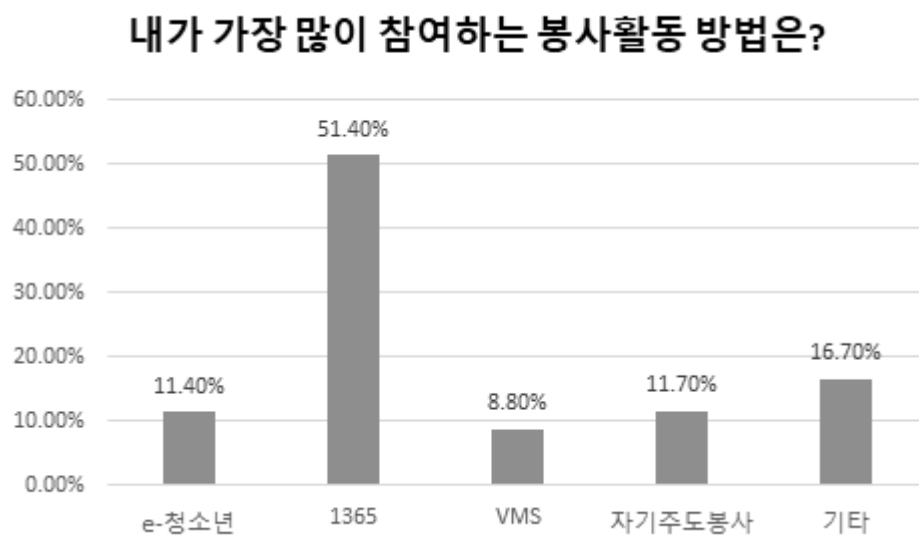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1212명 중 932명이 응답, 페이스북이 76.9%로 가장 높음
- 다음은 166명이 응답 카카오톡이 13.7%



〈그림 173〉 친구들이 즐겨 찾는 SNS 방법

8-6. 봉사활동 참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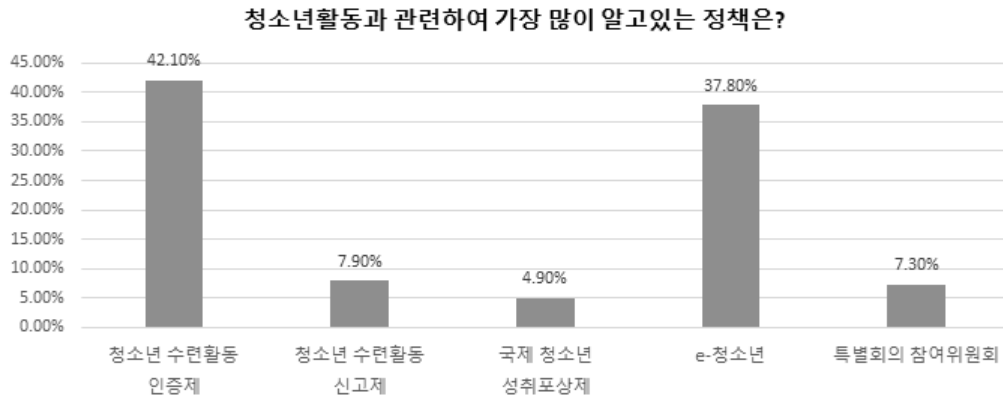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1199명 중 616명이 응답, '1365'가 51.4%로 가장 높음
- 다음은 200명이 응답 '기타'가 16.7%



〈그림 174〉 봉사활동 참여 경로

8-7. 필요한 청소년정책

- 전체 응답자 1095명 중 461명이 응답,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42.1%로 가장 높음
- 다음은 414명이 응답한 e-청소년 이 37.8%



〈그림 175〉 필요한 청소년정책

Ⅲ. 결론 및 제언

1. 주요결과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와 요구를 분석하고 청소년역량지수와 청소년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16개 구군별로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포함하고 특수목적고를 20% 가량 포함할 수 있도록 표본을 할당하였으며, 2018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간 설문을 실시하여 유효표본 1,580부를 분석 하였다. 청소년활동 공통지표 8개 영역 34개 활동에 대한 참여 실태와 요구, 청소년활동 결정요인, 청소년 역량, 청소년활동과 역량지수와의 관계 등 이 주요 내용이다.

1)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을 분석한 결과, 총 1580명 중 1507명(95.4%)의 청소년들이 1회 이상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청소년활동실태 및 요구조사와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8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영역은 건강증진활동으로 1424명(90.1%)이 참여하였으며, 진로활동(70.3%), 문화예술활동(69.5%), 참여활동(67.8%), 과학정보활동(53.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1.25점(평균 4.08/5점) 수준을 보였으며, 8개 모든 영역에서 7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건강증진활동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과 비교했을 때 성별, 교급, 학교성적, 고교유형,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중독예방활동, 생활안전활동, 정신건강활동, 성교육활동이 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활동은 신체건강관리활동과 스포츠활동이었다. 만족도는 남자 평균 4.13점으로 여자 평균 3.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활동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성적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 성교육활동, 중독예방활동과 정신건강활동 참여 경험이 많았다. 참여활동실태에서 건강증진활동이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활동 만족도에서는 78점(평균 3.90점/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과학정보활동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과 비교했을 때 성별, 교급, 학교성적, 고교유형,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기술공학활동에서는 남자(29.7%)가 여자 (20.5%)보다 참여 경험이 많았으며, 정보통신활동에는 여자(48.6%)가 남자(40.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해양과학활동도 여자가 (78.6%) 남자70.1%)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경험 횟수도 높았다. 지역별로는 기술공학활동이 가장 차이가 많았으며 사하구(42.2%), 강서구(33.3%), 해운대구(32.3%)가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교류활동의 교급별 차이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활동($\chi^2=4.659$, $p<.05$), 남북교류활동($\chi^2=39.759$, $p<.001$)과 지역간교류활동($\chi^2=10.221$,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국제교류 활동은 중학생 15.7%, 고등학생 12.0%, 남북교류활동은 중학생 9.9%, 고등학생은 2.3%, 지역간교류 활동은 중학생 12.9%, 고등학생 8.0% 로 나타났으며 성별차이에 따라 국제교류활동 만족도에서만 $t=2.835$, $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남자 평균 만족도 4.38, 여자 4.03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험탐사활동에 있어서는 해양수상활동만 참여경험에 있어서 $\chi^2=4.501$, $p<.05$, 참여횟수에 있어서 $\chi^2=12.980$, $p<.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경험에 있어서 남성(21.3%), 여성 (25.9%)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험탐사활동에 있어서 성별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환경생태탐사활동($\chi^2=15.203$, $p<.01$), 도전활동($\chi^2=11.755$,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았다. 모험탐사활동의 만족도의 경우는 성별별 차이에 야영활동과 도전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야영활동의 경우 상(평균 4.45)과 중중(평균 4.30)이 높았으며, 도전활동은 중상(평균 4.40)과 중(평균 4.30), 중하(평균 4.37), 하(평균 4.20), 상(평균 4.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로는 환경생태탐사활동에서 강서구(35.6%), 동구(30.0%), 사하구(29.4%)가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는 참여경험에 있어서 예술체험활동($\chi^2=75.444$, $p<.001$), 축제 문화 활동($\chi^2=27.645$, $p<.001$), 전통문화예술활동($\chi^2=11.085$, $p<.01$), 다문화이해 활동($\chi^2=18.235$, $p<.001$)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한 경험이 높았다. 문화예술활동 중 다문화이해활동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이 많았다. 지역별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술체험활동으로 동구(90.0%), 서구(75.0%), 남구, 부산진구, 영도구(70.5%)가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중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일손돕기활동($\chi^2=37.328$, $p<.001$)과 환경보호활동($\chi^2=18.283$, $p<.001$), 재능나눔활동($\chi^2=50.713$, $p<.001$)이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손 돕기활동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경험이 많았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의 경우 교급별 차이에 대해서는 국제봉사활동에서만 $t=-2.098$, $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중학생 평균 3.97, 고등학생 평균 4.31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활동 중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자기이해활동($\chi^2=24.615$, $p<.001$)과 직업체험활동($\chi^2=41.666$, $p<.001$), 진로직업탐색활동($\chi^2=79.116$, $p<.001$)이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직업탐색활동은 참여 경험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나 만족도 부분에서는 남자가(4.13점), 여자가(3.9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 횟수는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직업탐색활동, 직업체험활동의 참여 횟수가 많았다. 진로활동의 만족도의 경우 또한 '상'(평균 4.12), '중상'(평균 4.12), 중(평균 4.00), 중하(평균 3.91), 하(평균 3.6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차이로 자기이해활동의 경우 금정구(54.5%), 동구(50.0%), 사하구(49.0%)가

참여경험이 높았으며, 진로직업탐색활동은 남구(82.1%), 동구(82.0%), 영도구(71.6%)가 참여경험이 높고, 창업활동은 강서구(21.1%), 금정구(17.8%), 영도구(16.8%)가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활동의 경우 교급별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참여기구활동($\chi^2=11.402$, $p<.01$), 지역사회변화활동($\chi^2=13.016$,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참여기구활동은 중학생 14.95%, 고등학생 9.4%로 높았으며 지역사회변화활동은 중학생 8.6% 보다는 고등학생은 14.4%로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참여횟수의 경우 자치활동에 있어서는 5회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중학생 65.1%, 고등학생 73.6%으로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4회 미만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활동의 만족도의 경우는 고등학생 4.03점 보다는 중학생이 4.16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로는 지역사회변화활동은 연제구(19.8%), 수영구(16.3%), 금정구(15.8%)가 참여경험이 높았으며, 자치활동의 만족도의 경우 강서구, 사하구(평균 4.33), 연제구(평균 4.29), 영도구(평균 4.23)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활동 참여요구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4개 활동 중 스포츠 활동이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야영활동(39.2%), 예술체험활동(38.6%), 직업체험활동(37.0%), 축제문화활동(30.2%), 진로직업탐색활동(25.8%), 신체건강관리활동(24.3%), 성교육활동(24.1%) 도전활동(20.3%) 재능나눔활동(20.2%)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이 가장 낮은 영역은 지역사회변화활동(4.8%)이었고 다음으로는 참여기구활동(6.5%), 지역간교류활동(6.7%), 중독예방활동(7.1%), 환경생태탐사활동(7.7%), 인권개선활동(8.0%), 다문화이해활동(9.0%), 생활안전활동(9.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희망활동은 남성의 경우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4개 활동 중 기술공학활동이 7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정보통신활동(75.3%), 스포츠활동(68.2%), 신체건강관리활동(60.5%), 중독예방활동(6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인권개선활동이 7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제봉사활동(71.7%), 재능나눔활동(71.5%), 전통문화예술활동(67.8%), 예술체험활동(6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 참여희망 활동은 전체 34개 활동 중 강서구에서는 기술공학활동(8.7%), 금정구에서는 생활안전활동(10.9%), 기장군에서는 남북교류활동(11.5%), 남구에서는 환경보호활동(10.3%), 동구에서는 국제봉사활동(13.1%), 동래구에서는 생활안전활동(10.1%)과 성교육활동(10.1%), 부산진구에서는 국제봉사활동(9.0%), 북구에서는 자치활동(14.5%), 사상구에서는 중독예방활동(8.5%), 사하구에서는 우주과학활동(11.2%), 서구에서는 인권개선활동(10.9%), 수영구에서는 정보통신활동(11.7%), 연제구에서는 국제교류활동(10.9%), 영도구에서는 참여기구활동(11.5%), 중구에서는 진로직업탐색활동(6.3%), 해운대구에서는 환경보호활동(12.2%) 이 가장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활동 결정요인

청소년들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1563명 1057명인 67.6%가 '학교'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2위 인터넷검색 및 SNS (10.6%), 3위 친구 또는 선후배(8.7%), 4위 가족 (8.2%), 청소년지도사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 1551명 중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 839명 (54.1%)',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219명(14.1%)', '프로그램 의도, 190명 (12.3%)', '일정 및 시간, 178명(11.5%)', '시설, 공간, 장비, 55명(3.5%)', '참가비, 36명(2.3%)', '지도자의 전문성, 20명(1.3%)', '지도자와의 관계, 14명(0.9%)'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29.7%). 다음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한 청소년이 23.2%였고, '나 자신을 위해' 13.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까지 그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나 자신'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38.8%)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장소는 응답자 1563명 중 396명 (25.3%)이 '집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을 희망, 356명 (22.8%)이 '학교', 272명 (17.4%)이 '국외' 226명 (14.5%), '청소년기관', 219명 (14.0%)이 '야외', 62명 (4.0%)이 '공공기관 및 관공서'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전체 응답자 1553명 중 '학교 수업시간 중' 779명(50.2%), '방학기간' 302명(19.4%), '주말 오전' 194명(12.5%)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1545명의 전체 응답자 중 619명(40.1%)가 '시간이 없어서, 323명(20.9%)가 '어떤 활동이 있는지 몰라서', 168명(10.9%)가 '활동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활동 참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 1551명 중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 839명 (54.1%)'였으며, 다음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219명 (14.1%)', '프로그램 의도, 190명(12.3%)'순이었다.

청소년 활동 참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은 전체 응답자 1566명 중 '다양한 경험' 648명(41.4%), '진로나 적성을 발견' 248명(15.8%), '스트레스 해소' 220명(14.0%),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개발' 179명(11.4%),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121명(7.7%)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청소년활동사업의 인지도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758명(60.2%), ‘e-청소년’ 461명(36.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17명(25.2%),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사업’ 285명(22.6%),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235명(18.7%),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174명(13.8%)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1561명 중 696명 44.6%, 청소년 수련원은 708명 45.4%, 청소년 문화의 집(37.2%)로 나타났다.

4.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상관관계

청소년들의 개인시민성, 협동, 관계형성, 진로설계 역량지수를 살펴보면 개인시민성 87.5점(평균 3.50), 협동 83점(평균 3.32), 관계형성은 81점(평균 3.24), 진로설계는 79.25점(평균 3.17)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이 개인시민성 역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성별을 제외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한 활동 수가 많을수록, 희망하는 활동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개인시민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협동역량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한 활동 수가 많을수록, 희망하는 활동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협동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관계형성역량은 학년과 성별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한 활동 수가 많을수록, 희망하는 활동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관계형성역량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진로설계역량은 학년과 성별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한 활동 수가 많을수록, 희망하는 활동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진로설계역량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개인시민성, 협동, 관계형성, 진로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영역에 따른 세부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필요하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청소년들일 수록 관계형성 역량, 협동 역량, 개인시민성 역량, 진로역량이 각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가 청소년의 역량지수를 높이는 상관 관계에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서 8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증진 활동(90.1%/ 만족도 78점), 진로활동(70.3%/80.88점), 문화예술활동(69.5%/83점), 참여활동(67.8%/81.71점), 과학정보활동(53.0%/82점), 자원봉사활동(46.8%/81.80점), 모험탐사활동(42.7%/83.76점), 교류활동(19.8%/82.60점)순이었다. 건강증진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 했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의 8개 영역에 대한 참여율 높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1순위였던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와 '다양한 경험'을 고려한다면(2016년 조사와 동일) 빠르게 변화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젠더, 거버넌스 분야로 청소년역량 증진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② 청소년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인구대비 시설과 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4개의 세부활동에 대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요구를 살펴보면(다중응답) 스포츠 활동(49.1%), 야영 활동(39.2%), 예술체험활동(38.6%)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청소년들은 도전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성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고 참여하고 싶은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 시설의 인지도 부분에서 수련관 보다는 수련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16개 구군 지역별로도 희망하는 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청소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과 인력 등의 확충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산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발적인 청소년활동이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학교(67.6%), 인터넷검색 및 SNS (10.6%), 친구 또는 선
후배(8.7%)였으며, 청소년활동시설 인지도 부분도 수련원(45.4%), 수련관(44.6%)을 제외한 청소년활
동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율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과 SNS를 통하지만 청소년활동에 대
한 정보는 학교를 통해서가 대부분 이라는점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청소년이 선호하는 유명인사, 청소년 성장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스토
리텔링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 등 부산지역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부각 시킬 수 있는 홍보
에 대해 청소년활동시설과 지자체가 함께 다각적인 시도를 한다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브랜드가 구축되고 친숙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사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이다.

④ 요구조사 결과의 실제적인 활용과 정책적 반영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의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과 청소년 및 지도자, 학부모 등이 인식 할 수 있
도록 실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학계, 현장전문가와의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청소년
활동 정책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청소년활동실태 및 요구조사가 국가통계로서 승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지역사회에
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활동정책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실제적인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